

2007년도

#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조사 연구

2007. 10.

재정경제부·한국소비자원

# 제 출 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조사 연구□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0월

한국소비자원장 박 명 희

## < 연구 진 >

- 연구 책임자    정책연구실 배순영 선임연구원
- 공동 연구자    정책연구실 황정선 연구위원

## 1. 연구 배경

### □ 최근 소비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안감이 점차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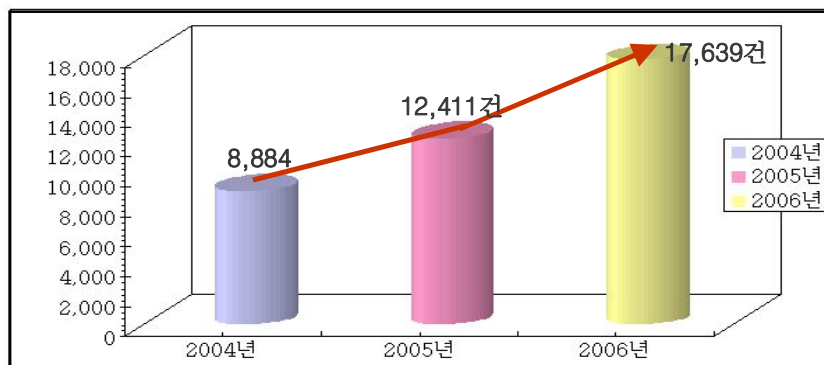
- 중국산 수입생선의 항생물질, 미 소고기 광우병, 집단급식사고, 플라스틱. 음료캔 등의 환경호르몬과 같은 각종 식품위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건강과 여가에 따른 관심 증대로 다이어트 관련제품이나 대형 놀이시설 등의 이용 증대에 따른 안전사고도 급증
- 또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새집증후군이나 바닥 미끄럼 등, 주생활 혹은 가정 내 소비생활의 안전이 주요 이슈로 등장

### □ 소비자위해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 등 각종 관련 통계치도 상승

-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의 신고건수는 2004년 8,884건에서 2006년 17,639건으로 증가 (198.5% ↑)
- 소비자위해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04년 3,451건에서 2006년 4,987건으로 증가 (144.5% ↑)

※동 기간 내 전체 소비자상담건수는 113.4% 증가

그림 1. 소비자위해정보건수 추이



자료 : 2006 소비자위해정보백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안전정책을 매년 강화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소비자기본법 내 소비자안전강화(200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법정기구화(2007) 등
  - 수산물이력추적제 시범실시(2005),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2006) 등
  
- 그러나 우리 사회전반의 소비자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재
  - 소비자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관련지표가 양적.질적으로 미흡
  -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안전 및 위해요소의 정도를 분석하여 그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소비자안전정책의 우선순위 발굴이 가능
  - 또한 이러한 소비자안전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신뢰나 안전커뮤니케이션 등의 요소를 찾아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바탕 하에 지표체계 및 산출방식을 정교화하여, 향후 지속적 지수 산출의 기준점이 될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측정영역을 소비생활에 관련된 5대 부문(식품/건강/주거/여가/교통)으로 구분하고, 총 62개 품목과 40개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
  - 선행연구가 가졌던 한계점, 즉, 측정대상이 품목에 국한되어 위해요인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부족했던 점이나 지수의 값이 위해체감이 높을수록 높아져 소비자위해체감지수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완
  - 또한 품목별 지수산출보다는 5대 부문별 지수산출에 보다 중점을 둬으로써,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소비자안전을 문제 삼기보다 소비자안전정책 전반의 우선순위 발굴에 보다 노력

## 2. 연구 체계

- 소비자안전체감지수(CSSI: Consumer Safety Sentiment Index)의 개념
  - 소비자부문에 대한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단하기 위한 지표
  - 소비생활에 관련된 5대 부문(식품, 건강·위생, 주거, 여가, 교통)을 대상
  
- 산출 지표체계
  -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위해불안감과 위해심각성을 양대 지표로, 일명 ‘T자형 방식’으로 측정
    - 위해불안감은 주요 품목별로 안전체감을 측정하는 것이며(표면적 측정) 위해심각성은 주요 위해요인별로 안전체감을 측정(구조적 측정)하는 것으로, 일명 ‘T자형 측정’이 가능<sup>1)</sup>
    - 예를 들어 식품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식품 부문의 14개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으로 측정)과 8개 주요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으로 측정)을 가중치로 환산하여 합산
  - 100점 만점으로, 값이 높을 수록 안전체감이 높음<sup>2)</sup>

### 2006년의 체계

- 주요 지표 : 5대 부문별로 주요 품목을 측정단위로 위해(발생)불안감, 위해심각성, 위해통제가능성의 3가지 지표로 측정
- 문 제 점 : 품목 만이 측정대상이어서 현상적.이미지 평가에 그치는 측면이 존재 또한 ‘위해통제가능성’ 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

1) 최근 T자형 인재, T자형 사고 등 “T자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폭이 넓으면서도 한 두 분야에서 깊이가 있는 것을 의미. 본 안전체감지수의 산출방식을 T자형 측정이라고 쓴 것은, 62개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품목과 40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위해요인을 측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 2006년 조사의 경우는 이와 반대였음. 즉, 소비자위해체감으로 정리됨.

### 3. 실태 조사 및 분석

□ 실태조사 개요 :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전국 7대 도시(서울 및 6대 도시)의 20세 이상 남녀
표 본 크 기	1,600명 (유효 표본기준)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단계 비례층화추출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설문조사 문항수	6개 영역, 40개 항목, 70개 문항 내외
조사 기간	2007. 7. 30 ~ 8. 12 (2005, 2006년과 거의 동일한 시기)

□ 자료의 분석방법

- 각각의 여러 조사내용별 분석은 SPSS 14.1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 등 일반적인 빈도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Simple, Multiple Regression),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을 실시

□ 표본 추출과 관련된 조사대상의 특성

표 2. 조사대상의 특성(일부)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1600	100.0	전체		1600	100.0
성별	남성	800	50.0	지역별	서울	440	27.5
	여성	800	50.0		부산	256	16.0
연령별	20대	379	23.7		대구	220	13.8
	30대	427	26.7		광주	162	10.1
	40대	373	23.3		대전	162	10.1
	50대	250	15.6		인천	220	13.8
	60대 이상	171	10.7	울산	140	8.8	

## 4. 주요 연구 결과

### 4.1.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전체적 경향

□ 종합 지수는 100점 만점에 37.21점

- 이는 소비자가 각종 소비생활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및 사용할 때, 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한 각종 위해요인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정도가 100점을 최고로 할 때 37.2점의 수준임을 의미
- 종합 지수를 구성하는 5대 부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식품(Beta값<sup>3)</sup> 0.264), 건강.위생(0.189), 교통(0.137), 주거(0.076), 여가(0.058) 순 (<표 3>)
  - 주거 여가의 안전체감지수값은 높지만 식품과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값에 따라 종합지수가 낮아짐

표 3. 종합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식품	건강.위생	주거	교통	여가
부문별 안전체감지수		32.40	28.59	60.76	42.05	44.96
가중치	Beta값	0.264	0.189	0.076	0.058	0.137
	구성비	36.47	26.10	10.50	8.01	18.92
종합 지수(Σ)		37.21				

- 5대 부문별 지수는 100점 만점에 식품부문 32.40점, 건강.위생 28.59점, 주거 60.76점, 교통 42.05점, 여가 44.96점
- 주거부문의 안전체감이 가장 높고, 다음에 여가, 교통, 식품, 건강.위생 순으로, 건강.위생분야의 안전체감이 가장 낮음
  - 이러한 안전체감의 순서는 2006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2006년의 경우 여가, 주거, 교통, 식품, 의약(건강.위생) 순

3) 이는 소비자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부문별 안전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후의 회귀값으로, 회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 4.2.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부문별 경향

- 식품부문 안전체감지수는 품목별 안전체감과 요인별 안전체감 가중합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41.63점, 23.16점으로 나타남

표 4. 식품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실제값(점)	가중구성비	지수값(점)
식품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41.63	0.50	32.40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23.16	0.50	
식품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안전체감은 유제품이 가장 높고(74.3), 국산농산물(71.3), 음료(63.1) 순이며, 수입수산물(9.8), 수입축산물(11.6), 수입농산물(22.5), 냉동식품(29.6)등이 낮게 나타남
  - 특히 체감도가 낮은 수입축산물이나 냉동식품 등이 식품안전체감 전반에 미치는 가중치가 높아 식품 안전체감이 41.63점으로 나타남

표 5.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	국산 농산물	71.3	0.111	9.33
	국산 수산물	49.6	0.079	6.64
	국산 축산물	55.3	0.116	9.75
	수입 농산물	22.5	0.073	6.13
	수입 수산물	9.8	0.026	2.18
	수입 축산물	11.6	0.228	19.17
	수입 건어물	49.0	0.007	0.59
	절임 식품	50.4	0.052	4.37
	즉석 식품	49.3	0.097	8.15
	훈연 식품	38.5	0.075	6.30
	냉동 식품	29.6	0.120	10.08
	유 제 품	74.3	0.089	7.48
	빵·과자류	55.1	0.075	6.30
	음 료	63.1	0.042	3.53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1.1900	100.0	41.63



- 요인별 안전체감은 GMO(36.7)과 학교집단급식(33.6)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입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팔기(16.6),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20.1)이 가장 낮음

표 6. 식품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식품 요인별 안전체감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잔류농약	29.1	0.115	26.56	23.16
	GMO (유전자 재조합식품)	36.7	0.023	5.31	
	광우병, 조류독감	20.1	0.009	2.08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20.2	0.076	17.55	
	학교 집단급식	33.6	0.032	7.39	
	1회용 포장용기의 유해성	26.2	0.003	0.69	
	식품 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	24.3	0.021	4.85	
	수입농축산물 국내산으로 속여팔기	16.6	0.154	35.57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4330	100.0	

- 건강·위생부문 안전체감지수 역시 품목별 안전체감과 요인별 안전체감 가중합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32.90점, 24.28점으로 나타남
- 품목별 안전체감은 위생세제가 가장 높고(77.9), 건강기구(62.9), 화장품(51.3) 순이며, 다이어트약품(7.8), 비만관리서비스(17.8)이 낮음

표 7. 건강·위생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실제값(점)	가중 구성비	지수값(점)
의약건강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32.90	0.50	28.59
안전체감지수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24.28	0.50	
식품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표 8.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	처방전없이 사는 의약품	27.6	0.045	5.12	32.90
	다이어트용 약품	7.8	0.137	15.59	
	건강(보조) 식품	29.5	0.085	9.67	
	건강기구	62.9	0.047	5.35	
	건강보조기구	46.2	0.051	5.80	
	위생용품	48.0	0.121	13.77	
	시력용 렌즈	49.0	0.095	10.81	
	위생세제	77.9	0.005	0.55	
	화 장 품	51.3	0.065	7.39	
	피부미용서비스	50.0	0.079	8.99	
	비만관리서비스	17.8	0.121	13.77	
	기 호 품	19.9	0.028	3.19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8790	100.0	

표 9. 건강·위생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건강·위생 위해요인 안전체감	효능·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	22.1	0.001	0.48	24.28
	안전 고려않은 건강 기구 생산	32.8	0.013	6.19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 유통	21.0	0.004	1.90	
	무자격 피부미용 관리	31.7	0.008	3.81	
	위생/미용제품의 유해화학물질 첨가	26.3	0.024	11.43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	25.0	0.047	22.38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	22.7	0.096	45.71	
	지나친 음주나 흡연	23.5	0.017	8.10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2100	100.0	

- 요인별 안전체감은 부적합한 수입한약재 유통(21.0)이 가장 낮고, 효능·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22.1), 허위과장 다이어트 관련제품(22.7), 지나친 음주와 흡연(23.5) 순으로 나타남

□ 주생활부문 안전체감지수 역시 품목별 안전체감과 요인별 안전체감 가  
중합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60.61점, 60.91점으로 나타남

표 10. 주생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점)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 (위해불안감)	60.61	0.50	60.76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위해심각성)	60.91	0.50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표 11.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	가전제품	85.5	0.191	29.84	60.61
	취사기기	51.1	0.043	6.72	
	조리기구	66.8	0.103	16.09	
	플라스틱 용기	46.1	0.013	2.03	
	스팀 청소기/다리미	49.8	0.006	0.94	
	에어컨/공기청정기	66.8	0.038	5.94	
	침대/식탁/거실 가구	84.6	0.032	5.00	
	가정내 석유/가스보일러	37.3	0.044	6.88	
	전기/히터, 온풍기	33.4	0.016	2.50	
	가정내 욕실/베란다	59.6	0.088	13.75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	28.8	0.063	9.84	
	새집 벽지/장판	17.6	0.003	0.47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6400	100.0	

- 품목별 안전체감은 가전제품이 가장 높고(85.5), 가구(84.6), 에어컨(66.8) 순이며, 새집벽지.장판(17.6),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29.8)이 낮음
- 요인별 안전체감은 부적합한 용품소재의 유해 화학물질(36.4)이 가장 낮고, 침구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감염(47.0) 순이었고, 생활용품 사용부주의로 다치거나(68.1), 조리과정의 사고(68.0), 가전제품 감전.합선사고(62.6)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나타남

표 12. 주생활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주생활 위해요인 안전체감	가전제품의 감전/합선 사고	62.6	0.084	20.35	60.91
	소비생활 제품 결함 사고	64.2	0.055	13.32	
	용품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36.4	0.016	3.87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폭발위험	53.3	0.053	12.83	
	침구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감염	47.0	0.038	9.20	
	조리 등에서 손 베이거나 화상사고	68.0	0.072	17.43	
	생활용품 사용부주의로 다칩	68.1	0.089	21.55	
	노인, 자녀들의 가정내 안전사고	53.7	0.006	1.45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4130	100.0	

□ 여가부문 안전체감지수는 품목별 안전체감 46.02점, 요인별 안전체감 43.92점으로 가중합산되어 이루어짐

표 13. 여가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점)
여가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46.02	0.50	44.96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43.90	0.50	
여가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품목별 안전체감은 국립 및 도립공원이 가장 높고(83.2), 쇼핑시설(75.0), 레저용품(69.2) 순이며,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21.5), 어린이스쿠터.놀이용품(21.6), 대형놀이시설(25.7)이 낮음

표 14.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	어린이 스쿠터/놀이용품	21.6	0.148	17.25	46.02
	레저용품	69.2	0.101	11.77	
	공공체육시설 및 놀이터	47.8	0.057	6.64	
	대형 놀이시설	25.7	0.164	19.12	
	공연시설	65.3	0.027	3.15	
	목욕시설	42.6	0.009	1.05	
	휴식시설	38.8	0.034	3.96	
	쇼핑시설	75.0	0.122	14.22	
	경 기 장	67.7	0.067	7.81	
	국립 및 도립공원	83.2	0.044	5.13	
	여행사를 통한 국내관광	49.1	0.031	3.16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	21.5	0.054	6.29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8580	100.0	

표 15. 여가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여가 위해요인 안전체감	스포츠용품결함에 의한 찰과상,부상	67.3	0.012	3.96	43.90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오염	41.6	0.032	10.56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	43.0	0.114	37.63	
	국내외 여행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	45.4	0.005	1.65	
	여가시설 관리자 등의 안전 불감증	36.7	0.001	0.33	
	공공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8.6	0.060	19.80	
	공공시설 이용 중 관람객 안전사고	47.0	0.075	24.75	
	여가서비스 이용 부주의에 의한 사고	55.8	0.004	1.32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3030	100.0	

- 요인별 안전체감은 여가시설관리자의 안전 불감증(36.7)과 공공시설 위생관리(38.6)이 낮고, 스포츠용품 결함에 의한 찰과상과 부상(67.3), 여가서비스 이용부주의에 의한 사고(55.8)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나타남

□ 교통부문 안전체감지수는 품목별 안전체감 48.51점, 요인별 안전체감 35.59점으로 가중 합산되어 이루어짐

표 16. 교통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점)
교통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48.51	0.50	42.05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35.59	0.50	
교통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품목별 안전체감은 기차(80.1), 지하철(67.9), 개인자동차(64.2) 순이며, 오토바이(7.8), 택시(28.7), 일반승강기(31.8)이 낮음

표 17.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	개인 자동차	64.2	0.299	26.86	48.51
	오토바이	7.8	0.060	5.39	
	보행시설	34.3	0.116	10.42	
	택 시	28.7	0.061	5.48	
	시내버스	45.2	0.134	12.04	
	지 하 철	67.9	0.006	0.54	
	기 차	80.1	0.061	5.48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45.2	0.117	10.51	
	항 공 기	46.0	0.011	0.99	
	에스컬레이터	44.2	0.001	0.09	
	거주 아파트의 승강기	40.0	0.093	8.36	
	일반 승강기	31.6	0.154	13.84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1.1130	100.0	

○ 요인별 안전체감은 음주운전사고(15.3), 난폭운전 등에 의한 사고(20.4), 업무과중에 의한 졸음운전사고(29.7)가 낮게 나타남

### 4.3.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식품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혼인여부, 가족세대구성,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20대이고, 직업이 학생이고,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미혼이고, 독신가구이고, 부산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변수인 정부정책신뢰, 사업자대응수준 평가, 소비자안전확보노력과 안전체감지수와의 관계는  
 .정부정책신뢰, 사업자대응수준 평가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소비자안전확보노력과는 유의한 부적관계를 가짐

표 18. 소비자인식변수와 식품안전체감지수와의 관계

독립 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 수		0.122	4.118	0.000
사업자 대응 평가	농축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노력	0.013	1.936	0.053
	가공/제조업자들의 위생적인 식품제조	0.031	4.030	0.000
	유통업자의 안전한 유통 노력	0.019	2.532	0.011
	급식업체의 좋은 식재료, 안전음식 제공	0.010	1.450	0.147
정부 정책 신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효과적 집행	0.033	5.017	0.000
	숨방망이 처벌에 의한 범죄 근절 애로	-0.011	-2.527	0.012
소비자 안전노력	식품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0.013	2.006	0.045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 노력	-0.034	-6.113	0.000
R <sup>2</sup>		0.132		
F		28.903		
유의도 (α)		0.000		

#### □ 건강.위생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여부,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연령이 20대이고, 미혼이고, 독신가구이고, 부산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 변수에서는 3변수 모두 유의미. 방향은 식품과 유사

□ 주생활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소득이 500~600만원인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 변수에서는 정부정책신뢰와 소비자안전확보노력이 유의미

□ 여가생활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부산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 변수에서는 3변수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소비자안전확보노력의 경우도 정적인 유의 관계를 보임

□ 교통생활의 경우

- 성별, 직업, 혼인여부, 지역, 정부정책신뢰, 소비자안전확보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 직업이 공무원, 미혼, 부산지역소비자,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안전확보노력이 낮을수록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4.4. 품목별.요인별 총괄 비교

□ 5대 생활부문 총 62개 품목에서 위해불안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최고 92.2점(다이어트약품, 오토바이), 최저 14.5점(가전제품)으로 나타남
- 위해불안감이 높은 상위 10개 품목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이어트약품, 오토바이 다음으로는 수입수산물(90.2), 수입축산물(88.4), 새집장판.벽지(82.4), 비만관리서비스(82.2), 음주나 흡연(80.1), 여행을 통한 해외관광(78.5), 어린이스쿠터.놀이용품(78.4), 수입농산물(77.5)로 나타남



.이를 분석하면 주로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 다이어트약품 및 비만 관리서비스, 신종제품에 따른 주생활안전,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이 최근 소비자안전의 가장 큰 이슈이며, 이에 덧붙여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오토바이, 음주나 흡연, 어린이용품 등이 주요 안전관련 제품

- 위해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하는 품목을 7개 정도 순서대로 제시하면, 가전제품 다음으로는 가구(15.4), 국립.도립공원(16.8), 기차(19.9), 위생세제(22.1), 유제품(25.7), 국산농산물(28.7) 등임

□ 5대 생활부문 총 40개 위해요인의 심각성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최고 84.6점(음주운전사고), 최저 31.9점(스포츠용품에 의한 찰과상 및 부상)으로 나타남
  - 위해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 요인을 차례로 나열하면, 음주운전사고, 수입농수축산물 국내산 속여팔기(83.3), 광우병.조류독감(79.8),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79.6), 난폭운전사고(79.5), 효능이나 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77.8),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제품(77.0), 지나친 음주나 흡연(76.8), 식품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75.6),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74.8) 등
- .이를 분석하면 각종 식품관련 항생제남용이나 광우병, 조류독감 등에 대한 장기적인 신체손상에 대한 우려는 음주나 흡연에 비해 높고,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역시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보임

## 5. 정책적 제언

### 5.1. 소비자안전정책을 위한 제언

-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건강.위생 부문과 식품, 여가 부문
  - 건강.위생 부문은 다이어트약품이나 비만관리서비스, 항생제 남용, 부적합한 재료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교육이 필요
  - 식품은 전체 소비자안전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특히 수입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 및 표시제도가 엄격히 지켜지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

- 품목별로 보면 위해불안감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각 해당부처별 세부지표 개발도 검토
  - 62개 품목 중에서 위해불안감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수준이 높아진다면 안전체감지수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흡연’을 기준으로 할 때(위해 100점 만점에서 80.1), 수입수산물, 수입축산물, 다이어트용 약품, 비만관리서비스, 새집 벽지 장관, 오토바이 등)으로, 이들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소비자안전정보 확보 및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
  - 또한 흡연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서비스, 대형놀이시설서비스 등 위해체감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 대해 안전관리기준 및 지침이 마련.강화될 필요
  - 어린이용품이나 기구의 경우 여러 부처가 종합하여 별도의 안전지표 개발이 필요
  
- 위해요인별로 보면 위해심각성이 높은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정책 및 집중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필요
  - 40개 위해요인 중에서 역시 ‘흡연’을 기준으로 할 때, 광우병.조류독감,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수입농수축산물 국내산 속여팔기, 효능이나 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 부적합한 수입한약재 유통,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제품 등, 심각성이 높은 위해요인에 대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채널이 개발될 필요

## 5.2. 소비자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제언

- 안전체감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제고할 소비자안전정보정책의 개선이 필요
  - 본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서 유의하게 안전체감이 낮은 품목이나 위해요인들을 살펴보면 주로 지난 1년간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전사고관련 품목과 요인과 상당히 유사함

-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이슈나 한 번의 사고보도에 따라 막연한 불안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안전정보의 양을 보다 증대시켜야 함
- 특히 소비자들은 안전정보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며, 시장 내에서 안전정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안전정보정책이 긴급히 요구
-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확보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행지침 제공이 필요

### 5.3. 향후 지속적 지수개발 방향

#### ○ 측정대상

- 62개 품목 및 40개 위해요인의 지속적 검토를 통한 보완이 필요

#### ○ 산출방정식

- 품목별 안전체감과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의 가중치 산정을 다른 방식(예를 들면 통계적 가중치 산정 등)으로 접근해보는 일이 필요

#### ○ 지속적 산출 방안

- 1년에 1회, 유사한 기간에 지수를 산출하여 연도별 변화추이를 파악할 필요

**소비자안전**

공공안전의 한 영역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조건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이며, 법적 개념으로는 ‘소비자위해  
가 없는 상태’를 의미

## I. 소비자안전정책과 소비자안전체감지수

### 1.1 소비자기본법시대 소비자안전정책

#### □ 소비자안전정책의 지속적 강화

- 신기술·상품 컨셉의 다양화로 인한 복합 상품 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등장 하고, WTO/FTA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상품의 급증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요소가 증가
- 정부의 소비자안전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시책강화, 위해정보보고 의무사업자 범위 규정, 소비자안전센터 법정기구화 등 관련정책인프라를 공고히 함
  - 신상품, 수입품 등 안전 확인이 곤란한 물품 등에 대해 소관 품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위해성을 조사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 신설
  - 위해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안전정보 관련 사항 구체화,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경부장관의 관계부처에 대한 개선의견제시 등을 규정

□ 그러나 사회전반의 소비자안전 불안감 등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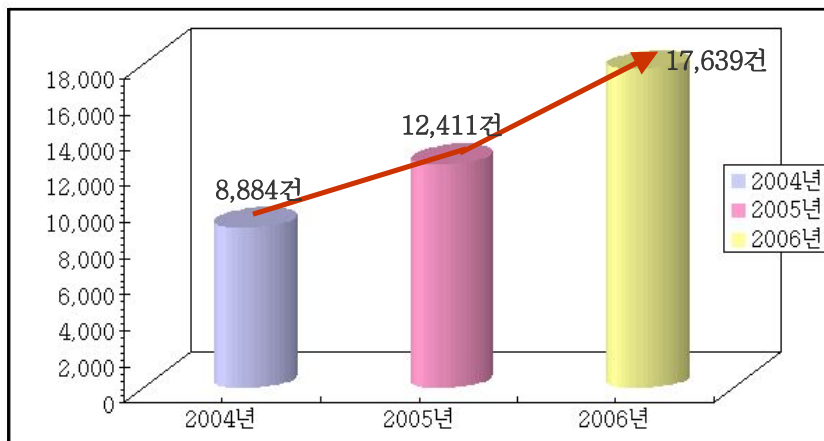
- 현대사회를 리스크사회라고 할 만큼 사회전반에 안전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어 소비자안전 불안감은 쉽사리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소비자상담에서 소비자안전이 차지하는 비중(<표 1.1>)이나 위해정보건수(<그림 1.1>)는 날로 증가

표 1.1 소비자상담건수 대비 소비자위해정보건수의 비중

구분	년도	2004년	2006년
전체소비자 상담건수(A)		272,943건	309,545건
소비자안전관련 상담건수(B)		3,451건	4,987건
B/A (%)		1.26 (%)	1.61 (%)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넷

그림 1.1 소비자위해정보건수 추이



자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 우리사회전반의 소비자 안전인식, 안전정책 성과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해 안전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

## 1.2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개념 및 의의

### □ 소비자안전체감의 개념

- 소비자안전은 객관적인 안전수준이면서 주관적인 안전평가의 문제인데, 소비자의 주관적 안전평가 부분이 소비자안전체감
  - 샌드만(Peter M. Sandman, 1999)은 소비자위험(Risk)을 객관적인 위해(Hazard)와 주관적인 불안감(Outrage)으로 이분하고,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위해의 예방 및 감축'과 '안전 불안감의 관리 및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안전 불안감의 부분이 더 중요하게 부각
  - 여기서 안전 불안감, 즉, 소비자의 주관적인 안전평가 및 인식의 부분이 바로 소비자안전체감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평가하는 소비자안전 수준을 의미
  - 이는 최근 안전의 진단에 있어 중요한 평가기준이 '얼마나 안전하여야 충분히 안전한 것인가?' 에서 점차 '얼마나 안전하다고 인식되어야 충분한가?'로 바뀌는 것이 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우리 사회의 안전성 평가를 사업자의 안전성 평가 대신에 사용자의 안전성 평가로, 기술적. 공학적 안전성 평가 대신에 인지. 심리적 안전성평가로 접근하는 것

### □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개념

- 소비자안전체감지수(CSSI; Consumer Safety Seniment Index)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평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진단하는 도구
  -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안전 불안감 및 각종 위해요소 인식정도를 조사·분석하여 그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평가

측정부문과 품목

- 소비생활의 5대 부문 : 식품, 건강·위생, 주거, 교통, 여가
- 주요 측정 품목 : 국산 농수축산물, 수입농수축산물, 각종 가공식품,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렌즈, 건강기구, 새집 장관과 벽지, 욕실바닥, 승강기, 자동차, 지하철, 항공기, 대형놀이시설, 공연장, 국내외여행 등

□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의의

-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 값은 소비자 중심적 관점에서 안전문제 및 안전정책의 수준을 파악하는 시발점으로 효과적·효율적인 정부정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함
  - 소비자의 안전체감이 낮아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자안전 불신을 크게 하는 부문, 소비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소비생활에서의 위해요소내용 등을 파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집행
  - 장기적으로는 안전 정책.언론보도 등 사회적 요소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특히 소비자안전체감에 관련된 소비자의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수준 등의 변수와 지수와의 관련성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안전체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안전 교육.홍보의 기초 자료도 활용 가능







**위해정보  
시스템  
(CISS)**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체상 손해 및 사망이 발생한 사례 혹은 인체상 손해 및 사망의 우려가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 한국소비자원 안전센터에서 운영

## II.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의 실태 및 현황

-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위해정보시스템의 최근 자료(2004~2006년)와 관련 안전보고서, 신문자료 등을 검토
  - 향후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결과와 비교하기 쉽도록 자료를 5대 부문으로 재정리

### 2.1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

- 소비자위해정보건수는 지난 3년간 매년 증가
  - 2004년 8,884건에서 2006년 17,6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
  - 이는 위해정보 보고기관의 증대에도 기인하지만<sup>4)</sup> 특히 안전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건수의 증대에도 기인
    - ※ 소비자상담·피해를 통한 위해신고건수의 경우 2004년 3,461건, 2005년 3,495건, 2006년 4,988건으로 매년 증가
  - 이는 최근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고 및 피해, 소비자인식 증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

4) 2004년 8.2.소비자보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위해정보 보고기관지정·운영 및 관리 규정이 개정으로 병원 39개 소방서 18총 57개에서 병원 62개 소방서 18개 총 80개로 23개 국·공립병원이 추가 지정됨

□ 이를 개별 품목별로 살펴보기 위해 위해정보건수 상위 20위 이내의 품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1>과 같음

표 2.1 연도별 품목별 소비자위해정보건수

(단위 : 건(%))

품 목	2004년	2005년	2006년
1. 식료품 및 기호품	1714(19.74)	2468(20.28%)	2947(19.87%)
2. 토지건물 및 설비	849(9.78)	1577(12.96%)	2338(15.76%)
3. 스포츠레저취미놀이용품	1401(16.13)	1983(16.29%)	2098(14.15%)
4. 차량 및 승용물	576(6.63%)	746(6.13%)	1641(11.06%)
5. 보건위생용품	769(8.86%)	725(5.96%)	1058(7.13%)
6. 가 구	598(6.89%)	841(6.91%)	970(6.54%)
7. 가 사 용 품	478(5.50%)	905(7.44%)	739(4.98%)
8. 식 생 활 기 기	297(3.42%)	391(3.21%)	472(3.18%)
9. 주 방 용 품	190(2.19%)	254(2.09%)	300(2.02%)
10. 의 료 서 비 스	22(0.25%)	27(0.22%)	286(1.93%)
11. 문 화 용 품	198(2.28%)	225(1.85%)	272(1.83%)
12. 보 건 위 생 서 비 스	166(1.91%)	301(2.47%)	239(1.61%)
13. 의 류 섬 유 신 변 용 품	111(1.28%)	163(1.34%)	223(1.50%)
14. 문 화 오 락 서 비 스	484(5.57%)	458(3.76%)	218(1.47%)
15. 농 수 축 산 용 품	122(1.40%)	135(1.11%)	136(0.92%)
16. 정 보 통 신 기 기	113(1.30%)	90(0.74%)	125(0.84%)
17. 운 수 보 관 관 리 서 비 스	59(0.68%)	85(0.70%)	125(0.84%)
18. 광 열 수 도	62(0.71%)	88(0.72%)	111(0.75%)
19. 도 서 음 반	9(0.10%)	19(0.16%)	10(0.07%)
20. 교 육 서 비 스	26(0.30%)	27(0.22%)	7(0.05%)
<b>총 계</b>	<b>8,684</b>	<b>12,170</b>	<b>14,315</b>

- 식료품 및 기호품에 관련된 위해정보건수가 가장 많고(2004년 19.7%, 2006년 19.9%) 지속적으로 높음
- 스포츠레저취미놀이용품의 경우는 식료품 및 기호품에 이어 위해정보건수가 가장 높은 품목 중 하나로, 2004년 1,401건, 2005년 1,577건, 2006년 2,38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6년은 전체 비중이 조금 감소

- 토지건물 및 설비 품목은 2004년 849건, 2005년 1,577건, 2006년 2,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 2위를 기록
- 차량 및 승용물의 경우도 2004년 576건, 2005년 746건, 2006년 1,6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6년의 경우 전체위해건수 중 11.6%를 차지
- 이 밖에 위해정보건수가 많은 품목으로는 보건위생용품, 가구, 가사용품, 식생활기기, 주방용품 등 주로 가정 내 소비 품목들이 많음
-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2004년 22건, 2005년 27건에서 2006년 286건으로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대됨
- 이외의 각종 서비스 품목이나 의류신변용품 등은 아직까지 위해정보시스템에서 주요품목으로 접수되지는 않고 있음

## 2.2 소비생활 부문별 실태와 현황

- 소비자안전의 실태와 현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를 크게 5대 소비생활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 5대 소비생활부문이란, 의(의약 및 건강)/식/주/여가/교통 부문을 의미
  -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2006년 8월~2007년 7월) 각종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안전관련 주요 이슈들과 위해정보시스템의 자료의 재분류를 통한 추이 등을 고찰

.건강·위생은 일반의약품이나 안경, 다이어트 식품, 각종 보건.건강서비스 부문을 의미

.식품은 천연식품 및 가공식품을 의미

.주생활은 가정 내 소비생활로, 각종 가전제품, 기기, 주택내부 설비 등

.여가생활은 스포츠레저용품, 놀이기구, 대형놀이시설, 공연시설 등, 여가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

.교통생활은 이동을 위한 개인승용물, 기차.버스.지하철 등의 공공교통, 각종 보행시설 등을 의미

## 2.2.1 주요 일간지 등에서 나타난 소비자안전실태

### (1) 식품 부문

- 지난 1년 동안 주요일간지에서 다루어진 식품관련 기사 및 자료는 개략적으로 다음 <표 2.2>와 같음

표 2.2 식품관련 각종 소비자안전자료

국산 축산물	○ 닭고기, 쇠고기 등 홈쇼핑 판매 '찜찜' (뉴시스 07.08.03) ○ “oo 닭고기 리콜” (문화 07.08.03)
수입 농산물	○ 사료용 수입 곡물 식용으로 둔갑 '충격' (경향 07.08.04)
수입 수산물	○ 中 수산물 10% “발암물질 오염” (세계 07.08.07) ○ 미국이어 국내서도 중국산 수산물에 항생물질 (세계 07.07.16) ○ 쏟아지는 중국산 생선...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SBS 07.07.10) ○ '기름치'를 '참치'로 둔갑, 판매업소 적발 (식약청뉴스 07.05.03) - 적발내용 및 기름치 섭취 주의사항 (식약청 07.05.03)
수입 축산물	○ 美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 (연합 07.08.02) ○ 이거 한우 맞죠? (한겨레 07.06.21) ○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산 속여 (조선 05.09.14)
즉석식품	○ 라면에서 폐유 찌꺼기 검출 (SBS 06.04.04)
냉동식품	○ 일부 냉동 갈비탕 제품서 대장균군 '독실' (식약청뉴스 07.06.27)
유제품	○ 'ooo우유'서 손가락만한 플라스틱 성분 발견 '충격' (뉴시스 07.08.08) ○ 대형 유통업체 '무늬만 냉장 판매 (KBS 07.08.02) - 유통점 온도관리에 따른 식품 내 미생물변화 모니터링 (한국소비자원 07.08.03)
빵·과자류	○ 식품첨가물 먹어? 말아? (중앙 07.07.13) ○ 양심 불량 상혼에는 유통 기한이 없다 (소년한국 07.06.24)
각종 음료	○ '녹차에서 농약 검출...' 보도관련 설명 (식약청뉴스 07.08.11) - 녹차잔류농약검사결과 (식약청 07.08.10) ○ 당신이 먹는 '생수'에도 환경호르몬이... (조선 07.06.01) - 먹는 샘물 안전성 양호하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소비자원 02.2.2) ○ 어린이용 음료는 '설탕 덩어리'? (SBS 05.12.20)

□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입농수축산물과 관련된 안전불안감

- 사료용 곡물이 식용으로 둔갑하거나 중국산 수입생선 등의 항생물질,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우려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함
- 기사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역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농수축산물과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오인 문제 등이주로 다루어짐
- FTA등으로 인해 수입식품이 우리 안방을 더 깊게 차지하게 될 경우 이는 식품관련 소비자안전의 핵심이슈로 더욱 더 부각될 예정

□ 또한 국산농수축산물 역시 품질이나 표시 등에 대한 안전불안감이 상존

- 최근 식품구매도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으로 확대되면서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
- 이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 및 판매자가 제공한 품질표시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
- 그러나 홈쇼핑으로 구매한 닭고기, 꽃게 등의 젓갈류, 반찬 등이 소비자의 안전 불안감을 일으킴
- 이의 결과 닭고기 리콜 등의 사례도 등장

□ 이외로는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이 문제로 등장

- 빵.과자류의 식품첨가물이나 각종 음료의 지나친 당분류 첨가가 상시 이슈로 제시
- 또한 환경호르몬 등이 포함된 식품포장재나 플라스틱 용기도 문제
- 특히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나 안전한 유통 상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나타남

(2) 건강·위생 부문

- 지난 1년 동안 주요일간지에서 다루어진 건강 및 의약, 위생 관련 기사 및 자료는 개략적으로 다음 <표 2.3>과 같음

표 2.3 건강·위생 관련 각종 소비자안전자료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방전없는 살빼기약 인터넷 불법거래 기승, 항정신성 식욕억제제 등... (경향 07.07.09)</li> <li>○ 처방 없는 어린이용 감기약 과다복용 뎀 목숨 잃을수도</li> <li>○ 소보원 “어린이용 시럽형 감기약에 유해물질 - 영·유아(Infant) 시럽형 일반감기약 안전실태 조사</li> </ul>
다이어트용 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취급업소 지도·점검 실시 (식약청뉴스 07.03.06)</li> </ul>
건강(보조)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보건원 발표 “종합비타민 남용 肝손상 부를수도”</li> <li>○ 공정위, 건강보조식품 과장광고 제재</li> <li>○ ‘항암 소문’ 아가리쿠스 되레 암 유발</li> </ul>
위생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 물수건·물티슈 위생상태 엉망 (국정홍보처 알림마당 뉴스 06.08) - 업소용 위생용품 안전성 실태조사 (보고서 원문 한국소비자원)</li> </ul>
안경/렌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택트렌즈 착용자의 67.4% 부작용 경험</li> </ul>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민 10명중 1명꼴 화장품 부작용 고생"</li> <li>○ 피부관리실·병원·한의원 등 202곳 ‘발암화장품’ 유통</li> <li>○ "향수·매니큐어서 유해물질 검출"</li> </ul>
피부미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용실에서 박피시술·피어싱 평생 후회할 수도</li> </ul>
비만관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남서 살빼기 불법시술 13곳 적발 (연합뉴스 06.08)</li> <li>○ 살빼려다 급성 녹내장 '아찔한 비만 관리' (SBS 07.01.18)</li> </ul>

- 의약품과 관련되어서는 처방전없는 어린이용 감기약과 다이어트약품의 부작용이 두드러진 이슈가 부각
  -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소비자가 오용·남용되기 쉬운 부분이 있음
  - 특히 소비자가 흔히 구입하는 감기약, 드링크류의 안전성이 문제
  -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품 등의 판매가 급성장함으로써 부적합한 다이어트 약품의 유통 및 남용이 신종 이슈로 등장

- 건강 및 다이어트와 관련된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문제가 심각
  -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우려는 상시적 문제
  - 특히 최근 비만.다이어트 관련 서비스나 피부미용서비스 등의 불법기술 등으로 인한 소비자안전에의 위협이 각종 사회문제화 됨
- 이밖에 렌즈나 위생용품 등에 관련해서는 부작용이나 오염의 위험이 부각

(3) 주생활 부문

- 지난 1년 동안 주요일간지에서 다루어진 주생활 및 가정 내 생활 관련 소비자안전 기사 및 자료는 개략적으로 다음 <표 2.4>과 같음

표 2.4 주생활 관련 각종 소비자안전자료

가전제품	○ 중고가전제품, 안심하고 사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 ○ 가정용 전기제품 안전수칙 거의 지키지 않아
취사기기	○ '07 상반기 중 가스사고 전년대비 13.7% 증가 (산자부뉴스 07.07.24) ○ 밥솥 사용 전 증기배출구멍 꼭 확인을...(산자부뉴스 07.02.01)
스팀청소기	○ 스팀청소기 시험 결과 일부 제품 구조개선 등 보완 필요
에어컨/ 공기청정기	○ 에어컨에서 기회감염균 및 알레르기 유발균 다량 검출 (소비자원 05.07.20)
가정 내	○ '어린이 외상 71% 가정에서 발생' (YTN 07.08.02) - 어린이 손상 71.2%가 가정에서 발생, 주요 입원 원인은 추락 (질병관리본부 요약 07.08.03) ○ 아파트 욕실 미끄럼사고는 입주자 탓? (오마이뉴스 06.09.20)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 내에서 어린이의 미끄럼이나 추락, 아파트 욕실의 미끄럼 사고와 같은 부문
  - 이는 소비자의 부주의도 있지만, 설비자체의 부적합성이 문제
  - 제도개선을 통해서 주택 내 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



- 그 외 중고가전제품이나 취사기기, 스팀청소기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이 주생활내의 소비자이슈로 등장

(4) 여가 부문

- 여가생활 관련 소비자안전 기사 및 자료는 다음 <표 2.5>와 같음
  - 어린이놀이용품이나 대형놀이기구, 공연시설, 목욕시설 등 다양한 여가 소비생활에서의 안전우려가 이슈로 등장

표 2.5 여가관련 각종 소비자안전 기사

어린이놀이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가철 맞아 장난감용 꽃불류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 요망 (한국소비자원 07.08.)</li> <li>○ 중국산 장난감 83종 ‘소비자 주의보’ (국정브리핑 07.08)</li> </ul>
레저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니바이크 사고 중 40%, 원인은 ‘제품 불량’ (한국소비자원 07.07)</li> <li>○ 봄철, 인라인스케이트 안전사고 조심하세요!</li> <li>○ 레저 스포츠용 보호장구 문제 많다</li> </ul>
공공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터는 사고터? (중앙 조인스 06.07)</li> <li>- 서울시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절반이 위험</li> </ul>
대형놀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원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시급 (연합 07.08.17)</li> </ul>
공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야영화관 비상구는 없다! (YTN 07.08)</li> <li>○ 대학로 소극장 안전 문제 심각</li> </ul>
목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찜질방 대의류 위생상태 불량 (한국소비자원 06.7)</li> <li>○ 찜질방.사우나 안전사각지대</li> </ul>
휴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이용업소 38% 소방시설 미비 (조선 07.04)</li> <li>○ 노래방-고시원 등 절반 소방시설 미비 (동아 07.03)</li> </ul>
쇼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화점 등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위험 천만’</li> </ul>
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구장 ‘과울볼’ 조심 (MBC 07.08)</li> </ul>

(5) 교통 부문

- 교통.이동생활 관련 소비자안전 기사 및 자료는 다음 <표 2.6>과 같음
-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소비자안전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
  - 공공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문화나 새로 등장한 무빙워크의 안전이 이슈
  - 승강기의 경우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심리적 불안과 위험을 다룸
- 대중교통의 경우는 택시 졸음운전이나 버스의 난폭운전, 기차 등의 사고에 대해서 다루어짐
  - 지하철의 경우는 지하철역의 공기오염에 대한 부분이 부각

표 2.6 교통관련 각종 소비자안전 기사

오토바이	○ "오토바이 10대중 7대 무보험 운행"<소비자원> (연합 07.04) ○ 오토바이 헬멧 안쓰면 사망률 45% 높아져 (쿠키 07.04)
보행시설 (횡단보도/지하도)	○ 보행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울경제 07.08) ○ 아파트 앞길 썩썩... "애들이 불안해요" (한국 07.08)
택시	○ 택시 뒷자리, 뭘 수 없는 '안전벨트' (KBS 07.07) ○ 택시 운전자 10명 중 8명 "졸음 운전으로 위험 느낀다" (세계 07.01)
시내버스	○ 양산지역 시내버스 33%가 '난폭운전 및 불친절' (뉴스스 07.03)
지하철	○ "돈 안준다" 선로로 밀쳐... 지하철 안전 무방비 (SBS 07.05) ○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석면지도 작성" (SBS 07.03) ○ [blog+] 공포의 지하철 장애인 리프트 (일간스포츠 07.01)
기차	○ 시속 300km 'KTX', 잦은 사고 아찔! (YTN 테마뉴스 2007.)
항공기	○ 당신이 선택한 항공기의 안전도는? (연합 07.08)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한줄 타기, 되레 안전사고 부른다" (전자 07.05)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사고' 엇갈린 판결 (문화 07.05) ○ 무빙워크 조심! 대구서 여중생 중상
승강기	○ 승강기에 갇힌 초등학생 '공포의 4시간' (SBS 07.06) ○ 사람 갇힌 승강기, 몇 층에 섰는지 모른다? (SBS 07.06) ○ 부산 승강기 사고 가파른 증가세 (부산일보 07.08) ○ 승강기 결함 알고도 방치뎀 형사처벌 (국정브리핑 07.06) ○ [승강기안전]사고 최대 피해자는 13세이하 어린이

## 2.2.2 위해정보건수를 통한 부문별 소비자안전 현황

- 위해정보시스템의 위해정보건수를 소비생활부문별로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7>과 같음<sup>5)</sup>

표 2.7 연도별 주요 소비부문별 소비자위해정보건수

부 문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식 품 부 문	1,529	2,209	2,403
의 약 . 건 강 부 문	983	1,095	1,696
주 생 활 부 문	2,416	3,864	4,357
여 가 생 활 부 문	2,021	2,627	2,457
교 통 소 비 생 활 부 문	424	665	1,662
계(A)	7,373	10,460	12,575
전 체 위 해 정 보 건 수 (B)	8,684	12,170	16,742
주요부문의 비중(A/B)	84.9%	85.9%	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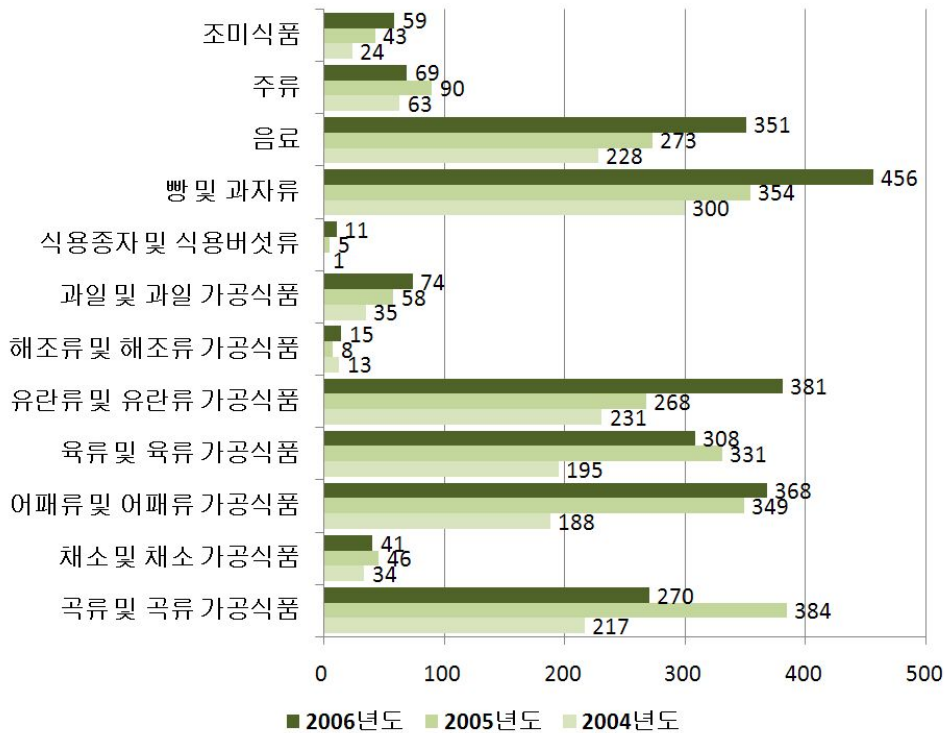
- 주생활(가정 내 소비생활)의 위해건수가 가장 많으며, 특히 2006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 113% 증가 (3,864건 -> 4,357건)
- 여가생활 부문의 경우 2006년 위해건수가 2,457건으로 나타났으며, 식품부문의 위해건수가 2,403건으로 근소한 차이로 3순위
- 건강.위생 부문의 경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꾸준히 위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1,696건으로 4순위로 나타남
- 2004년 대비 2005년의 위해건수가 가장 급증한 부문은 교통소비생활 부문 (약 392% 증가)

5) 이를 위해 위해정보시스템의 140여개 세부 품목들을 소비생활영역에 따라 5대 부문으로 재분류. 위해정보시스템의 140여개 세부 품목은 2006년 소비자위해정보백서(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자료를 참고

□ 식품 부문의 경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1>)

- 전반적으로 곡류/곡류 가공식품,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육류/육류가공식품, 유란류/유란류 가공식품, 빵.과자류, 음료 위해건수가 많은 편
- 빵/과자류에 의한 위해건수가 가장 많았고(2006년 456건), 두 번째로 유란류 및 유란류 가공식품이 많았음(2006년 381건)
-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위해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유란류 및 유란류 가공식품(전년대비 약 142% 증가)이고, 반면 곡류 및 곡류 가공식품의 경우는 2006년 들어 전년에 비해 114건 감소(전년대비 약 142%감소)

그림 2.1 식품 부문 위해정보건수 추이



□ 건강.위생 분야의 경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2.8>)

- 기호품의 위해건수가 지난 3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가장 많은 위해건수(2006년 352건)를 기록함<sup>6)</sup>
- 두 번째로 의약품에 의한 위해건수가 많았는데, 2005년에는 96건(2004년 대비 40%감소)이던 것이 2006년 들어 다시 350건(전년대비 약 364%증가)으로 크게 증가
- 다음으로 안경 및 의료용구(2006년 242건), 일반화장품(2006년 222건), 건강식품(2006년 192건) 순으로 나타남

표 2.8 의약.건강부문 위해정보건수 추이

의약.건강	(단위 건)		
	2004년	2005년	2006년
의약품	160	96	350
안경 및 의료용구	160	274	242
일반화장품	209	119	222
기타화장품	90	79	88
이.미용기구	59	67	58
기타보건위생용품	91	90	98
이.미용서비스	27	108	85
위생서비스	2	3	9
건강식품	132	121	192
기호품(기타식품 및 기호품)	53	138	352
<b>계</b>	<b>983</b>	<b>1,095</b>	<b>1,695</b>

6) 기호품의 위해빈도는 「2006 소비자위해정보백서(한국소비자원)」의 기타식품 및 기호품의 위해빈도로 기호품으로 인한 위해빈도에 기타식품으로 인한 위해빈도가 더해져 실제 기호품으로 인한 위해빈도보다 클 수 있음

□ 주생활(가정 내 소비생활) 관련 부문 (<표 2.9>)

- 전반적으로 가구, 건축자재, 가사용품, 식생활기기 순으로 위해건수가 많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06년 들어 건축자재로 인한 위해건수의 증가가 두드러짐(전년대비 약 281%증가)

표 2.9 주생활 부문 위해정보건수 추이

주생활(가정 내 소비생활)	2004년	2005년	2006년
식생활기기	297	391	472
주방용품	190	254	300
가구	598	841	970
가사용품	478	906	739
음향기기	20	117	21
영상기기	75	17	68
주택 및 건물	361	747	410
건축자재	191	341	958
공조 냉난방시스템설비	0	3	3
보일러 및 온수기설비	27	17	21
위생설비	137	199	343
옥외장비품설비	38	19	41
가스 및 급배수설비	4	12	11
계	2416	3864	4357

□ 여가 관련 부문 (<표 2.10>)

- 스포츠레저 용품이 지난 3년간 꾸준히 해당부문에 가장 많은 위해건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2006년 1013건)
- 다음으로 위해건수가 많은 품목은 놀이.게임기구(2006년 448건), 완구.인형(2006년 357건)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품목 모두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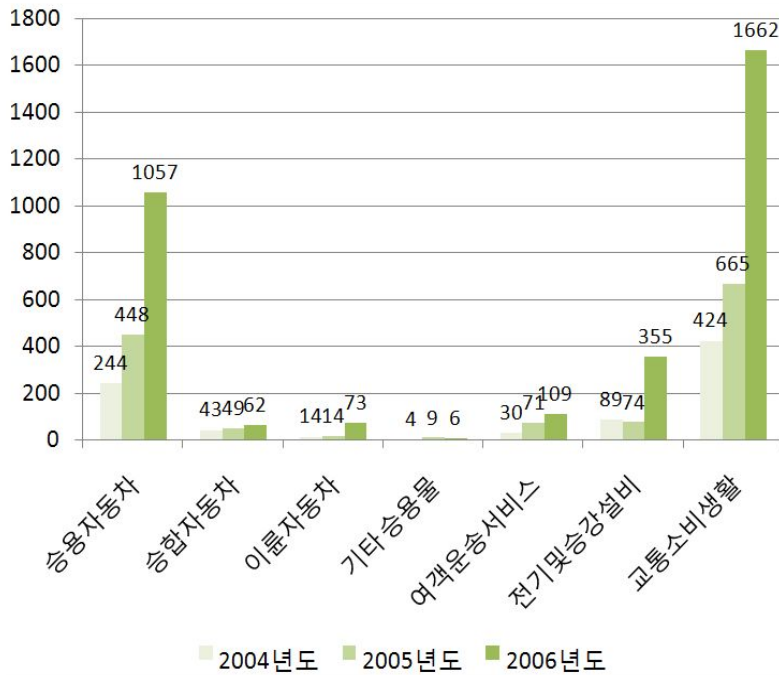
표 2.10 여가생활 부문 위해정보건수 추이

여가생활	2004년	2005년	2006년
스포츠레저기구 용품	755	1214	1013
취미용품	130	68	208
완구 인형	194	238	357
유아용승용물	45	59	72
놀이.게임기구	277	404	448
여행	5	9	2
숙박시설	4	9	3
관람.감상	2	6	4
기타문화 오락서비스	473	430	208
목욕서비스	136	190	142
계	983	1,095	1,695

□ 교통 관련 부문 (<그림 2.2>)

- 승용자동차의 위해건수가 지난 3년 동안 해당부문에 가장 많았고(2006년 1057건), 2006년 들어 위해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약235%증가)
- 다음으로 전기 및 승강설비의 위해건수가 많이 나타났으며(2006년 355건), 2006년 들어 위해건수가 크게 증가(전년 대비 약 480%증가)
- 교통생활 부문 대부분의 품목에서 위해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특징적으로 이륜자동차의 2006년 위해건수가 73건으로 승합자동차보다 빈번 발생

그림 2.2 교통부문 위해정보건수 추이











**소비자안전  
체감지수**

영어로는 CSSI (Consumer Safety Seniment Index)로,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 평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진단하는 도구

### Ⅲ.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이론적 틀과 산출모형

#### 3.1 선행연구 고찰

-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로 양분되며, 다음에서 이를 간략히 요약해 제시
  - 첫째는 식품안전체감지수, 원자력안전체감지수, 승강기안전체감지수 등,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모형에 참고가 되었던 관련 연구에 관한 것
  - 둘째는 2005년부터 시작된 본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기초 선행연구에 관한 것
  - 이들 각 연구들을 2007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모형에 참고가 되는 지표 구성 및 지수 산출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안전체감지수 관련 선행 연구

##### 가. 식품안전체감지수

- 식품안전체감지수란, 각 식품 및 식품군별, 식품사고별 국민들의 안전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인지도, 인체위해체감도, 현재 및 향후 섭취빈도, 사고인지 여부 및 사고 전후의 섭취빈도를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 (정기혜, 2004)

- 지표 구성을 보면, 측정영역은 크게 식품.식품군 및 식품사고로 이분되어 각각 4개/3개의 평가항목이 지표로 구성됨 (<표 2-1>)
- 지수 산출방식은 각 평가항목에 평가항목별 가중치(각 지표별 상관성)를 산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감안전이 높음
- 측정대상 식품 및 식품군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식품공전의 20대 분류를 기준으로 100대 국민다소비 식품 중 상위 순위의 30개 품목,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실적에 제시된 다 생산식품 30개 품목, 식약청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선정한 특별관리식품 20개 품목, 소비자보호원에 불만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을 일차로 선정
  - 우선순위가 되는 60개 품목을 최종적으로 선정

#### 나. 원자력안전체감지수

- 원자력안전체감지수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정도를 측정하고 그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주민과 발전소 직원 간 의사 교환을 통한 신뢰 형성의 기회를 만들고, 객관적 안전성(발전소 직원이 평가하는 원자력안전성)과 주관적 안전성(주민들이 느끼는 원자력안전성)의 비교를 통해 향후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신뢰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개발(최인철·정운형, 2004)
- 지표 구성을 보면 측정영역은 크게 4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신뢰, 발전소 위험대응역량, 주민응급대응역량이며, 각 영역별 3개 문항으로 구성
- 지수 산출방식은 4개의 지표영역을 동일한 가중치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감안전이 높으며, 50점이면 위험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임
- 측정품목은 원자력 1가지

다. 승강기안전체감지수

- 승강기안전체감지수란 현행 승강기 관련 제도, 의식 및 관행을 총 망라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승강기 사고의 안전체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의 조사를 통해 이를 지수화한 것(황정선, 2005)
  - 지표 구성을 보면 측정영역은 크게 6대 분야(승강기사고 안전, 사회적 안전체감, 안전관리 단계별 만족, 승강기 이용 안전, 안전관리제도 평가, 이용자 대응행동) 1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 지수 산출방식은 6개의 지표영역이 전반적 승강기안전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중치로 하여 합산하며, 역시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
  - 측정대상은 승강기 1가지

표 3.1 안전체감지수 관련 선행의 지표 내용 종합

구분	지표	
	하위 영역	내용
식품안전 체감지수	식품 및 식품군	절대안전체감도, 현재 섭취빈도, 향후 섭취빈도, 식품 섭취 결정요인
	식품사고	사고인지도, 사고전후 섭취빈도, 인체위해상대안전체감도 (흡연피해를 100으로 하였을 때)
원자력안전 체감지수	절대 안전체감	커뮤니케이션, 신뢰, 발전소 위험대응역량, 응급대응 역량의 4지표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체감 절대값
	상대 안전체감	주민들의 체감안전과 발전소직원들의 체감안전 비교
승강기안전 체감지수		승강기사고안전도, 사회적 안전체감도, 안전관리 단계별만족도, 승강기 이용안전도, 안전관리제도 인식도, 이용자대응행동

## (2)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관련 선행 연구

-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지표구성은 2005년, 2006년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각 연구에 대해 측정 부문 및 품목선정, 지표 구성 및 지수 산출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가. 2005년 기초 연구

#### □ 측정 부문 및 품목 선정

-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시스템의 분류체계에 포함된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2002~2004) 고위험 품목과 안전보고서 등에서 이슈가 된 위해다발 품목을 포함하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 다소비 품목을 고려
- 재정경제부 담당부서, 최근 지수를 산출한 전문가와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지수 품목 및 부문을 조정
- 최종 7대 부문 70개 품목을 선정

#### □ 지표의 구성

-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지표 구성을 위해불안감과 실제위해경험이라는 양대 측면에서 접근
- 여기서 위해불안감은 품목별로 소비자가 느끼는 위해발생가능성인식으로 측정하고, 실제위해경험은 지난 1년간 위해를 경험한 빈도와 그로 인한 병원치료여부로 측정 (<표 3-2>)

표 3-2 2005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지표 구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지표내용 (질문항목)
위해 불안감	위해발생 가능성	- 각 품목의 위해발생가능성 인식 . 7점 리커트 척도
	안전 중요도 인식	- 품목군별, 부분명 안전중요도 인식 . 부문군내에서 상대적 우선순위를 평가
실제 위해 경험	위해경험 정도	- 지난 1년간 나와 가족의 실제 위해경험 빈도
	위해심각성 정도	- 위해를 입었을 경우 위해의 수준 . 자가치료, 병원치료

자료 : 재정경제부.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 지수의 산출

- 각 측정영역별로 가중치를 산정하여 합산하여 100점 만점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위해불안감지수와 위해경험지수는 각각 산출될 수 있었으나, 종합적인 안전체감지수가 산출되지 못함
- 이는 실제위해경험이 너무 적어 위해불안감지수와 위해경험지수를 합산했을 경우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값이 시장에서의 소비자안전체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것이 소비자인식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지표로 적절치 않다는 점 때문

나. 2006년 연구

□ 측정 부문 및 품목 선정

- 소비자안전체감 구성 지표의 정교화를 위해 품목을 축소
- 품목의 축소는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워크숍 및 내부전문가 협의회, 안전전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서 통합·조정
- 최종 5대 부문 39개 품목을 선정 (<표 3.3.>)



그림 3.1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측정품목 선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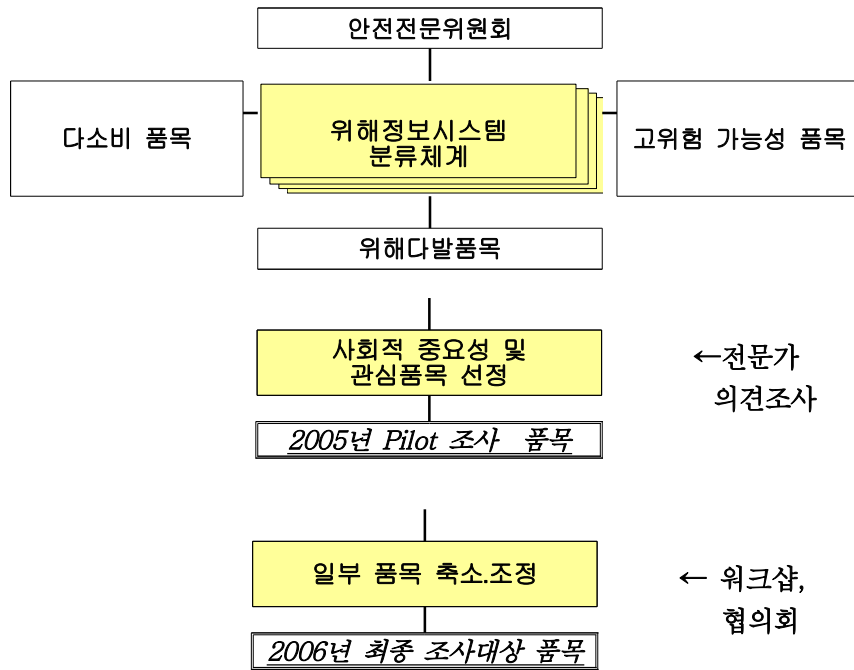


표 3.3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측정 품목

부문 (5)	품목군 (14)	품목 (39)
식품	농·수·축 산물	1. 국산농산물(곡류, 채소, 과일 등) 2. 국산수산물(어류, 패류, 해조류 등) 3. 국산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등)
	농수산물 .육가공 품	4. 수입농산물(각종 수입곡물, 채소) 5. 각종 수입수산물(각종 수입어류, 해조류 등) 6. 각종 수입축산물(각종 냉동 수입축산물 등) 7. 건조가공식품(생·선식 등) 8. 절임가공식품(김치류, 장아찌류, 젓갈류 등) 9. 즉석식품(라면, 햄버거용 고기, 튀김용 새우 등) 10. 통조림·병조림(파일, 생선, 조개 통·병조림 등) 11. 냉동·포장식품(냉동만두, 냉동치킨, 냉동피자 등) 12. 훈연가공품(햄, 베이컨, 소시지 등)
	기타	13. 우유 및 유가공품 (우유, 분유, 치즈 등)

	식품	14. 빵·과자류 (식빵, 스낵, 비스킷 등)
		15. 각종 음료(청량음료, 과실음료, 스포츠음료 등)
의약 보건 위생 용품	의약품	16. 일반의약품(감기용 드링크, 진통제, 해열제등) 17. 외용의약품(연고, 파스, 과산화수소 등)
	렌즈 및 의료용구	18. 시력용 렌즈 (소프트, 하드, 일회용 렌즈) 19. 건강보조기구(전기마사지기, 자기매트, 뜸질기등)
	위생용품 화장품	20. 위생제품(각종 세제, 물티슈, 방충제 등) 21. 화장품(기초, 색조, 두발 화장품)
주거 각종 시설물	개인 분야	22. 개인주거공간(욕실, 계단, 베란다 등) 23. 개인주거설비(전기, 가스, 보일러 설비 등)
	공공 분야	24. 공공보행시설(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 25. 공공공원시설(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등) 26. 각종 놀이시설(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각종 랜드) 27. 기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병원, 터미널 등)
교통· 운송 장비	개인차량	28. 개인용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등)
	대중교통	29. 택시 30. 시내버스 31. 기차·지하철 32. 항공
	운송시설	33.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가전제품 ·각종 생활여가 용품	가전제품	34. 생활가전(세탁기, 청소기, 다리미 등) 35. 주방가전(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오븐 등) 36. 개인통신기기(휴대폰 단말기 등)
	각종 용품	37. 스포츠·레저용품(운동기구, 운동장비, 야외용품 등) 38. 어린이 완구 (장난감, 인형, 각종 완구세트 등)
	가구	39. 가구(침실가구, 거실가구, 식탁가구 등)

□ 지표의 구성

- 2005년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여 지표 구성을 재검토
- 안전체감 및 위해인식관련 연구(P. Sandman, 1987 등) 재검토한 결과 체감인식의 중요 지표 2가지로 ‘위해발생가능성’과 ‘위해심각성’을 선정
- 그리고 이에 덧붙여 위해통제가능성(대처가능성)을 포함
- 이는 소비자위해 인식의 중요 변수 중 하나가 위해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성여부, 즉, 소비자들은 위해가 자신에게 익숙하고 통제가능하다고 느낄 때 위해체감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관련 연구결과(Slovic, 1999 등)를 반영(<표 3.4>)

표 3-4 2006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지표 구성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지표내용 (질문항목)
위해 빈도	위해 발생 불안감	- 물건의 구입이나 사용 시 각 품목의 위해발생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 39개 품목별로 측정 - 5점 리커트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위해발생불안감이 높다)
위해 정도	위해 심각성	- 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단기.장기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라고 인식되는지 - 5대 부문별로 측정 - 5점 리커트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심각성인식이 높다)
위해 통제	위해 예방 가능성	- 소비자 자신의 현명한 선택이나 사용상 주의 노력 등으로 이러한 위해들을 얼마나 피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39개 품목별로 측정 - 5점 리커트 척도 (5점에 가까울수록 위해예방이 어렵다)

자료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 지수의 산출

- 앞서의 지표구성에 따라 지수의 산출은 측정영역별로 가중치를 산정하여 합산하여 100점 만점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평가 (<표 3.5>)

- 그러나 위해통제가능성 변수는 안전체감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위해발생불안감이나 위해심각성 변수에 비해 너무 적어 이를 별도의 주요지표로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 또한 측정지표의 구성상 위해체감지수로 명명해야 더 적절한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해한 것으로, 안전체감지수에 걸맞게 지표의 구성 및 산출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를 발생

표 3.5 2006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 구조방정식

지수 대상	산출구조 방정식
39개 품목	위해발생불안감과 위해통제가능성의 함수 $= a(\text{위해발생불안감}) + b(\text{위해예방})$ * a,b는 계수(지표 가중치) - 회귀방정식 모형 * 위해발생불안감은 설문에서 약간 불안한 편, 매우 불안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중 * 위해통제가능성은 설문에서 예방하기 어려움, 예방 불가능으로 응답한 비중
5대 부문	위해발생불안감, 위해통제가능성, 위해심각성의 함수 $= \sum a(\text{위해발생불안감}) + \sum b(\text{위해통제가능성}) + c(\text{위해심각성})$ * a,b,c는 계수(부문별 가중치) - 회귀방정식 모형 * 위해심각성은 설문에서 위해로 인한 단기.장기적 신체 손상에 대해 약간 심각, 매우 심각이라 응답한 비중
종합	$= \sum a(\text{식품}) + b(\text{의약 및 보건위생용품}) + c(\text{주거 및 각종시설물}) + d(\text{교통 및 운송}) + e(\text{가전제품 및 각종 생활여가용품})$ * a,b,c,d,e는 가중치(부문별 중요도) * 1순위: 5점, 2순위: 4점, 3순위: 3점, 4순위: 2점, 5순위: 1점

### 3.2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산출체계

#### (1)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지표 구성

-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산출은 2005년, 2006년 연구를 바탕으로 향수 지속적으로 지수를 산출할 근본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 따라서 지표구성을 2006년을 기준으로 하되, 한계점으로 지적된 위해통제 가능성지표를 지표구성에서 제외하고, 위해발생불안감과 위해심각성 2대 지표로 단순화(<표 3.6>)
  - 대신 위해발생불안감 지표와 위해심각성 지표는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을 보완·강화
  - 즉, 위해발생불안감은 측정대상품목을 증대시켜 각 부문별로 중요한 소비 품목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도록 하고, 위해심각성의 경우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위해'에서 떠올리게 되는 각종 위해요인 중심으로 평가

표 3.6 2007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지표 구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지표내용 (질문항목)
위해빈도	품목별 위해불안감	- 물건의 구입이나 사용 시 각 품목의 위해발생가능성이 얼마나 불안한지 - 5대 부문 62개 품목(표 2.6참조)별로 측정 - 4점 리커트 척도 <sup>7)</sup>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 안전체감지수에 걸맞도록 위해발생불안감의 반대값을 활용
위해정도	위해요인심각성	- 일반적으로 소비자 위해요인으로 널리 알려진 요인들이 본인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되는 지 - 5대 부문 40개 요인(표 2.7참조)별로 측정 - 5점 리커트 척도 (매우 심각 - 전혀 심각하지 않음으로, 5점이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다) ※ 안전체감지수에 걸맞도록 위해심각성의 반대값을 활용

7)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것은 '보통' '그저 그렇다'에 응답하는 비율이 집중되는 경향(중심화 경향)을

(2)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지수산출방식

□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산출은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로는 소비자 안전 5대 부문별로 산출되며, 2단계로는 이를 종합하여 종합적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산출 (<표 3.7>)

- 소비자안전 5대 부문이란 식품부분, 건강·위생부문, 주생활부문, 교통부문, 여가부문으로 2006년 연구와 맥을 같이하되, 최근의 소비자이슈나 관심을 반영하여 부문 명명을 새롭게 고침

표 3.7 2007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 구조 방정식

지수 대상		산출구조 방정식
5대 부문	식품 안전 체감 지수	위해발생불안감, 위해심각성의 함수 $= (50\%로\ 환산된\ -위해발생불안감^8) + (50\%로\ 환산된\ -위해심각성)$ $= (\sum 14개\ 품목별\ -위해발생불안감) + (\sum 8개\ 요인별\ -위해심각성)$ $= \{ \sum a(국산농산물) + b(국산수산물) + c(수입농산물) + d(즉석식품) + e(빵과자) + \dots \} + \{ \sum aa(잔류농약) + bb(GMO) + cc(항생제) + \dots \}$ * a,b,c,d,e,aa,bb,cc는 가중치 계수 (품목별, 요인별 중요도) * 가중치 산정은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품목별 혹은 각 요인별 안전 평가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당해 회귀분석의 베타 값을 이용하여 산출
	건강·위생	위와 유사 (12개 품목, 8개 요인)
	주거	위와 유사 (12개 품목, 8개 요인)
	교통	위와 유사 (12개 품목, 8개 요인)
	여가	위와 유사 (12개 품목, 8개 요인)
종합	$= \sum a(식품) + b(건강·위생) + c(주거) + d(교통) + e(여가)$ * a,b,c,d,e는 가중치 계수 (부문별 중요도) * 가중치 산정은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 이번에는 소비자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부문별 안전 평가값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당해 회귀분석의 베타 값을 이용하여 산출	

방지하기 위한 것.

8) 여기서 '100%로 환산'이라는 뜻은 해당비율을 값으로 활용했다는 뜻이며, '-'의 뜻은 본 연구가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이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값을 정리하기 위해 위해발생불안감의 반대인 안전감, 위해심각성의 반대인 심각하지 않음으로 부호값을 바꾸었다는 뜻.

- 각 부문별 안전체감지수는 각각의 생활 영역 하에서의 품목별 위해발생 불안감 및 위해요인심각성을 핵심 축으로 하여, 해당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여 산출
- 종합적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역시 5대 부문별 안전체감지수에 해당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산출

**(3)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측정 품목 및 위해요인**

□ 측정대상은 5대 생활영역별로 62개 품목이 선정됨 (<표 3.8>)

- 이의 기준은 2006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006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 등에서 새롭게 등장한 품목이나 최근 신문 등에서 소비자안전이슈가 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보강

**표 3.8 2007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측정 품목**

부문	품목 (62)	
식품 (14)	1. 국산농산물(곡류, 채소, 과일 등) 2. 국산수산물(활어, 조개, 해조류 등) 3. 국산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등)	
	4. 수입농산물(각종 수입곡물, 채소, 과일) 5. 수입수산물(각종 수입어류, 해조류 등) 6. 수입축산물(각종 냉동 수입축산물 등)	
	7. 수산건어물(오징어, 북어포 등) 8. 절임식품(김치류, 장아찌류, 젓갈류 등) 9. 즉석식품(라면, 스프, 3분 카레 등) 10. 훈연식품(햄, 베이컨, 소시지 등) 11. 냉동식품(냉동만두, 냉동치킨, 냉동피자 등)	
	12. 유제품 (우유, 분유, 치즈 등)	
	13. 빵.과자류 (식빵, 스낵, 비스킷 등)	
	14. 음료(청량, 과실, 스포츠음료 등)	
	건강 위생 부문 (12)	15. 처방전 없이 사먹는 일반의약품(감기용 드링크, 진통제, 해열제등) 16. 다이어트용 약품 17. 건강(보조) 식품

	18. 건강기구 (러닝머신/사이클) 19. 건강보조기구(전기마사지기, 자기매트, 뜸질기등)
	20. 위생용품(물티슈, 기저귀 등) 21. 위생세제(비누, 샴푸, 치약 등) 22. 화장품(기초, 색조, 두발 화장품)
	23. 시력용 렌즈
	24. 피부미용서비스 (피부, 두발) 25. 비만관리서비스 (다이어트)
	26. 기호품 (흡연, 음주)
주거 부문 (12)	27. 가전제품 (세탁기, TV 등) 28. 취사기기 (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등) 29. 스팀청소기, 스팀다리미 30. 에어컨, 공기청정기 31. 전기 및 가스 히터, 온풍기 32. 조리기구 (후라이팬, 주서기 등) 33. 플라스틱 용기 (접시, 그릇 등)
	34. 가구 (침대, 식탁, 거실) 35. 어린이용 실내 미끄럼틀, 그네
	36. 가정 내 욕실이나 베란다 37. 새집 벽지, 장판 38. 가정 내 석유, 가스 보일러
여가 부문 (12)	39. 레저용품 (등산, 낚시, 골프 등) 40. 어린이스쿠터, 놀이용품 41. 국립 및 도립공원 42. 대형놀이시설 43. 경기장 (축구, 야구, 농구 등) 44. 공공체육시설 및 놀이터
	45. 공연시설 (영화관, 연극소극장) 46. 쇼핑시설 (백화점, 할인매장) 47. 휴식시설 (노래방, DVD방) 48. 목욕시설 (찜질방, 사우나탕)
	49. 여행사를 통한 국내관광 50.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
교통 부문 (12)	51. 개인자동차 52. 오토바이 53. 택시



54. 시내버스
55. 지하철
56. 기차
57.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58. 항공기
59.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60. 거주 아파트의 승강기
61. 승강기
62. 보행시설(횡단보도, 지하도)

□ 위해요인은 5대 생활영역별로 각 8개 40개 요인이 선정됨 (<표 3.9>)

- 이의 기준은 2004~2006년 소비자안전보고서 및 소비자위해정보자료, 각종 관련 연구자료 및 기사 등을 통해 대표적인 요인을 발굴

표 3.9 2007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측정 요인

부문	요인 (40)
식품 (8)	1.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 2. GMO (유전자 재조합 식품) 3. 광우병, 조류독감 4.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5. 학교 집단급식 6. 1회용 포장용기의 유해성 (환경호르몬) 7. 식품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 8.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
건강 위생 부문 (8)	9. 효능이나 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 10.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기구 생산 11. 부적합한 수입한약재 유통 12. 무자격 피부 미용관리 13. 위생 및 미용제품의 유해화학물질 첨가 14.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 15.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제품 16. 지나친 음주나 흡연
주거 부문 (8)	17. 가전제품의 감전 및 합선에 의한 사고 18. 소비생활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 19. 용품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20.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의 폭발 위험

	21. 침구류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 감염 22. 조리 등에서 손을 베이거나 화상 사고 23. 생활용품 사용 부주의로 다치는 사고 24. 노인이나 자녀들의 가정 내 안전사고
여가 부문 (8)	25. 스포츠용품 결함에 의한 찰과상 및 부상 26.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오염 27.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 28. 국내외 여행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 29. 여가시설 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증 30. 공공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1. 공공시설 이용중의 관람객 안전사고 32. 여가서비스 이용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교통 부문 (8)	33. 자동차 정비 예방 미비로 인한 사고 34. 난폭운전(급제동, 과속) 등에 의한 사고 35.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36. 자동차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 37. 잘못 설계된 도로구조에 의한 사고 38. 관리 잘못에 의한 승강기 사고 39. 업무 과중에 따른 졸음 운전사고 40. 지하철 역사내의 공기오염

### 3.3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이러한 변수를 조절함으로써 소비자안전체감을 어떻게 하면 보다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제안을 하기 위함
  - 이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인구통계적 변수(지역, 성, 연령, 교육, 직업, 소득, 결혼유무, 가족형태, 자녀나이 등)와 소비자안전의식(정부및 기업의 안전정책신뢰, 안전커뮤니케이션), 소비자안전확보행동(정보추구행동, 안전확보행동)변수 등을 선정 (<표 3.10>)

표 3.10 2007년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안전의식, 안전행동 측정 변수

구 분		문 항		
소비자 안전 의식	안전 신뢰	정부정책	식 품	B3-5. 식품관련 법제의 효과성 B3-6. 식품 범주의 숨방망이 처벌
			건강. 위생	C3-4. 건강 법제 관리의 효과성 C3-5. 건강 위해정보의 체계적 관리 제공
			주생활	D3-4. 가정내 소비생활 안전제도 운영 D3-5. 가정내 위해정보의 체계적 관리 제공
			여가생활	E3-4. 여가소비생활 전반 관리 E3-5. 여가소비생활 위해정보의 적시 제공
			교통생활	F3-4. 교통 관련 법정책 관리 F3-5.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 노력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상품안전관리	식 품	B3-1~4. 농민, 식품가공/유통업자, 급식업체의 안전성
			건강. 위생	C3-1. 건강식품업자들의 소비자안전 중시 C3-2. 유통업자의 소비자 안전 중시 C3-3. 건강관련 서비스업체 안전중시
			주생활	D3-1. 제조업자 안전 제품 생산 노력 D3-2. 유통업자의 소비자 안전 노력 D3-3. 주생활 업체의 사고정보의 다양한 제공
			여가생활	E3-1. 놀이시설 운영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E3-2. 여가관련 업체들의 안전 무관심 E3-3. 여행업체들의 충분한 안전정보 제공
			교통생활	F3-1. 자동차 제조업자의 안전 제품 생산 F3-2. 운수업자의 안전중시 및 사고예방 노력 F3-3. 관련업체의 안전사고정보 제공
	A2.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예방의식			
	안전 커뮤니케이 션	A4. 소비자위해정보의 국가차원 체계적 수집, 분석과 적절한 제공		
		A6.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견이 충분히 정부, 기업으로 전달		
	소비자 안전 확보 행동	안전 정보 보유	식 품	B3-7. 식품 전반의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보유
건강. 위생			C3-7.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정보 부족	
주생활			D3-6. 가정내 안전사고 정보와 지식 보유	
여가생활			E3-6. 여가생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정보 보유	
교통생활			F3-7.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인지	
소비생활전반			A7. 소비생활위해 발생 시 대처요령 인지	
안전 행동 실천		식 품	B3-8. 식품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노력	
		건강. 위생	C3-6. 건강을 위한 정기적 신체검사와 운동	
		주생활	D3-7. 안전한 소비생활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	
		여가생활	E3-7.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을 실천	
교통생활	F3-6.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			





**실태조사**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20대 성인의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

## IV. 지수산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반적 분석

### 4.1 실태조사의 개요

#### 1) 조사방법 및 표본

##### □ 조사방법

-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5대 부문별 62개 소비품목별 위해발생불안감, 40개 위해발생요인별 위해심각성 인식과 소비자의 전반적 안전의식과 안전확보행동 등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1개별 설문조사를 실시<sup>9)</sup>

##### □ 분석방법

- 각각의 여러 조사내용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0.1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 등 일반적인 빈도 분석, T-test,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Simple, Multiple Regression),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을 실시

9) 자세한 내용은 중간보고서(조사결과중심)를 참고

□ 표본 설계

-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7대 광역시 소재 20세 이상 남녀 1,600명(유효표본 기준)를 대상으로 다단계 비례층화방식(성, 연령별 비례층화)으로 표집

□ 표본 구성

- 본 표본에서 미리 할당한 지역, 성별, 연령별 분포와 기타 인구통계적 특성(학력, 소득, 직업, 결혼유무 등)에 대한 구성 및 특성은 다음 <표 4.1>과 같음

□ 조사 시기

- 2007년 7월 30일에서 8월 12일 동안 실시되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인 2005, 2006년과 거의 동일한 시기

□ 조사 대상자의 특성 <표 4.1>

표 4.1 2007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표본수 (명)	구성비 (%)	구 분		표본수 (명)	구성비 (%)
전체		1600	100.0	전체		1600	100.0
성별	남성	800	50.0	결혼 여부별	기혼가구	1054	65.9
	여성	800	50.0		미혼가구	471	29.4
연령별	20대	379	23.7		기타(사별, 이혼)	56	3.5
	30대	427	26.7	무응답	19	1.2	
	40대	373	23.3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476	29.8
	50대	250	15.6		외벌이	641	40.1
	60대 이상	171	10.7		무응답	483	30.1
지역별	서울	440	27.5	세대 구성 유형별	독신가구	156	9.8
	부산	256	16.0		부부가구	284	17.8
	대구	220	13.8		미취학 2세대	157	9.8
	광주	162	10.1		취학 2세대	379	23.7
	대전	162	10.1		성인자녀 2세대	493	30.8
	인천	220	13.8		3세대 가구	99	6.2
	울산	140	8.8		무응답	32	2.0
학력별	중졸이하	112	7.0	주택 유형별	아파트	886	55.4
	고졸	602	37.6		단독주택	328	20.5
	대졸	767	47.9		다세대/다가구	151	9.4
	대학원졸	92	5.8		연립 빌라	178	11.1
	무응답	27	1.7		기타	46	2.9
직업별	농임어수산업	11	0.7	월평균 가구 소득별	무응답	11	0.7
	사무기술직	173	10.8		100만원 미만	76	4.8
	생산직	49	3.1		100만원대	322	20.1
	판매/영업직	216	13.5		200만원대	431	26.9
	관리직	120	7.5		300만원대	353	22.1
	공무원	69	4.3		400만원대	184	11.5
	전문직	208	13.0		500만원대	101	6.3
	전업주부	279	17.4		600만원 이상	96	6.0
	학생	140	8.8		무응답	37	2.3
	기타	320	20.0				
	무응답	15	0.9				

N=1,600



## 4.2 조사변수의 기초적 분석

### 4.2.1 소비자안전에 관한 전반적 인식

#### 1) 현재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 ‘현재 우리나라/사회가 소비생활 위해로부터 얼마나 안전 또는 불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0.3%는 ‘약간 불안’, 16.7%는 ‘불안’, 4.8%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51.8%가 불안 의식을 나타냄
  - 반면, 응답자의 12.7%는 ‘약간 안전’, 7.8%는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안전’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0.9%만이 우리나라/사회의 소비생활이 안전한 것으로 평가
- 이는 과반수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생활 위해로부터 불안을 느끼고 있는 반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5명 중 1명 꼴에 불과해 대다수 소비자들의 소비생활 안전에 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
-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안전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소비생활 위해로부터 안전·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소비자 안전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이 긴요함을 시사

표 4.2 현재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불안	76	4.8
불 안	267	16.7
약간 불안	483	30.3
그저 그렇다	437	27.3
약간 안전	203	12.7
안 전	124	7.8
매우 안전	6	0.4
합 계	1,596	100.0

표 43 현재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96	3.51		
성 별	남 자	798	3.63	12.214	0.000
	여 자	798	3.40		
연 령	20 대	378	3.51	0.893	0.467
	30 대	426	3.42		
	40 대	373	3.57		
	50 대	248	3.52		
	60대 이상	171	3.60		
학 령	중졸이하	112	3.57	0.291	0.832
	고 졸	600	3.48		
	대 졸	765	3.53		
	대학원졸	92	3.47		
직 업	사무기술직	173	3.61	2.812	0.007
	생 산 직	49	3.61		
	판매/영업직	214	3.75		
	관 리 직	120	3.59		
	공 무 원	69	3.59		
	전 문 직	208	3.37		
	전업주부	279	3.32		
	학 생	139	3.62		
소 득	100만원미만	76	3.46	1.370	0.223
	100 ~ 200만원	321	3.50		
	200 ~ 300만원	431	3.46		
	300 ~ 400만원	352	3.45		
	400 ~ 500만원	184	3.71		
	500 ~ 600만원	101	3.70		
	600만원이상	94	3.50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96	3.51		
혼 인	기 혼	1,051	3.53	0.138	0.710
	미 혼	470	3.50		
취 업	맞 벌 이	456	3.59	1.573	0.210
	외 벌 이	546	3.49		
세 대	독신가구	156	3.49	0.240	0.945
	부부가구	283	3.50		
	미취학2세대	157	3.50		
	취학2세대	379	3.56		
	성인자녀2세대	490	3.49		
	3세대가구	99	3.61		
주택 형태	아 파 트	882	3.51	0.541	0.654
	단독주택	328	3.54		
	다세대/다가구	151	3.39		
	연립·빌라	178	3.54		
지 역	서 울	440	3.40	13.257	0.000
	부 산	254	4.09		
	대 구	220	3.30		
	광 주	162	3.41		
	대 전	162	3.62		
	인 천	218	3.53		
	울 산	140	3.13		

- 한편, 이러한 현재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은 7점 척도로 환산하면 3.51점을 나타내 평균값 4.0점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0개의 응답자 특성 중 성, 직업 및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 성별로는 여성이 3.40점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3.63점을 나타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현재의 소비생활 전반을 훨씬 불안하게 인식
- 직업별로는 판매영업직이 3.7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안전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업주부 및 전문직 종사자들은 각각 3.32점과 3.37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의식을 나타냄
  - 하지만, 가장 높은 안전의식을 나타낸 판매영업직 종사자들 역시 이론적 평균값 이하의 안전의식을 나타내 직업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계층이 현재의 소비생활을 불안하게 인식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거주자들이 4.09점을 나타내 이론적 평균값 이상의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안전의식을 나타낸 반면 울산지역 거주자들은 3.1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불안의식을 나타냄

## 2) 안전예방 의식 평가

- 현재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예방 의식에 대해 ‘대체로 높은 편이다’가 17.9%, ‘매우 높다’가 1.3%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19.2%가 일반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예방 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현재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예방 의식에 대해 응답자의 32.3%는 ‘대체로 낮은 편이다’, 5.7%는 ‘매우 낮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38.0%는 부정적으로 평가
  - 한편, 일반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예방 의식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그런 수준이다’는 전체적으로 42.8%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냄



-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 소비자들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예방 의식이 매우 낮으며, 이는 우리사회 전반이 ‘안전불감증’으로 대표되는 낮은 안전예방 의식에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

표 44 일반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예방 의식 평가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높다	20	1.3
대체로 높은 편이다	285	17.9
그저 그런 수준이다	683	42.8
대체로 낮은 편이다	515	32.3
매우 낮다	91	5.7
합 계	1,594	100.0

- 이러한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전반의 안전예방 의식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2.77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3.0점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 연령, 직업, 혼인여부 및 지역별로 평가 인식에 차이
- 성별로는 여성이 2.70점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2.83점을 나타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우리 국민 저변의 안전예방 의식을 보다 낮게 평가
-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을 경계로 그 미만 계층과 그 이상 계층간에 의미있는 평가인식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젊은 계층일수록 우리 국민 저변의 안전의식을 보다 비판적으로 평가
- 직업별로는 생산직이 2.9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인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론적 평균점 이하의 평가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층의 경우는 2.63점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예방 의식을 가장 낮게 평가
- 혼인여부별로는 기혼층이 2.79점인데 반해 미혼층은 2.70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미혼층들이 우리 국민 저변의 안전의식을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





표 45 전반적인 안전예방 의식 평가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94	2.77		
성 별	남 자	798	2.83	8.412	0.004
	여 자	796	2.70		
연 령	20 대	378	2.69	2.614	0.034
	30 대	425	2.71		
	40 대	373	2.84		
	50 대	247	2.83		
	60대 이상	171	2.84		
학 령	중졸이하	111	2.70	0.924	0.429
	고 졸	599	2.79		
	대 졸	765	2.76		
	대학원졸	92	2.65		
직 업	사무기술직	173	2.84	2.534	0.014
	생 산 직	49	2.98		
	판매/영업직	213	2.90		
	관 리 직	120	2.81		
	공 무 원	69	2.87		
	전 문 직	208	2.67		
	전업주부	279	2.72		
	학 생	139	2.63		
소 득	100만원미만	75	2.63	0.469	0.831
	100 ~ 200만원	321	2.79		
	200 ~ 300만원	430	2.77		
	300 ~ 400만원	352	2.75		
	400 ~ 500만원	184	2.80		
	500 ~ 600만원	101	2.79		
	600만원이상	94	2.76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α)
전 체		1,594	2.77		
혼 인	기 혼	1,050	2.79	3.387	0.066
	미 혼	470	2.70		
취 업	맞 벌 이	455	2.84	2.159	0.142
	외 벌 이	546	2.76		
세 대	독신가구	155	2.75	1.155	0.329
	부부가구	283	2.80		
	미취학2세대	157	2.68		
	취학2세대	378	2.84		
	성인자녀2세대	490	2.73		
	3세대가구	99	2.73		
주택 형태	아 파 트	882	2.75	1.140	0.332
	단독주택	326	2.83		
	다세대/다가구	151	2.70		
	연립·빌라	178	2.78		
지 역	서 울	439	2.73	5.429	0.000
	부 산	254	2.96		
	대 구	220	2.60		
	광 주	162	2.74		
	대 전	161	2.81		
	인 천	218	2.87		
	울 산	140	2.60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거주자들이 2.96점으로 이론적인 평균값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구 및 울산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2.60점의 평가인식을 나타냄
-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예방 의식, 즉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남성보다는 여성, 40대 연령층을 경계로 그 미만 계층, 학생, 미혼, 대구 및 울산지역 거주자들이 보다 높게 나타남

3) 안전예방 의식이 낮은 이유

- 우리 사회 저변의 안전예방 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은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 때문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장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23.9%로 그 다음을 차지
  - ‘빨리 빨리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은 16.3%를 나타냈으며 ‘위해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때문은 8.2%를 나타냄
- 이는 우리 사회 저변의 안전예방 의식이 낮은 이유가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 또는 ‘안전이 당장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생각과 같은 안전불감증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
  - 이와 함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빨리 빨리에 너무나 집착하는 우리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우리 사회 저변의 안전예방 의식을 낮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

표 4.6 소비자들이 안전예방 의식이 낮은 이유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	786	51.6
안전이 당장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생각	364	23.9
“빨리 빨리”에 집착하는 마음	249	16.3
위해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124	8.2
합 계	1,523	100.0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향후 우리 사회 저변의 안전예방 의식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전반의 성숙된 안전문화 인식의 확산 및 정착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필요성을 시사
- 한편, 국민들의 안전예방 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생각은 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성, 연령, 직업, 주부취업여부, 세대 및 지역 등에 따라 차이
- 성별로는 안전예방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설마하는 생각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이익과 무관 또는 빨리빨리에 집착하는 현상들을 보다 강조
- 연령별로는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 때문은 20대가 57.6%, 30대 55.1%, 40대 50.7%, 50대 39.1%, 60대 이상 49.4%를 나타내 60대 이상 노인층을 제외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이러한 이유에 보다 공감
  - 반면, ‘안전이 당장의 이익과 무관’ 또는 ‘빨리 빨리에 집착하는 마음’ 등은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이에 보다 공감하는 경향을 나타냄
  - ‘위해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의 경우는 50대가 10.2%, 60대 이상이 15.2%로 전체 평균 8.2% 이상을 나타내 소비자 안전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이들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 필요성을 시사
- 직업별로는 학생 계층의 경우는 특히 ‘설마 내가 사고가 나겠느냐는 생각’ 때문이 60.1%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안전이 당장 이익과 무관하다는 생각’ 때문은 16.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주부가구는 ‘빨리빨리 집착’을 보다 강조한 반면 전업주부가구는 상대적으로 ‘위해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를 강조

표 4.7 소비자들이 안전예방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실마하는 생각	당장이익 무관	빨리빨리 집착	잘 몰라서	X <sup>2</sup>	유의도 (a)
전 체		1,523	51.6	23.9	16.3	8.2		
성 별	남 자	760	46.7	25.9	18.6	8.8	14.995	0.002
	여 자	763	56.5	21.9	14.2	7.5		
연 령	20 대	368	57.6	21.5	14.4	6.5	40.390	0.000
	30 대	405	55.1	22.5	14.3	8.1		
	40 대	351	50.7	26.8	17.4	5.1		
	50 대	235	39.1	29.8	20.9	10.2		
	60대 이상	164	49.4	18.3	17.1	15.2		
학 력	중졸이하	107	49.5	22.4	18.7	9.3	9.847	0.363
	고 졸	581	50.3	22.5	18.8	8.4		
	대 졸	721	51.6	25.5	15.1	7.8		
	대학원졸	87	59.8	24.1	8.0	8.0		
직 업	사무기술직	161	55.3	26.7	13.7	4.3	31.264	0.069
	생 산 직	47	42.6	31.9	23.4	2.1		
	판매/영업직	205	51.2	23.4	19.5	5.9		
	관 리 직	114	51.8	21.1	17.5	9.6		
	공 무 원	67	49.3	29.9	11.9	9.0		
	전 문 직	193	44.0	30.6	16.6	8.8		
	전업주부	265	55.5	24.2	10.9	9.4		
	학 생	138	60.1	16.7	15.9	7.2		
소 득	100만원미만	74	44.6	18.9	24.3	12.2	19.381	0.369
	100~200만원	309	55.3	22.0	15.9	6.8		
	200~300만원	413	53.3	22.5	16.0	8.2		
	300~400만원	330	49.1	27.0	16.4	7.6		
	400~500만원	175	49.7	24.6	15.4	10.3		
	500~600만원	95	58.9	21.1	16.8	3.2		
	600만원이상	91	44.0	28.6	15.4	12.1		

구 분		표본수	설마하는 생각	당장이익 무관	빨리빨리 집착	잘 몰라서	χ <sup>2</sup>	유의도 (α)
전 체		1,523	51.6	23.9	16.3	8.7		
혼 인	기 혼	995	50.8	25.1	16.3	7.8	4.170	0.244
	미 혼	455	54.9	20.4	16.0	8.6		
취 업	맞 별 이	431	51.7	25.1	17.9	5.3	7.566	0.056
	외 별 이	520	50.0	25.4	14.8	9.8		
세 대	독신가구	151	57.0	19.9	13.2	9.9	23.337	0.077
	부부가구	270	47.4	21.9	18.9	11.9		
	미취학2세대	152	59.9	23.7	12.5	3.9		
	취학2세대	357	50.1	27.2	16.0	6.7		
	성인자녀2세대	468	51.1	24.6	16.9	7.5		
	3세대가구	94	48.9	19.1	20.2	11.7		
주 택 형 태	아 파 트	833	51.3	24.8	16.2	7.7	6.696	0.669
	단독주택	320	48.4	25.6	18.1	7.8		
	다세대/다가구	145	57.2	21.4	13.8	7.6		
	연립·빌라	168	55.4	20.2	14.3	10.1		
지 역	서 울	417	53.2	22.1	16.3	8.4	30.624	0.032
	부 산	242	49.6	27.7	12.0	10.7		
	대 구	210	55.7	23.3	12.9	8.1		
	광 주	159	50.9	26.4	16.4	6.3		
	대 전	147	57.1	25.2	11.6	6.1		
	인 천	217	43.8	22.1	25.8	8.3		
	울 산	131	51.1	22.1	19.8	6.9		

- 세대별로는 국민 저변의 안전예방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독신 및 미취학 2세대 가구는 ‘설마하는 생각 때문’을 보다 강조한 반면, 취학2세대 가구는 ‘당장 이익과 무관 때문’을 상대적으로 보다 강조
  - 3세대 가구는 상대적으로 ‘빨리빨리에 집착하기 때문’ 또는 ‘위해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
  - ‘위해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를 강조하는 경향은 부부가구의 경우에 11.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거주들은 상대적으로 ‘당장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 또는 ‘위해예방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가 보다 강조되고 있는 반면 대전지역 거주자들은 ‘설마하는 생각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천지역은 ‘설마하는 생각 때문’은 43.8%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빨리빨리 집착 때문’은 25.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4)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

-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위해정보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분석되어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런 편이다’가 17.7%, ‘매우 그렇다’가 2.1%로 전체의 19.8%만이 긍정 평가

표 48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적절한 제공 여부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그렇다	34	2.1
대체로 그런 편이다	282	17.7
그저 그렇다	636	4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506	31.8
전혀 그렇지 않다	134	8.4
합 계	1,592	100.0



표 49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a)
전 체		1,592	2.73		
성 별	남 자	796	2.81	11.112	0.001
	여 자	796	2.66		
연 령	20 대	378	2.72	1.253	0.287
	30 대	426	2.66		
	40 대	371	2.76		
	50 대	246	2.80		
	60대 이상	171	2.80		
학 령	중졸이하	111	2.77	0.549	0.649
	고 졸	598	2.75		
	대 졸	764	2.73		
	대학원졸	92	2.63		
직 업	사무기술직	173	2.83	2.820	0.006
	생 산 직	49	2.92		
	판매/영업직	214	2.82		
	관 리 직	120	2.63		
	공 무 원	69	2.94		
	전 문 직	206	2.61		
	전업주부	278	2.60		
	학 생	139	2.69		
소 득	100만원미만	75	2.76	0.728	0.627
	100 ~ 200만원	320	2.74		
	200 ~ 300만원	431	2.71		
	300 ~ 400만원	351	2.71		
	400 ~ 500만원	184	2.85		
	500 ~ 600만원	100	2.65		
	600만원이상	94	2.69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α)
전 체		1,592	2.73		
혼 인	기 혼	1,048	2.73	0.298	0.585
	미 혼	470	2.70		
취 업	맞 벌 이	456	2.74	0.063	0.802
	외 벌 이	543	2.72		
세 대	독신가구	155	2.82	2.930	0.012
	부부가구	283	2.87		
	미취학2세대	156	2.58		
	취학2세대	379	2.72		
	성인자녀2세대	488	2.70		
	3세대가구	99	2.61		
주택 형태	아 파 트	880	2.73	0.742	0.527
	단독주택	327	2.71		
	다세대/다가구	151	2.78		
	연립·빌라	177	2.82		
지 역	서 울	438	2.74	6.891	0.000
	부 산	253	2.89		
	대 구	219	2.51		
	광 주	162	2.66		
	대 전	162	2.63		
	인 천	218	2.98		
	울 산	140	2.62		

- 반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31.8%, ‘전혀 그렇지 않다’는 8.4%를 나타내 전체 응답자의 40.2%는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이와 같이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해 ‘그저 그렇다’를 포함한 부정적 평가 인식이 전체의 80% 이상을 나타내 효과적인 위해정보 관리 필요성을 시사
- 한편,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 인식은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2.73점으로 이론적 평균값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성, 직업, 세대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나타냄
-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한 성별 인식은 남성이 2.81점, 여성이 2.66점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냄
- 직업별로는 공무원 및 생산직 근로자들이 각각 2.94점 및 2.92점을 나타내 평균값 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전문직과 전업주부는 각각 2.61점과 2.60점으로 보다 비판적 입장임
- 세대별로는 부부가구의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한 평가 인식이 2.87점으로 이론적 평균값 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학2세대 가구의 경우는 2.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미취학의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 소비자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서, 이들 가구들이 원하는 소비생활 위해정보가 국가차원에서 적절히 관리 및 충분히 제공되지 못함을 시사
- 지역별로는 인천지역 거주자들의 국가차원의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한 평가 인식이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은 2.5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위해정보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어 적절히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다소간 회의적으로 인식

- 특히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남성보다는 여성, 직업별로는 전업주부 및 전문직 종사자, 세대별로는 미취학2세대 가구 또는 3세대가구, 지역별로는 대구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남

5) 필요로 하는 위해정보 원천

-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얻는 원천은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67.1%로 단연 1순위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38.1%, 인터넷정보가 33.6%를 나타냄
- 주변 친지나 이웃은 16.6%, 자신의 경험은 8.6%를 나타냄
- 반면, 소비자단체는 4.1%, 공공기관 0.6%, 제조업체 1.6%, 유통업체 1.8%, 반상회는 0.9% 등으로 나타나 이들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임을 나타냄

표 4.10 필요로 하는 위해정보 원천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주변 친지나 이웃	266	16.6
언론 (신문·잡지)	609	38.1
방송 (TV·라디오)	1,074	67.1
인터넷 정보	537	33.6
공공기관	10	0.6
소비자단체	65	4.1
제조업체	26	1.6
유통업체	29	1.8
반상회	14	0.9
자신의 경험	138	8.6
정보원이 없다	38	2.4

주 : 복수응답 (n=1,600)

-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방송, 언론 및 인터넷 등 공식 채널에 보다 의존하고 있는 반면, 주변 친지나 이웃, 자신의 경험과 같은 비공식 채널 의존도는 다소 떨어짐을 의미
  - 이는 향후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위해정보 제공이 방송, 언론 및 인터넷 등 공식적 정보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정교한 채널 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한편, 소비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위해정보를 얻는 원천은 소비자 각자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의존도가 높은 5개 정보원을 중심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
- 위해정보 원천에 대한 성별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언론매체 및 인터넷 정보 의존도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들은 주변 친지나 이웃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위해정보 원천에 대한 성별 차이를 잘 설명하는 결과로 판단되는데, 남성이 상대적으로 공식적 정보채널을 보다 선호하는데 반해 여성은 비공식적 정보채널을 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
- 연령별로는 주변 친지나 이웃, 자신의 경험 등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정보의존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정보 의존도는 나이가 젊을수록, 언론매체 의존도는 40대 연령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즉, 주변 친지나 이웃에 대한 위해정보 의존도는 20대가 11.1%, 30대 15.2%, 40대 13.4%, 50대 21.2%, 60대 이상 32.8%로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경험 역시 유사한 연령별 특성을 나타냄
  - 반면, 인터넷정보 의존도는 20대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40.8%, 40대 26.5%, 50대 16.8%, 60대 이상은 9.4%를 나타냄
- 학력별로는 주변 친지나 이웃, 자신의 경험 등 비공식적 채널에 대한 정보의존도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특히, 중졸이하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정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남

표 4.11 필요로 하는 위해정보 원천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주변 이웃	언론매체	방송매체	인터넷정보	자신 경험	
전 체	1,600	16.6	38.1	67.1	33.6	8.6	
성별	남 자	800	10.4	41.3	66.3	36.9	8.4
	여 자	800	22.9	34.9	68.0	30.3	8.9
	F		46.340***	6.917***	0.555	7.902***	0.127
연령	20 대	379	11.1	33.8	64.1	54.4	6.1
	30 대	427	15.2	35.4	67.9	40.8	6.8
	40 대	373	13.4	45.3	70.8	26.5	7.5
	50 대	250	21.2	38.4	66.8	16.8	12.0
	60대 이상	171	32.8	38.0	64.3	9.4	16.4
	F		12.238***	3.164**	1.137	46.795***	5.610***
학력	중졸이하	112	40.2	25.9	60.7	8.9	21.4
	고 졸	602	18.4	37.5	68.3	30.2	8.3
	대 졸	767	12.3	40.9	66.2	39.4	7.0
	대학원졸	92	10.9	33.7	75.0	37.0	6.5
	F		20.482***	3.524**	1.771	15.601***	8.999***
직업	사무기술직	173	12.7	37.0	69.4	39.3	6.9
	생 산 직	49	8.2	53.1	69.4	26.5	8.2
	판매/영업직	216	16.7	38.9	63.0	37.5	6.5
	관 리 직	120	15.0	41.7	67.5	35.0	7.5
	공 무 원	69	13.0	42.0	62.3	33.3	2.9
	전 문 직	208	11.5	40.9	65.4	36.5	9.1
	전업주부	279	31.9	35.5	72.8	15.1	11.1
	학 생	140	5.0	37.1	65.7	53.6	9.3
F		10.469***	0.992	1.049	11.189***	1.054	
소득	100만원미만	76	29.0	23.7	61.8	25.0	13.2
	100~200만원	322	20.2	31.7	64.0	33.9	10.3
	200~300만원	431	16.5	39.7	69.1	34.1	8.4
	300~400만원	353	15.3	40.5	69.7	32.9	7.7
	400~500만원	184	13.6	44.0	66.9	37.5	5.4
	500~600만원	101	14.9	40.6	72.3	26.7	5.9
	600만원이상	96	11.5	37.5	58.3	39.6	13.5
	F		2.486**	2.796**	1.475	1.260	1.629

구 분	표본수	주변 이웃	언론매체	방송매체	인터넷정보	자신 경험	
전 체	1,600	16.6	38.1	67.1	33.6	8.6	
혼인	기 혼	1,054	19.5	39.6	68.2	26.0	8.8
	미 혼	471	9.6	35.7	63.7	52.2	7.0
	F		23.970***	2.089	3.004*	106.525***	1.418
취업	맞 벌 이	457	16.9	38.7	66.7	28.5	8.3
	외 벌 이	548	22.1	40.2	69.3	23.4	9.3
	F		4.321**	0.208	0.777	3.386*	0.303
세대	독신가구	156	14.7	34.6	64.7	44.2	8.3
	부부가구	284	22.9	35.2	68.0	25.7	8.8
	미취학2세대	157	17.2	33.8	70.1	41.4	6.4
	취학2세대	379	14.0	43.3	73.4	29.6	6.9
	성인자녀2세대	493	15.4	38.2	62.7	35.5	10.3
	3세대가구	99	20.2	37.4	64.7	29.3	11.1
	F		2.337**	1.478	2.504**	4.973***	1.027
주택 형태	아 파 트	886	14.1	39.3	68.6	32.8	7.1
	단독주택	328	22.6	42.4	61.9	26.8	10.4
	다세대/다가구	151	19.2	32.5	69.5	37.1	8.0
	연립·빌라	178	15.7	30.9	68.5	43.8	10.7
	F		4.438***	3.003**	1.845	5.416***	1.611
지역	서 울	440	16.4	34.3	63.2	38.4	9.8
	부 산	256	13.7	43.8	62.9	32.4	7.7
	대 구	220	23.6	36.8	73.6	26.4	8.2
	광 주	162	17.9	32.1	70.4	32.7	6.8
	대 전	162	11.7	42.6	71.0	35.2	7.4
	인 천	220	16.8	34.6	60.9	35.5	8.6
	울 산	140	15.7	48.6	78.6	27.9	11.4
	F		2.093*	2.994***	3.947***	2.097*	0.608

- 직업별로는 주변 이웃이나 친지에 대한 위해정보 의존도는 전업주부 계층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은 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위해정보 의존도는 학생 계층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주부 계층은 15.1%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이는 전업주부와 학생계층간 위해정보 원천에 대한 매우 상반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업주부들은 주변 이웃이나 친지 등 비공식 채널을 선호하는 반면 학생은 인터넷 등 공식채널을 보다 선호
- 소득별로는 주변 이웃이나 친지에 대한 의존도는 100만원 미만 29.0%, 100만원대 20.2%, 200만원대 16.5%, 300만원대 15.3%, 400만원대 13.6%, 500만원대 14.9%, 600만원 이상 11.5%로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반면, 언론매체를 통한 위해정보 의존도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특히 300만원~600만원 계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는 기혼자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주변 이웃이나 친지 또는 방송매체 의존도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위해정보 의존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주부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전업주부 가구는 주변 이웃이나 친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취업주부 가구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정보 의존도가 보다 높게 나타남
- 세대별로는 주변 이웃이나 친지에 대한 위해정보 의존도는 부부가구 또는 3세대 가구가 각각 22.9%와 20.2%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매체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취학2세대 가구가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터넷을 통한 위해정보 의존도는 독인가구가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부부가구는 25.7%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형태별로는 주변 이웃이나 친지에 대한 위해정보 의존도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14.1%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언론매체의존도는 단독주택이 42.4%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의존도는 연립·빌라 거주자들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정보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 지역은 주변 친지나 이웃 또는 방송매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남
- 울산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언론매체 및 방송매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6) 정부 및 기업의 소비자 의견반영 정도

- 소비자안전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가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은 ‘대체로 그런 편이다’가 17.1%, ‘매우 그렇다’가 1.0%로 전체적으로 18.1%가 긍정 반응
- 반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9.7%, ‘전혀 그렇지 않다’는 9.5%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39.2%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
- 이와 같이 부정적 반응이 긍정적 반응의 2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시장내에서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소비자 의견이 정부 또는 기업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이 불비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
- 이는 결국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8대권리의 하나인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시장내에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함을 시사

표 4.12 소비자 안전 의견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충분한 반영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그렇다	16	1.0
대체로 그런 편이다	273	17.1
그저 그렇다	680	42.7
대체로 그렇지 않다	473	29.7
전혀 그렇지 않다	152	9.5
합 계	1,594	100.0

표 4.13 정부 및 기업의 소비자의견의 충분한 반영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94	2.70		
성 별	남 자	797	2.78	10.220	0.001
	여 자	797	2.63		
연 령	20 대	377	2.72	2.052	0.085
	30 대	426	2.61		
	40 대	373	2.74		
	50 대	247	2.71		
	60대 이상	171	2.81		
학 령	중졸이하	111	2.76	1.078	0.357
	고 졸	599	2.73		
	대 졸	765	2.67		
	대학원졸	92	2.60		
직 업	사무기술직	173	2.68	3.998	0.000
	생 산 직	49	2.86		
	판매/영업직	214	2.87		
	관 리 직	120	2.70		
	공 무 원	69	2.90		
	전 문 직	208	2.55		
	전업주부	279	2.56		
	학 생	139	2.80		
소 득	100만원미만	75	2.89	1.001	0.423
	100 ~ 200만원	321	2.69		
	200 ~ 300만원	430	2.69		
	300 ~ 400만원	352	2.66		
	400 ~ 500만원	184	2.78		
	500 ~ 600만원	101	2.67		
	600만원이상	94	2.69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α)
전 체		1,594	2.70		
혼 인	기 혼	1,051	2.69	0.035	0.853
	미 혼	469	2.68		
취 업	맞 벌 이	456	2.68	0.000	0.985
	외 벌 이	546	2.68		
세 대	독신가구	155	2.74	1.107	0.355
	부부가구	283	2.75		
	미취학2세대	157	2.60		
	취학2세대	379	2.76		
	성인자녀2세대	489	2.67		
	3세대가구	99	2.68		
주택 형태	아 파 트	882	2.70	1.483	0.217
	단독주택	327	2.75		
	다세대/다가구	150	2.57		
	연립·빌라	178	2.75		
지 역	서 울	438	2.62	7.196	0.000
	부 산	254	2.84		
	대 구	220	2.48		
	광 주	162	2.70		
	대 전	162	2.73		
	인 천	218	2.96		
	울 산	140	2.65		

- 한편, 시장에서의 소비자안전에 대한 소비자의견이 정부나 기업관계자들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성, 연령, 직업 및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차이
- 성별로는 남성이 2.78점, 여성이 2.63점을 나타내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정부나 기업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의견에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
- 연령별로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이 2.81점으로 이론적인 평균 점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30대는 2.6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으로 반응
- 직업별로는 공무원 계층이 2.90점으로 소비자안전에 대한 소비자의견 전달체계에 대해 가장 높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전문직 및 전업주부 계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
- 지역별로는 인천지역 거주자들이 소비자안전에 대한 소비자의견 전달체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대구 지역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냄

7) 소비생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 인지

- ‘만약, 귀댁 등에서 소비생활 위해에 의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8.9%는 ‘알고 있다’고, 38.8%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
  - 즉, ‘어느정도 알고 있다’가 37.0%,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9%로, 전체적으로 38.9%가 위해발생시 대응행동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 반면, ‘잘 모르고 있다’가 34.3%, ‘전혀 모르고 있다’가 4.5%로 전체적으로 38.8%는 위해발생시 대응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
- 이는 전체 응답자 세 명중 한 명 정도만이 소비생활 위해발생시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생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성을 시사

표 4.14 소비생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 인지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잘 알고 있다	30	1.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89	37.0
그저 그렇다	356	22.3
잘 모르고 있다	547	34.3
전혀 모르고 있다	71	4.5
합 계	1,593	100.0

- 한편, 소비생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에 대한 인지 정도는 5점 척도로 환산하면 2.97점을 나타내 비교적 이론적 평균값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성, 연령, 학력, 혼인여부, 주부취업여부 및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차이
- 성별로는 남성이 3.06점, 여성이 2.89점을 나타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소비생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 인지 정도가 훨씬 높게 나타남
  - 특히 남성의 경우에 이론적 평균점 이상을 나타낸 반면 여성들은 이론적 평균점 이하의 인지도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남을 의미
- 연령별로는 20대 2.82점, 30대 2.98점, 40대 3.05점, 50대 3.14점, 60대 이상 2.89점을 나타내 60대 이상 노령층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위해발생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학원졸 계층이 3.0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소비생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 인지도를 나타낸 반면 중졸이하 계층은 2.8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대응행동 인지를 나타냄
- 직업별로는 통계적 유의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생산직 종사자들이 3.15점으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에 대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반면

학생계층은 2.7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대응행동 인지도를 나타  
냄

표 4.15 소비생활 위해발생시 대응행동 인지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93	2.97		
성 별	남 자	798	3.06	11.056	0.001
	여 자	795	2.89		
연 령	20 대	378	2.82	5.055	0.000
	30 대	425	2.98		
	40 대	372	3.05		
	50 대	247	3.14		
	60대 이상	171	2.89		
학 령	중졸이하	111	2.84	2.176	0.089
	고 졸	598	3.04		
	대 졸	765	2.93		
	대학원졸	92	3.07		
직 업	사무기술직	173	2.94	1.702	0.105
	생 산 직	48	3.15		
	판매/영업직	214	3.07		
	관 리 직	120	2.98		
	공 무 원	69	2.94		
	전 문 직	208	2.90		
	전업주부	279	3.03		
	학 생	139	2.77		
소 득	100만원미만	75	2.88	0.886	0.504
	100 ~ 200만원	320	2.98		
	200 ~ 300만원	430	2.92		
	300 ~ 400만원	352	2.96		
	400 ~ 500만원	184	3.04		
	500 ~ 600만원	101	2.96		
	600만원이상	94	3.13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93	2.97		
혼 인	기 혼	1,050	3.03	11.677	0.001
	미 혼	469	2.84		
취 업	맞 벌 이	455	2.93	5.185	0.023
	외 벌 이	546	3.08		
세 대	독신가구	155	2.94	0.746	0.589
	부부가구	283	2.97		
	미취학2세대	157	2.97		
	취학2세대	379	3.05		
	성인자녀2세대	489	2.93		
	3세대가구	99	2.91		
주택 형태	아 파 트	882	3.02	1.727	0.159
	단독주택	327	2.93		
	다세대/다가구	149	2.84		
	연립·빌라	178	3.01		
지 역	서 울	437	2.94	2.759	0.011
	부 산	254	3.14		
	대 구	220	2.84		
	광 주	162	2.96		
	대 전	162	2.87		
	인 천	218	3.09		
	울 산	140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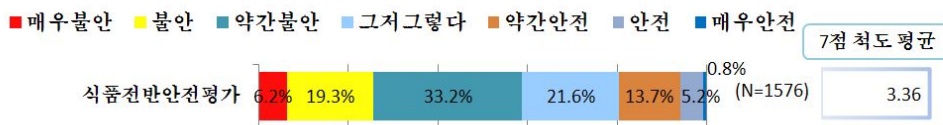
- 혼인여부별로는 기혼층이 3.03점, 미혼층이 2.84점을 나타내 기혼층에 비해 미혼층이 소비생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고나 피해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음을 의미
-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주부 가구는 2.93점을 나타낸 반면 전업주부 가구는 3.08점을 나타내 소비생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취업주부 가구보다는 전업주부 가구들이 이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냄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거주자들은 3.14점으로 가장 높은 소비생활 위해에 대한 대응행동 인지를 나타낸 반면 대구 및 대전 지역은 각각 2.84점 및 2.87점으로 보다 낮은 대응행동 인지를 나타냄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소비생활 위해에 의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인지도는 이론적 평균점에 근접하고 있으나 소비자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 즉, 소비생활 위해의 대응행동 인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계층은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이 젊을수록, 중졸이하 계층, 학생 계층, 기혼층 보다는 미혼층, 취업주부 가구, 대구 및 대전 지역 등으로 나타남

## 4.2.2 식품에 관한 안전 의식

### 1) 식품 전반의 안전성 평가

- ‘요즘의 식품 전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3.2%는 ‘약간 불안’, 19.3%는 ‘불안’, 6.2%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58.7%가 불안 의식을 나타냄
  - 반면, 응답자의 13.7%는 ‘약간 안전’, 5.2%는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안전’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9.7%만이 요즘의 식품 전반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평가
- 이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최근의 식품 전반의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무려 3배 정도나 높게 나타나 식품 전반의 안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

표 4.16 식품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불안	97	6.2
불 안	304	19.3
약간 불안	524	33.2
그저 그렇다	341	21.6
약간 안전	216	13.7
안 전	82	5.2
매우 안전	12	0.8
합 계	1,576	100.0

표 4.17 식품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76	3.36		
성 별	남 자	789	3.58	48.173	0.000
	여 자	787	3.14		
연 령	20 대	376	3.34	3.917	0.004
	30 대	424	3.17		
	40 대	363	3.46		
	50 대	246	3.50		
	60대 이상	167	3.46		
학 령	중졸이하	107	3.56	3.316	0.019
	고 졸	591	3.43		
	대 졸	759	3.31		
	대학원졸	92	3.07		
직 업	사무기술직	171	3.26	2.985	0.004
	생 산 직	48	3.67		
	판매/영업직	211	3.51		
	관 리 직	118	3.53		
	공 무 원	69	3.55		
	전 문 직	207	3.25		
	전업주부	275	3.15		
	학 생	139	3.50		
소 득	100만원미만	75	3.60	0.957	0.453
	100 ~ 200만원	319	3.34		
	200 ~ 300만원	424	3.36		
	300 ~ 400만원	345	3.35		
	400 ~ 500만원	183	3.46		
	500 ~ 600만원	99	3.18		
	600만원이상	94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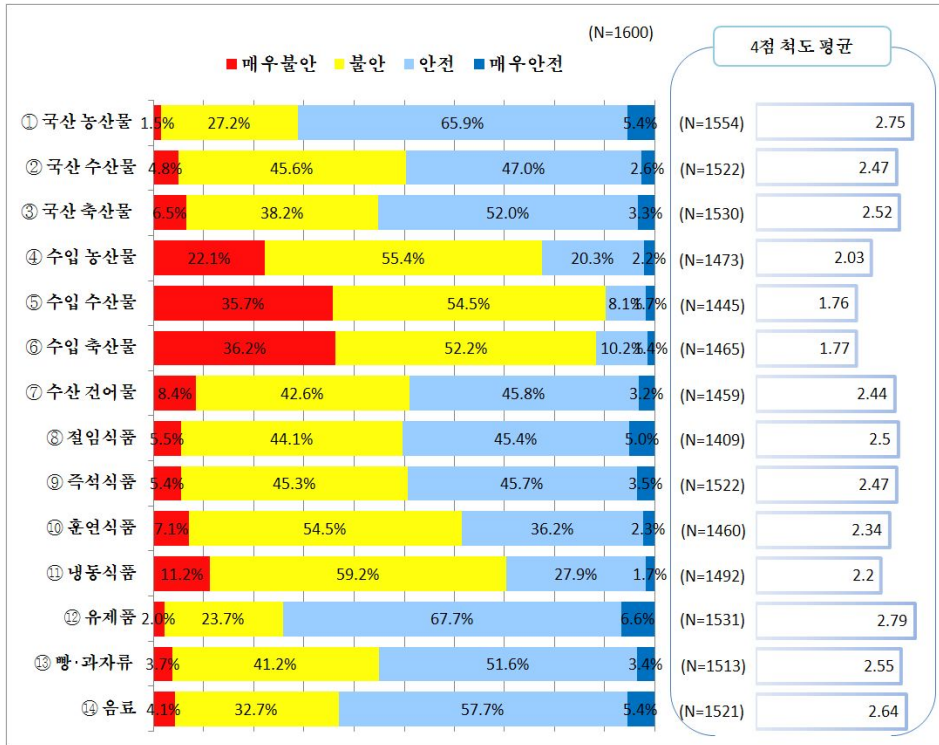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α)
전 체		1,576	3.36		
혼 인	기 혼	1,033	3.35	0.004	0.953
	미 혼	468	3.35		
취 업	맞 벌 이	447	3.40	1.367	0.243
	외 벌 이	539	3.31		
세 대	독신가구	155	3.44	1.180	0.317
	부부가구	281	3.37		
	미취학2세대	156	3.23		
	취학2세대	374	3.37		
	성인자녀2세대	481	3.32		
	3세대가구	98	3.59		
주택 형태	아 파 트	872	3.31	1.328	0.264
	단독주택	324	3.42		
	다세대/다가구	147	3.30		
	연립·빌라	176	3.48		
지 역	서 울	434	3.22	5.579	0.000
	부 산	254	3.70		
	대 구	217	3.45		
	광 주	160	3.23		
	대 전	161	3.39		
	인 천	211	3.43		
	울 산	139	3.06		

- 이러한 일반 소비자들의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7점 척도로 환산하면 3.36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4.0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성, 연령, 학력, 직업 및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식품 안전성 평가 인식에 차이
- 성별로는 남성의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3.58점을 나타내는데 반해 여성은 3.14점으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식품 전반의 안전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
- 연령별로는 대체로 40대 연령층을 경계로 그 이상 연령층들이 이론적 평균점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그 미만 계층은 식품 전반의 안전을 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 학력별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 의식은 중졸이하 계층이 3.56점, 고졸 3.43점, 대졸 3.31점, 대학원졸 3.07점을 나타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식품 전반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생산직의 경우에 3.67점의 식품 전반의 안전 인식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주부 계층은 3.15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거주자들이 3.70점의 식품 전반의 안전 인식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지역 거주자들은 3.0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 인식을 나타냄

2) 품목별 안전성 평가

-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 응답자들이 식품 전반의 안전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유제품의 안전성 인식이 7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수입수산물은 9.8%의 가장 낮은 안전성 인식을 나타냈으며, 수입축산물 11.6%, 수입농산물 22.5%, 냉동식품 29.6%, 훈연 식품 38.5% 등의 순으로 해당 품목 소비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다수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수산물에 비해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매우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

표 4.18 식품 전반의 품목별 안전성 평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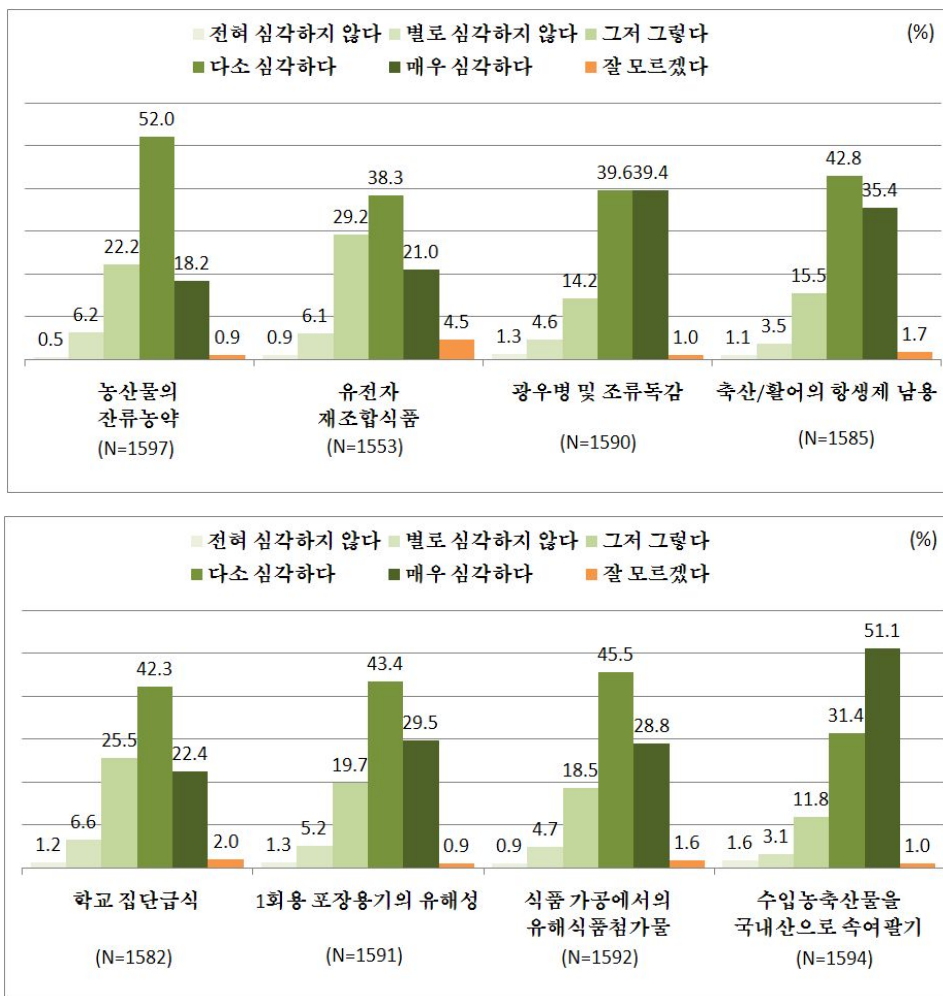
-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었던 만두속 사건과 같은 냉동식품에 대한 불안의식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시사
  - 결국 식품 품목별 안전성에 있어서는 품목간에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스스로의 직접적인 위해경험보다는 대형 위해사고나 위해정보 등 간접 위해경험에 의해 불안 인식이 결정되고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시장내에서의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성있는 위해정보의 공개 및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긴급요
- (※위해불안감 높은 5개 식품품목의 소비자특성별 안전인식 차이 - 부록)



### 3) 위해요인별 심각성 평가

- 금번 연구는 품목군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의 의미있는 변수로 해당 품목군별 위해요인의 심각성 인식을 포함시켰는데, 식품 전반의 위해요인 중에는 ‘수입 농축산물 국내산 속여팔기’가 4.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광우병 및 조류독감’이 4.12점을 나타냈으며,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이 4.10점, ‘식품 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이 3.98점, ‘1회용 포장용기의 유해성’이 3.96점을 나타냄

표 419 식품 전반의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인식



- 특히 식품군의 위해요인별 심각성은 대체로 5점 만점에 4점 이상 또는 4점에 근접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식품에 대한 높은 위해발생 가능성과 함께 그 위해요인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위해심각성 높은 5개 위해요인의 소비자특성별 안전인식 차이 - 부록)

4)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 금번 연구에서는 앞서의 식품 전반의 품목별 위해발생 가능성과 위해요인별 심각성 등과 관련해서 이러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정부 및 기업 등 이해당사자별 소비자안전 노력 정도를 평가
  - 식품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는 사업자 관련 4개 문항, 정부 관련 2개 문항, 소비자 관련 2개 문항 등 총 8개 문항을 평가
-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식품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안전 노력에 있어서는 농축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3.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자들의 위생적인 식품 생산은 3.01점을 나타냄

표 4-20 식품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

구 분	사례수 (명)	응 답 분 포 (%)					평균 (점)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자	농축산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1,593	11.5	49.9	30.8	7.0	0.8	3.64
	가공/제조업자들은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	1,591	2.0	25.3	46.4	23.8	2.5	3.01
	유통업자는 안전한 유통을 위해 노력	1,585	2.6	21.9	50.5	21.5	3.6	2.98
	급식업체는 좋은 식재료 사용, 안전음식 제공	1,590	1.7	13.8	44.4	32.6	7.6	2.70
정부	관련 법제-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	1,578	1.5	14.4	43.5	31.6	9.0	2.68
	식품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 않됨	1,585	29.5	32.1	22.8	11.6	4.0	3.71
소비자	식품 전반의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보유	1,585	1.8	21.4	48.5	24.0	4.3	2.92
	식품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 노력	1,593	7.8	35.0	36.1	16.4	4.6	3.25

- 유통업자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2.98점으로 이론적 평균점에 근접하는 평가 인식을 나타냈으며 급식업체가 좋은 식재료를 사용,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2.70점으로 부정적으로 인식
-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농축산 농민들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데 반해 가공/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의 노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이며, 급식업체의 소비자안전 노력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
- 정부와 관련한 소비자안전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법제 및 정책의 효과적 집행과 관련해서는 2.68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식품범죄에 대한 다소 가벼운 처벌 관행의 시정을 요구
  - 즉, 최근 솜방망이 처벌로 식품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6%가 이에 공감하고, 15.6%만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범죄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 필요성을 시사
- 소비자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는 식품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에 방에 노력하는 것은 3.25점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식품 전반의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보유는 2.92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반응
  -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 위해예방을 위해 식품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이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신들에 필요한 식품 전반의 8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함을 의미
- 한편, 이러한 식품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은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성별로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부정적인 인식 경향을 나타냄
  - 식품 가공 및 제조업자들의 위생적인 식품 제조에 대해 남성들은 3.08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이상의 사업자 안전 노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2.94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이하의 사업자 안전 노력을 평가
  - 급식업체의 좋은 식재료 사용 및 안전한 음식 제공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의 2.75점에 비해 다소 낮은 2.64점을 나타냈으며, 정부의 법제 및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대해서도 남성에 비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 하지만, 식품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에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는 남성의 3.16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3.34점을 나타내 자신의 위해예방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연령별 사업자의 안전노력에 있어서 농축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노력에 대한 평가는 20대가 3.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공 제조업자들의 위생적인 식품 생산 및 식품 유통업자들의 안전한 유통 노력은 40대 연령층을 경계로 그 미만 연령층에 비해 그 이상 연령층들이 이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 급식업체의 좋은 식재료 사용 및 안전한 음식 제공 노력의 경우는 역시 40대 연령층을 경계로 그 미만 연령층들이 그 이상 연령층들에 비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 정부 차원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30대 연령층이 정부의 법제도와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냄
  -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식품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 미흡 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이에 보다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이하 계층에서 보다 높은 공감대를 형성
  - 소비자 차원의 소비자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 식품안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는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
  - 식품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에 노력하는 것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5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사업자의 안전 노력 평가에 있어서 농축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가공 및 제조업자의 위생적인 식품 제조, 유통업자들의 안전한 유통 노력 등은 중졸이하를 제외하고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높게 나타남
  - 정부 차원의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에 있어서는 법제 및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졸계층이 2.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온적 처벌 문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강력하게 주장

- 소비자 차원의 안전대응 노력은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졸 및 대졸 계층이 각각 2.94점으로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사업자의 안전 노력 평가에 있어서 농축산 농민들의 소비자 안전 노력에 대해서는 학생 계층이 3.71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생산직 종사자들은 3.4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 인식을 나타냄
- 가공 및 제조, 유통업자의 소비자 안전 노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판매영업직 종사자들이 이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
- 정부 차원의 안전 확보 노력에 있어서는 법제 및 정책의 효과적 집행에 대해 공무원 계층이 2.84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전문직은 2.5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 소비자 차원에서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는 전업주부만이 3.04점으로 유일하게 긍정 인식을 나타낸 반면 학생계층의 경우 2.7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표 4-21 식품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농업인	가공·제조	유 통	급식업체	법제·정책	미온처벌	안전정보	예방노력	
전 체	3.64	3.01	2.98	2.70	2.68	3.71	2.92	3.25	
성 별	남 자	3.65	3.08	3.02	2.75	2.73	3.75	2.93	3.16
	여 자	3.64	2.94	2.95	2.64	2.63	3.68	2.92	3.34
	F	0.125	11.636***	2.219	6.823***	4.909**	1.812	0.055	14.821***
연 령	20 대	3.74	2.99	2.99	2.66	2.68	3.78	2.79	3.05
	30 대	3.63	2.93	2.85	2.62	2.54	3.84	2.91	3.25
	40 대	3.61	3.05	3.02	2.76	2.82	3.68	2.97	3.38
	50 대	3.56	3.10	3.09	2.76	2.73	3.65	3.04	3.41
	60대 이상	3.63	3.00	3.04	2.73	2.64	3.40	3.00	3.17
	F	2.238*	2.016*	4.196***	2.036*	5.418***	5.309***	4.357***	7.815***
학 력	중졸이하	3.57	2.98	2.99	2.72	2.67	3.14	2.89	3.09
	고 졸	3.72	3.07	3.06	2.70	2.76	3.65	2.94	3.27
	대 졸	3.62	2.97	2.93	2.69	2.61	3.82	2.94	3.26
	대학원졸	3.48	2.89	2.87	2.72	2.64	3.99	2.67	3.26
	F	3.504**	2.319*	3.389**	0.093	3.224**	14.944***	3.006**	1.081
직 업	사무기술직	3.65	2.93	2.90	2.73	2.68	3.77	2.85	3.16
	생 산 직	3.45	3.12	3.04	2.76	2.65	3.58	2.88	3.22
	판매/영업직	3.86	3.17	3.15	2.74	2.74	3.77	2.97	3.27
	관 리 직	3.55	3.05	2.92	2.70	2.62	3.84	2.96	3.13
	공 무 원	3.46	2.96	2.93	2.80	2.84	3.67	2.99	3.35
	전 문 직	3.63	2.87	2.89	2.57	2.50	3.79	2.84	3.27
	전업주부	3.62	3.00	3.00	2.67	2.64	3.64	3.04	3.49
	학 생	3.71	3.03	3.04	2.72	2.79	3.80	2.76	3.91
F	3.587***	2.681***	2.148**	1.015	2.075**	0.763	2.328**	5.916***	
소 득	100만원미만	3.78	3.14	3.00	2.89	2.76	3.39	2.96	3.18
	100~200만원	3.74	3.03	2.99	2.69	2.68	3.68	2.95	3.27
	200~300만원	3.67	3.04	3.00	2.67	2.67	3.73	2.88	3.16
	300~400만원	3.60	2.95	2.98	2.71	2.68	3.74	2.95	3.32
	400~500만원	3.55	2.98	2.95	2.75	2.71	3.78	2.95	3.21
	500~600만원	3.50	2.96	3.00	2.56	2.57	3.76	3.00	3.32
	600만원이상	3.54	2.91	2.92	2.65	2.60	3.85	2.88	3.47
	F	2.724**	1.121	0.198	1.301	0.516	1.499	0.579	1.930*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농업인	가공·제조	유 통	급식업체	법제·정책	미온처벌	안전정보	예방노력
전 체		3.64	3.01	2.98	2.70	2.68	3.71	2.92	3.25
혼 인	기 혼	3.62	3.00	2.98	2.70	2.68	3.70	2.99	3.36
	미 혼	3.70	2.98	2.96	2.66	2.66	3.76	2.79	3.02
	F	3.504*	0.237	0.327	0.824	0.100	0.881	18.684***	40.211***
취 업	맞 별 이	3.62	2.99	2.99	2.71	2.71	3.72	2.98	3.41
	외 별 이	3.60	3.01	2.97	2.68	2.63	3.68	2.97	3.32
	F	0.051	0.245	0.254	0.381	2.076	0.365	0.005	1.884
세 대	독신가구	3.63	3.11	2.94	2.74	2.73	3.52	2.77	3.03
	부부가구	3.57	2.98	2.99	2.63	2.59	3.59	2.92	3.31
	미취학2세대	3.66	2.94	2.85	2.74	2.57	3.99	2.97	3.30
	취학2세대	3.66	3.03	3.00	2.74	2.77	3.83	3.00	3.36
	성인자녀2세대	3.63	3.00	3.03	2.66	2.64	3.69	2.90	3.19
	3세대가구	3.70	2.96	2.95	2.73	2.71	3.68	2.91	3.21
	F	0.599	0.911	1.348	0.916	2.096*	4.410***	1.870*	3.187***
주 택 형 태	아 파 트	3.58	2.99	2.96	2.69	2.67	3.76	2.97	3.30
	단독주택	3.73	3.01	3.04	2.69	2.68	3.65	2.94	3.26
	다세대/다가구	3.71	2.99	3.03	2.69	2.69	3.61	2.77	3.05
	연립·빌라	3.70	3.06	2.98	2.69	2.69	3.70	2.85	3.15
	F	3.534**	0.294	1.217	0.003	0.043	1.276	2.978**	3.790**
지 역	서 울	3.57	2.93	2.90	2.61	2.59	3.74	2.88	3.24
	부 산	3.82	3.21	3.11	2.84	2.79	3.57	2.96	3.15
	대 구	3.70	2.96	3.01	2.52	2.60	3.81	2.87	3.25
	광 주	3.62	2.90	2.92	2.75	2.74	3.69	2.88	3.17
	대 전	3.58	3.00	2.95	2.75	2.75	3.76	2.86	3.36
	인 천	3.62	3.11	3.05	2.80	2.78	3.71	3.07	3.25
	울 산	3.59	2.91	3.00	2.70	2.56	3.70	2.97	3.41
	F	3.212***	4.926***	2.185**	4.193***	2.882***	1.098	1.859*	1.626

- 소비자 자신의 위해예방 노력에 있어서는 학생계층이 3.91점으로 가장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낸 반면 관리직과 사무기술직 종사자들은 각각 3.13점과 3.16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 인식을 나타냄
- 소득별 사업자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 농축산 농민들의 소비자 안전 노력의 경우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 자신의 위해예방 노력에 있어서는 600만원 이상 계층이 3.47점으로 가장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내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100만원 미만 및 200만원대 계층은 각각 3.18점과 3.1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혼인여부에 있어서 농축산 농민들의 소비자 안전 노력은 기혼층이 3.62점, 미혼층이 3.70점으로 미혼층이 기혼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소비자의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에 있어서는 기혼층에 비해 미혼층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해예방 노력에 있어서는 미혼층에 비해 기혼층들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 정부의 안전확보 노력은 법제 및 정책 집행면에서는 부부가구 및 미취학2세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평가의식을 나타냈으며 미혼차별의 문제는 미취학2세대가 3.99점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
  - 소비자의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 및 위해예방 노력에 있어서는 취학2세대 가구가 각각 3.00점 및 3.36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형태별로는 농축산 농민들의 소비자안전 노력은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3.5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비자의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 및 위해예방 노력에 있어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각각 2.97점과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들은 각각 2.77점과 3.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농축산 농민, 가공·제조업자, 유통업자, 급식업체 등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는 부산지역 거주자들이, 정부의 법제·정책의 효과적 집행 및 소비자의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는 인천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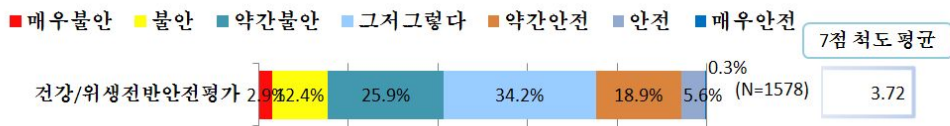


### 4.2.3 건강·위생에 관한 안전 의식

#### 1) 건강·위생 전반의 안전성 평가

- ‘요즘의 건강·위생 관련 제품 전반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5.9%는 ‘약간 불안’, 12.4%는 ‘불안’, 2.8%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41.1%가 불안 의식을 나타냄
  - 반면, 응답자의 18.9%는 ‘약간 안전’, 5.6%는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안전’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4.7%가 요즘의 건강·위생 제품 전반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평가
- 이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강·위생 관련 제품의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건강·위생 제품 전반의 안전에 대해 매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

표 4.22 건강·위생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불안	45	2.8
불안	195	12.4
약간 불안	408	25.9
그저 그렇다	540	34.2
약간 안전	298	18.9
안전	88	5.6
매우 안전	4	0.2
합계	1,578	100.0

표 4-23 건강·위생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a)
전 체		1,578	3.72		
성 별	남 자	787	3.83	14.153	0.000
	여 자	791	3.61		
연 령	20 대	372	3.71	2.401	0.048
	30 대	422	3.63		
	40 대	370	3.85		
	50 대	245	3.77		
	60대 이상	169	3.59		
학 령	중졸이하	109	3.70	0.359	0.782
	고 졸	597	3.74		
	대 졸	755	3.71		
	대학원졸	91	3.62		
직 업	사무기술직	169	3.59	1.875	0.070
	생 산 직	48	3.90		
	판매/영업직	212	3.86		
	관 리 직	118	3.75		
	공 무 원	69	3.94		
	전 문 직	206	3.69		
	전업주부	276	3.58		
	학 생	137	3.77		
소 득	100만원미만	74	3.78	0.544	0.775
	100 ~ 200만원	316	3.72		
	200 ~ 300만원	426	3.73		
	300 ~ 400만원	350	3.71		
	400 ~ 500만원	182	3.81		
	500 ~ 600만원	98	3.63		
	600만원이상	95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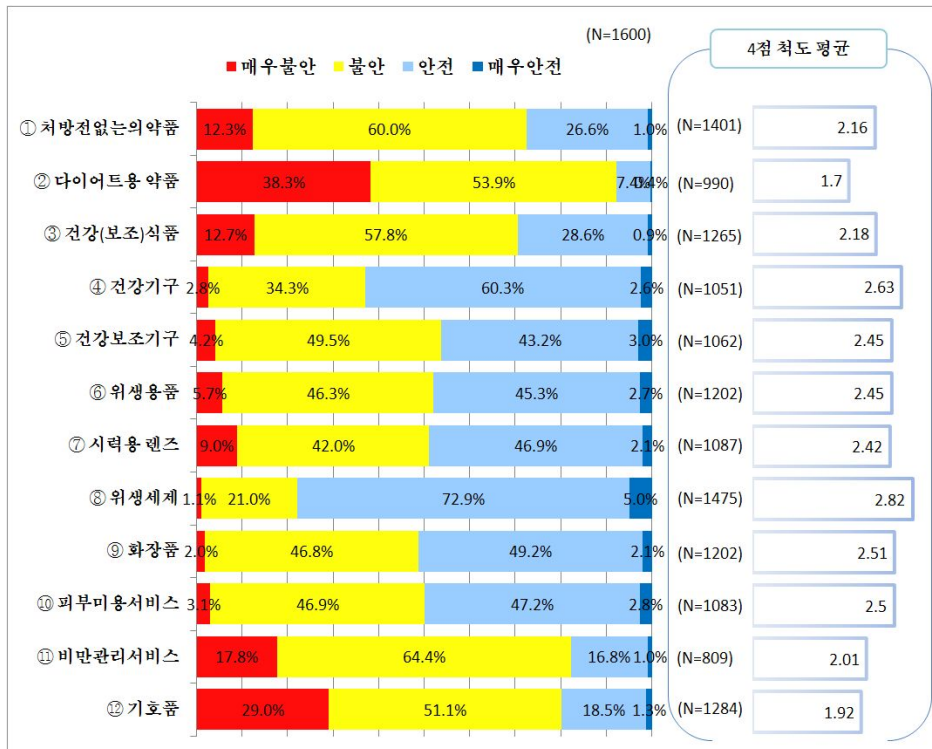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78	3.72		
혼 인	기 혼	1,043	3.71	0.001	0.974
	미 혼	461	3.71		
취 업	맞 벌 이	453	3.77	1.869	0.172
	외 벌 이	543	3.66		
세 대	독신가구	154	3.62	1.115	0.351
	부부가구	280	3.63		
	미취학2세대	157	3.75		
	취학2세대	375	3.75		
	성인자녀2세대	485	3.72		
	3세대가구	97	3.90		
주택 형태	아 파 트	877	3.71	0.934	0.423
	단독주택	325	3.67		
	다세대/다가구	147	3.69		
	연립·빌라	176	3.85		
지 역	서 울	429	3.64	4.012	0.001
	부 산	250	4.01		
	대 구	219	3.70		
	광 주	162	3.70		
	대 전	161	3.79		
	인 천	217	3.62		
	울 산	140	3.52		

- 이러한 일반 소비자들의 건강·위생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7점 척도로 환산하면 3.72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4.0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성, 연령, 직업 및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안전성 평가 인식에 차이
- 성별로는 남성의 건강·위생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3.83점을 나타내는데 반해 여성은 3.61점으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건강·위생 제품 전반의 안전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냄
-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이 이론적 평균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85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노령층은 3.59점으로 가장 낮은 건강·위생 안전, 즉 가장 높은 불안감을 나타냄
- 직업별로는 공무원 계층의 건강·위생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이 3.94점으로 이론적 평균점에 근접하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안전 인식을 나타냄
  - 반면, 전업주부 계층 및 사무기술직 종사자들은 각각 3.58점 및 3.59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건강·위생 제품 전반에 대한 보다 낮은 안전 인식, 즉 가장 높은 위해불안 인식을 나타냄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거주자들이 4.01점의 건강·위생 제품 전반의 안전 인식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지역 거주자들이 3.5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 인식을 나타냄

## 2) 품목별 안전성 평가

-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 응답자들이 건강·위생 제품 전반의 안전에 대해 상당한 위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위생세제의 안전성 인식이 7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건강기구 62.9%, 화장품 51.2%, 피부미용서비스 51.2% 등의 순으로 건강·위생 제품 관련 안전성 인식을 나타냄
  - 반면, 다이어트용 약품이 7.8%로 가장 낮은 안전성을 나타냈으며, 비만관리서비스가 17.8%, 음주·흡연 19.9%, 처방전 없는 의약품 27.6%, 건강(보조)식품 29.5% 등의 순으로 위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4 건강·위생 전반의 품목별 안전성 평가 인식



□ 이러한 분석결과는 건강·위생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해불안감이 높은지 또는 안전성이 높은지의 구분은 해당 제품을 음용 또는 섭취하느냐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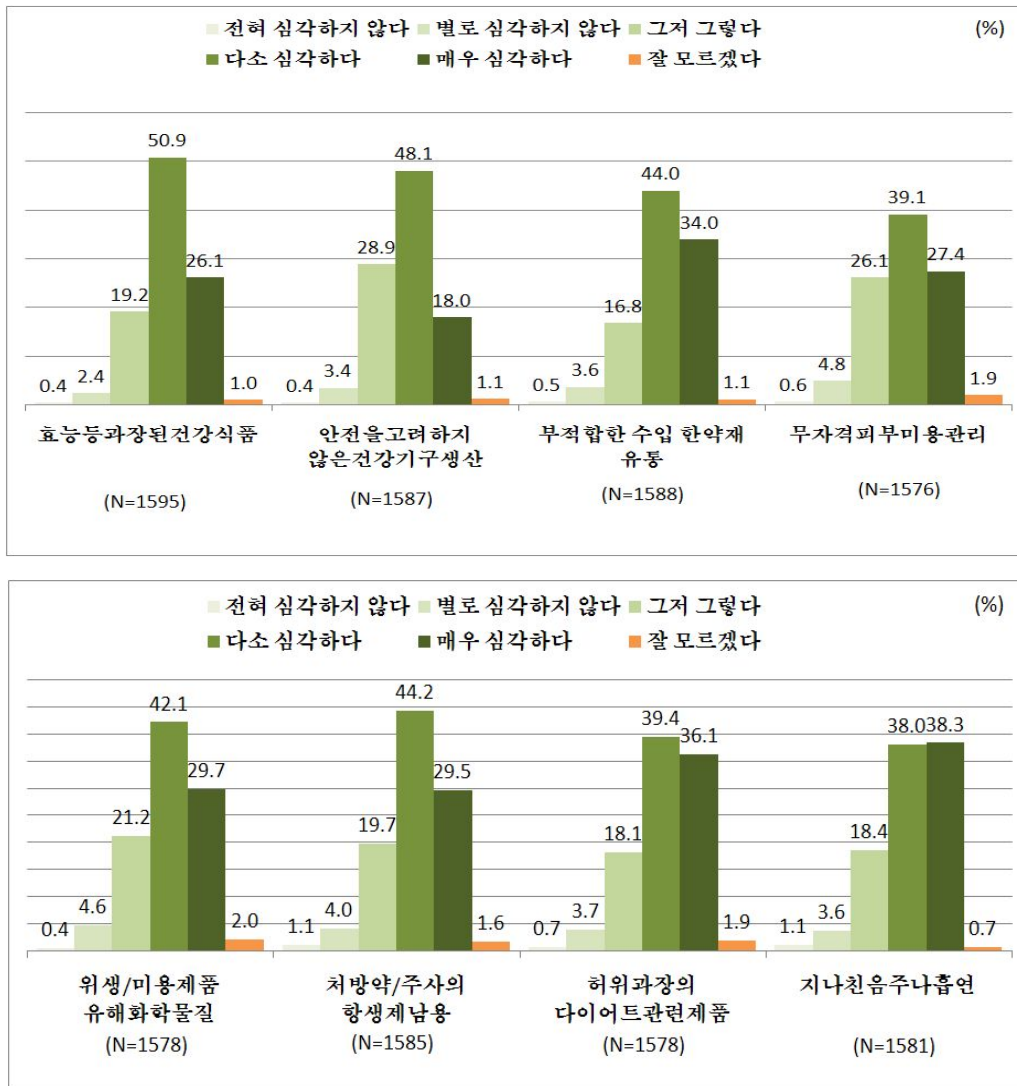
○ 즉, 건강·위생 관련 제품 중 소비자 입장에서의 안전 인식이 높은 품목들은 위생세제, 건강기구, 화장품, 피부미용서비스 등과 같이 음용 또는 섭취하는 것 없이 신체 단련 또는 미용과 관련

○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위해불안감이 높은 품목들은 다이어트용 약품, 비만관리서비스, 음주 및 흡연, 처방전 없는 의약품, 건강(보조) 식품 등과 같이 음용 또는 섭취를 통해 소비·이용이 이루어지는 특성

### 3)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 건강·위생 품목군과 관련한 다양한 위해요인 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위해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흡연이 4.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 유통이 4.09점으로 그 다음을 나타냄

표 4-25 건강·위생 전반의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인식





- 그 다음으로는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4.09점, 효능 등이 과장된 건강식품이 4.01점 등을 나타냄
- 이와 같이 건강·위생 관련 위해요인에 대한 심각성이 특히 높은 것은 이들 품목들이 음용 또는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 회복이 매우 어려운 품목 특성에 기인
- 이에 따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건강·위생 품목에 대한 높은 위해발생 가능성과 함께 그 위해요인 심각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

4)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 건강·위생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 사업자의 소비자 안전 노력 및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 등은 해당 항목 모두가 이론적 평균값 이하를 나타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자 차원의 소비자안전 노력에 있어서 관련 사업자 전체, 유통업자 및 관련 서비스 업체 중에서 ‘해당 업자들이 이익보다 소비자안전을 중시한다’는 견해에 대한 인식이 2.43점으로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유통업자의 소비자안전 중시는 2.54점을 나타냈으며,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안전 중시는 2.72점을 나타내 사업자 차원의 소비자안전 노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26 건강·위생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

구분	사례수 (명)	응답 분포 (%)					평균 (점)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자	업자들은 이익보다 소비자 안전을 중시	1,591	1.4	11.6	31.5	39.8	15.7	2.43
	유통업자들은 소비자 안전을 중시	1,588	0.7	11.8	39.5	37.1	10.9	2.54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안전을 중시	1,586	0.9	14.0	47.7	30.7	6.7	2.72
정부	관련 법제·정책은 잘 관리·집행	1,588	1.1	10.3	46.9	32.6	9.1	2.62
	건강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	1,584	1.1	11.2	45.0	33.3	9.5	2.61
소비자	건강을 위한 정기적 신체검사 및 운동	1,586	4.0	28.1	34.7	25.5	7.6	2.95
	건강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관련 정보 부족	1,590	3.8	35.1	42.7	15.5	2.9	3.21



-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제·정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집행이 2.62점, 건강 위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이 2.61점을 나타내 소비자 입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는 건강을 위한 정기적인 신체검사 및 운동은 2.95점으로 근소한 부정 인식을, 건강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관련 정보 부족은 3.21점으로 다소간의 긍정 인식을 나타냄
  - 이는 소비자 스스로 건강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이를 적절히 실천하지 못하고, 정기적인 신체검사 및 운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이러한 건강·위생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 성별로는 정부의 위해정보 관리 및 소비자의 관련 정보 부족 등 인식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보의 위해정보 관리 노력에 있어서는 남성이 2.67점, 여성이 2.55점을 나타내 여성들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 소비자 차원의 건강에 관한 높은 관심과 관련 정보 부족은 남성이 3.15점인데 반해 여성은 3.28점으로 여성의 공감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사업자의 안전노력에 있어서는 30대 연령층의 경우에 업체 전체와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안전 노력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에 있어서 관련 법제·정책의 효과적 관리는 전체적으로 그 불만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의 불만이 2.5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비자 차원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 정기적 신체검사 및 운동 실천은 20대가 2.72점, 30대 2.88점, 40대 3.07점, 50대 3.09점, 60대 이상 3.21점을 나타내 나이가 많을수록 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 사업자의 안전 노력 평가에 있어서 3개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요인 모두는 공통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즉, ‘건강식품 업자들은 이익보다 소비자 안전을 중시한다’의 경우에 중  
 줄이하는 2.64점, 고졸 2.51점, 대졸 2.35점, 대학원졸 2.25점을 나타내 학  
 력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자의 안전노력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 소비자 차원에서의 정기적 신체검사 및 운동 실천 노력은 중졸이하 2.93  
 점, 고졸 2.88점, 대졸 2.98점, 대학원졸 3.23점으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대응 실천노력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사업자의 안전 노력 평가 관련 3개 요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  
 의적인 평가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생산직 종사자들은 이론적 평균  
 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냄
- 반면, 관련 업자들의 소비자 안전 중시는 공무원 계층이 2.18점, 유통업  
 자들의 안전 중시는 전문직이 2.35점,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안전 중시  
 는 전문직이 2.61점, 사무기술직이 2.60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
-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에 있어서는 관련 법제 및 정책의 효과적인  
 관리는 공무원 계층이 2.8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직 종사자들이 2.47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

표 4-27 건강·위생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서비스업체	법제·정책	위해정보	건강 노력	정보부족
전 체		2.43	2.54	2.72	2.62	2.61	2.95	3.21
성 별	남 자	2.43	2.53	2.69	2.64	2.67	2.97	3.15
	여 자	2.43	2.56	2.74	2.59	2.55	2.94	3.28
	F	0.000	0.608	1.362	1.265	8.303***	0.325	0.137***
연 령	20 대	2.50	2.59	2.70	2.60	2.60	2.72	3.16
	30 대	2.29	2.42	2.68	2.55	2.55	2.88	3.21
	40 대	2.49	2.60	2.79	2.73	2.70	3.07	3.29
	50 대	2.44	2.55	2.73	2.65	2.63	3.09	3.18
	60대 이상	2.49	2.64	2.69	2.52	2.57	3.21	3.21
	F	3.360**	3.352**	1.023	3.095**	1.683	10.934***	1.080
학 력	중졸이하	2.64	2.76	2.78	2.56	2.55	2.93	3.30
	고 졸	2.51	2.62	2.78	2.67	2.68	2.88	3.21
	대 졸	2.35	2.47	2.66	2.60	2.59	2.98	3.24
	대학원졸	2.25	2.35	2.65	2.52	2.53	3.23	3.09
	F	6.242***	7.543***	2.631**	1.617	1.821	3.566**	1.229
직 업	사무기술직	2.35	2.45	2.60	2.58	2.61	3.00	3.11
	생 산 직	2.63	2.78	2.84	2.65	2.67	2.69	3.12
	판매/영업직	2.59	2.65	2.79	2.78	2.78	2.99	3.25
	관 리 직	2.38	2.45	2.82	2.55	2.55	3.03	3.34
	공 무 원	2.18	2.49	2.67	2.83	2.75	3.35	3.37
	전 문 직	2.33	2.35	2.61	2.47	2.48	2.87	3.20
	전업주부	2.46	2.57	2.79	2.64	2.63	3.17	3.36
	학 생	2.45	2.68	2.76	2.61	2.57	2.53	3.14
	F	2.653**	3.559***	2.087**	3.072***	2.470**	8.061***	2.255**
소 득	100만원미만	2.66	2.74	2.90	2.64	2.68	2.99	3.14
	100~200만원	2.50	2.54	2.73	2.64	2.64	2.89	3.22
	200~300만원	2.47	2.60	2.76	2.64	2.60	2.83	3.20
	300~400만원	2.36	2.52	2.71	2.65	2.66	2.98	3.25
	400~500만원	2.40	2.52	2.72	2.57	2.56	3.09	3.23
	500~600만원	2.18	2.29	2.46	2.41	2.45	3.27	3.23
	600만원이상	2.43	2.51	2.67	2.55	2.59	3.09	3.21
	F	2.850***	2.617**	2.546**	1.494	1.062	4.066***	0.256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서비스업체	법제·정책	위해정보	건강 노력	정보부족	
전 체	2.43	2.54	2.72	2.62	2.61	2.95	3.21	
혼 인	기 혼	2.40	2.53	2.72	2.62	2.62	3.03	3.24
	미 혼	2.47	2.56	2.73	2.60	2.59	2.76	3.14
	F	1.948	0.553	0.042	0.113	0.270	24.783***	4.814**
취 업	맞 벌 이	2.37	2.50	2.71	2.63	2.63	2.94	3.27
	외 벌 이	2.41	2.54	2.70	2.60	2.60	3.10	3.23
	F	0.421	0.627	0.025	0.219	0.359	6.529**	0.448
세 대	독신가구	2.51	2.57	2.77	2.72	2.69	2.85	3.12
	부부가구	2.51	2.59	2.70	2.62	2.58	3.08	3.23
	미취학2세대	2.29	2.39	2.70	2.54	2.57	2.85	3.24
	취학2세대	2.35	2.50	2.73	2.64	2.66	3.00	3.17
	성인자녀2세대	2.47	2.60	2.73	2.59	2.57	2.91	3.26
	3세대가구	2.34	2.43	2.61	2.60	2.65	3.06	3.26
	F	2.338**	2.094*	0.534	0.910	0.833	2.085*	1.000
주 택 형 태	아 파 트	2.40	2.51	2.69	2.62	2.61	3.09	3.23
	단독주택	2.48	2.60	2.76	2.58	2.62	2.86	3.23
	다세대/다가구	2.39	2.53	2.69	2.62	2.57	2.62	3.10
	연립·빌라	2.57	2.65	2.78	2.68	2.66	2.81	3.21
	F	2.086	1.836	0.983	0.585	0.346	13.043***	1.069
지 역	서 울	2.40	2.47	2.64	2.54	2.54	2.99	3.18
	부 산	2.52	2.62	2.80	2.70	2.72	3.02	3.30
	대 구	2.32	2.47	2.73	2.52	2.53	2.86	3.32
	광 주	2.46	2.56	2.68	2.71	2.64	2.86	3.14
	대 전	2.23	2.52	2.73	2.64	2.60	3.02	3.21
	인 천	2.69	2.70	2.77	2.72	2.71	2.94	3.14
	울 산	2.33	2.52	2.76	2.54	2.57	2.91	3.19
	F	5.421***	2.475**	1.318	2.754**	2.092*	1.012	1.611

- 정부의 위해정보 관리와 관련해서는 학생 및 관리직 종사자들이 각각 2.57점과 2.55점으로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으며 상대적으로 판매/영업직 종사자들이 2.78점으로 가장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 차원에서의 정기적 신체검사 및 운동 실천 노력에 있어서는 공무원 계층이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계층은 2.53점으로 가장 낮은 운동 실천 노력을 나타냄
  -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련 정보 부족은 사무기술직과 생산직이 각각 3.11점과 3.12점으로 가장 낮은 공감을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공무원, 전업주부 및 관리직 계층의 공감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별 사업자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 관련 업자 및 유통업자들의 안전 중시 노력은 6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사업자에 대한 안전 노력 평가 또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
- 관련 서비스 업체들의 서비스 안전 중시와 관련해서는 500만원대 소득 계층이 2.4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반면 100만원 미만 계층은 2.90점으로 가장 낮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 차원에서의 정기적 신체검사 및 운동 실천 노력에 있어서는 400만원 소득을 경계로 대체로 그 미만 계층에 비해 그 이상 계층의 실천 노력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남
- 혼인여부에 있어서는 소비자 차원의 2개 변수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강 실천노력의 경우는 미혼층이 2.76점인데 반해 기혼층은 3.03점으로 기혼층의 건강 실천노력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소비자의 건강에 관한 높은 관심과 관련 정보 부족은 기혼층이 3.24점, 미혼층이 3.14점으로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더 높은 공감을 나타냄
- 주부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소비자 건강실천 노력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취업주부 가구는 2.94점, 전업주부 가구는 3.10점을 나타내 전업주부 가구의 실천노력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세대별로는 전체 7개 이해당사자 노력 요인 중 업자 및 유통업자의 안전 노력, 소비자의 건강실천 노력 등 3개 요인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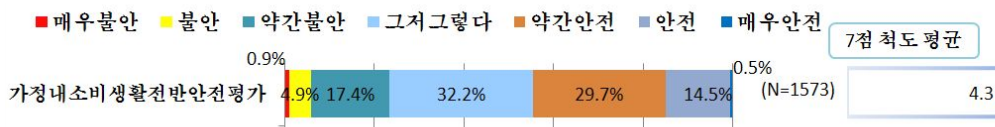
- 관련 업자들의 안전 노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독신가구 및 부부가구의 평가가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미취학2세대 가구는 2.29점으로 이들 사업자의 안전 노력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 유통업자들의 안전 노력에 있어서도 미취학2세대 가구가 2.39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으며 성인자녀2세대 가구는 2.6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의 건강 실천노력에 있어서는 부부가구가 3.08점으로 가장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냈으나 독신가구 및 미취학2세대 가구는 각각 2.8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건강 실천노력을 나타냄
- 주택형태별로는 총 7개의 이해당사자 노력 평가 항목 중 소비자 건강 실천 노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의 건강 실천노력이 3.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들은 2.62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건강 실천노력을 나타냄
- 지역별로는 사업자 안전노력 2개 항목 및 정부 관리노력 2개 항목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인식차이를 나타냄
- 사업자 안전노력에 있어서 관련 업자들의 안전노력 및 유통업자들의 안전노력은 인천 지역 거주자들이 각각 2.69점 및 2.70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사업자들의 안전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남
  - 정부 관리노력에 있어서 법제 및 정책의 관리는 인천, 광주 및 부산 거주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반면 대구, 서울 및 울산 등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정부의 위해정보 관리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부산 및 인천 거주자들이 보다 낮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반면 대구와 부산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4.2.4 주생활 (가정내 소비생활)에 관한 안전 의식

##### 1) 주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 ‘집안에서의 소비생활 전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7.4%는 ‘약간 불안’, 4.9%는 ‘불안’, 0.9%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23.2%가 불안 의식을 나타냄
  - 반면, 응답자의 19.6%는 ‘약간 안전’, 14.5%는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안전’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44.6%가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평가
- 이는 가정내에서의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2배 가량 높게 나타나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

표 4.28 주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불안	14	0.9
불 안	77	4.9
약간 불안	273	17.4
그저 그렇다	506	32.2
약간 안전	467	29.6
안 전	228	14.5
매우 안전	8	0.5
합 계	1,573	100.0

표 4-29 주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73	4.30		
성 별	남 자	784	4.37	4.930	0.027
	여 자	789	4.27		
연 령	20 대	373	4.31	2.563	0.037
	30 대	419	4.21		
	40 대	371	4.32		
	50 대	245	4.49		
	60대 이상	165	4.24		
학 령	중졸이하	106	4.15	1.084	0.355
	고 졸	596	4.32		
	대 졸	756	4.29		
	대학원졸	89	4.43		
직 업	사무기술직	169	4.27	1.429	0.189
	생 산 직	49	4.41		
	판매/영업직	213	4.47		
	관 리 직	117	4.21		
	공 무 원	67	4.36		
	전 문 직	207	4.26		
	전업주부	275	4.21		
	학 생	137	4.43		
소 득	100만원미만	75	4.05	1.458	0.189
	100 ~ 200만원	315	4.28		
	200 ~ 300만원	422	4.27		
	300 ~ 400만원	351	4.34		
	400 ~ 500만원	180	4.40		
	500 ~ 600만원	100	4.28		
	600만원이상	94	4.49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73	4.30		
혼 인	기 혼	1,037	4.33	1.252	0.263
	미 혼	462	4.26		
취 업	맞 벌 이	451	4.40	3.599	0.058
	외 벌 이	538	4.26		
세 대	독신가구	154	4.16	1.278	0.271
	부부가구	273	4.34		
	미취학2세대	157	4.27		
	취학2세대	375	4.36		
	성인자녀2세대	485	4.28		
	3세대가구	98	4.47		
주택 형태	아 파 트	871	4.33	1.474	0.220
	단독주택	322	4.33		
	다세대/다가구	147	4.12		
	연립·빌라	177	4.29		
지 역	서 울	429	4.31	1.651	0.130
	부 산	249	4.47		
	대 구	219	4.22		
	광 주	162	4.33		
	대 전	160	4.36		
	인 천	214	4.18		
	울 산	140	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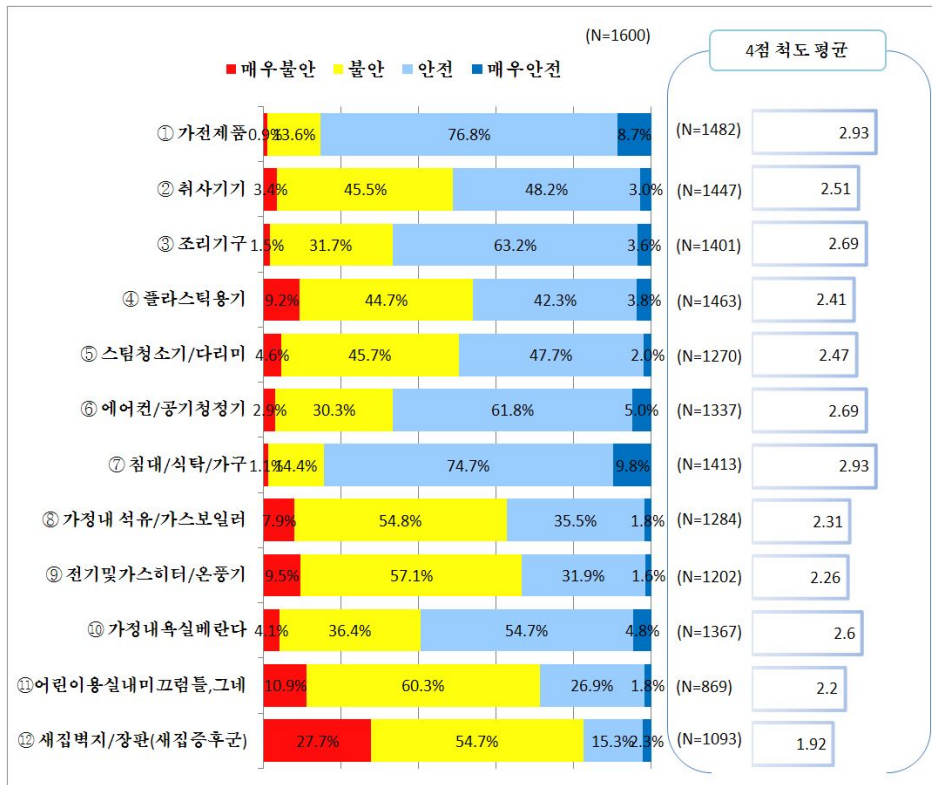
- 이러한 일반 소비자들의 주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7점 척도로 환산하면 4.30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4.0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성, 연령 및 주부취업 여부 등 특성에 따라 가정내 소비생활 안전성 평가 인식에 차이
- 성별로는 남성의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4.37점을 나타내데 반해 여성은 4.27점을 나타내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연령별로는 50대 연령층의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인식이 4.4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연령층은 4.2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성 인식을 나타냄
- 주부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주부 가구의 주생활 안전성 인식은 4.40점인데 반해 전업주부 가구의 안전성 인식은 4.26점을 나타내 전업주부 가구에 비해 취업주부 가구의 주생활 안전성 인식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은 이론적 평균점 이상의 안전 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 50대 연령층, 전업주부 가구보다는 취업주부 가구의 안전성 인식이 보다 높게 나타남

## 2) 품목별 안전성 평가

-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성이 높은 품목은 85.5%를 나타낸 가전제품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침대/식탁/거실 가구가 84.6%, 에어컨/공기청정기 66.8%, 조리기구 66.8%, 가정내 욕실 및 베란다 5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새집벽지/장판은 17.6%의 가장 낮은 안전성을 나타냈으며, 어린이용 실내 미끄럼틀이 28.7%, 전기 및 가스히터/온풍기가 33.4%, 가정내 석유/가스 보일러 37.3% 등의 순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정내 소비생활 제품 중에서 가전, 가구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지만, 난방기구, 새집증후군, 어린이 놀이

기구 등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

표 430 주생활 전반의 품목별 안전성 평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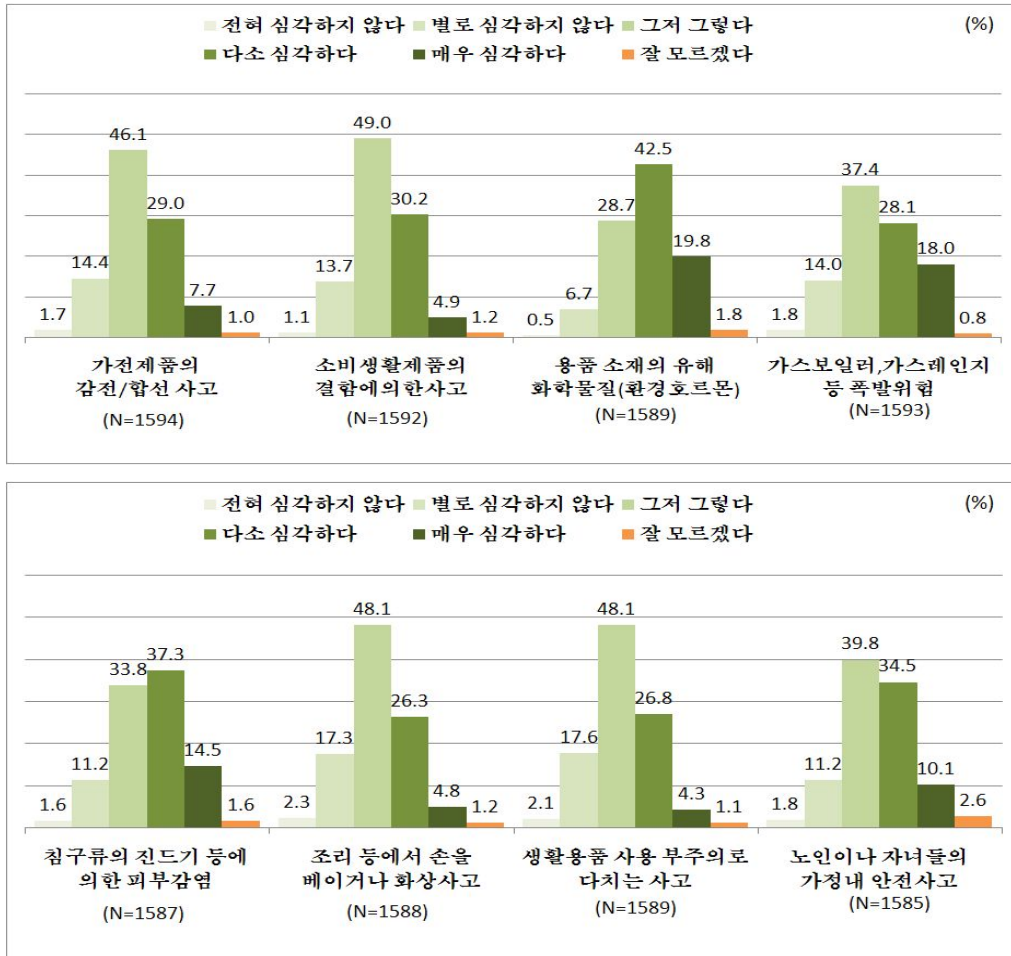


○ 특히, 새집벽지/장판 등 새집증후군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위해요소임에도 위해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방송·언론에서 생점이 되고 있는 위해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

### 3)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 주생활 전반의 위해요인 중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높은 심각성을 나타낸 위해요인은 용품소재의 유해 화학물질이 3.76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침구류의 진드기 등 피부감염이 3.53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

표 431 주생활 전반의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인식



○ 다음으로는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폭발위험이 3.47점, 노인이나 자녀들의 가정내 안전사고 3.41점, 가전제품의 감전/합선 사고 3.27점의 순으로 위해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가정내 소비생활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특징은 환경호르몬 위해불안 또는 피부감염 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폭발위험 또는 노약자 안전사고 등 위험 역시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

4)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 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차원에서의 제조업체의 안전노력은 3.39점, 유통업체의 안전노력이 3.20점으로 이들 사업자들의 안전노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
- 반면, 주생활 관련 업체의 다양한 사고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2.88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이하를 나타내 다소간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표 4.32 주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

구 분	사례수 (명)	응답 분포 (%)					평균 (점)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자	제조업체의 안전한 제품생산 노력	1,592	4.1	42.4	42.7	9.9	1.0	3.39
	유통업체의 소비자안전 노력	1,585	2.0	32.6	50.6	13.2	1.6	3.20
	주생활 관련 업체의 다양한 사고정보 제공	1,586	1.6	20.4	46.4	27.4	4.2	2.88
정부	가정내 소비생활 안전제도 운영	1,584	1.2	16.4	51.4	25.6	5.4	2.82
	가정내 위해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1,578	1.5	13.6	48.9	29.3	6.8	2.74
소비자	가정내 안전사고 정보와 지식의 충분한 인지	1,588	3.0	27.4	48.9	17.6	3.1	3.10
	안전생활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	1,594	3.6	33.0	44.9	15.0	3.5	3.18

- 이는 주생활 전반에 있어서 관련 업체의 안전한 제품생산 노력 또는 유통업체의 안전 노력은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양한 사고정보 제공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
- 정부와 관련한 소비자안전 노력에 대해서는 안전제도 운영 관점이 2.82점, 위해정보 관리 관점이 2.74점으로 나타나 가정내 소비생활 관련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한 신뢰를 이끌어내지 못함을 의미
- 소비자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는 가정내 안전사고 정보와 지식의 충분한 인지와 관련해서는 3.10점, 안전생활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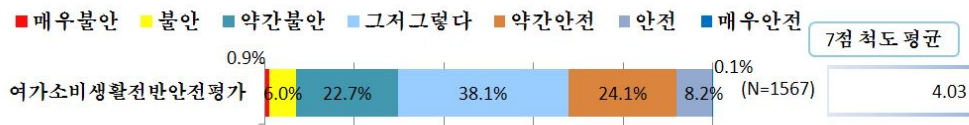
- 도 3.18점을 나타내 두 요인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냄
- 이상의 주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요약해 보면,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안전노력과 자신들의 안전대응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의 안전관리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
  - 특히, 사업자든 정부든지 간에 위해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2.5 여가 소비생활에 관한 안전 의식

##### 1)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 ‘요즘 여가 소비생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2.7%는 ‘약간 불안’, 6.0%는 ‘불안’, 0.9%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29.6%가 불안 의식을 나타냄
- 이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최근의 여가 소비생활 전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가 소비생활 전반이 안전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음을 시사

표 433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불안	14	0.9
불 안	94	6.0
약간 불안	355	22.7
그저 그렇다	597	38.0
약간 안전	378	24.1
안 전	128	8.2
매우 안전	1	0.1
합 계	1,567	100.0

표 434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67	4.03		
성 별	남 자	784	4.08	2.634	0.105
	여 자	783	3.99		
연 령	20 대	374	4.04	4.177	0.002
	30 대	416	3.94		
	40 대	365	4.16		
	50 대	245	4.13		
	60대 이상	167	3.83		
학 력	중졸이하	108	3.77	3.659	0.012
	고 졸	591	4.11		
	대 졸	750	4.03		
	대학원졸	91	3.91		
직 업	사무기술직	166	4.01	1.009	0.423
	생 산 직	49	4.14		
	판매/영업직	212	4.20		
	관 리 직	119	3.92		
	공 무 원	65	4.09		
	전 문 직	206	4.06		
	전업주부	274	4.01		
	학 생	138	4.06		
소 득	100만원미만	74	3.77	1.643	0.132
	100 ~ 200만원	310	4.03		
	200 ~ 300만원	425	4.00		
	300 ~ 400만원	347	4.02		
	400 ~ 500만원	180	4.18		
	500 ~ 600만원	98	4.13		
	600만원이상	96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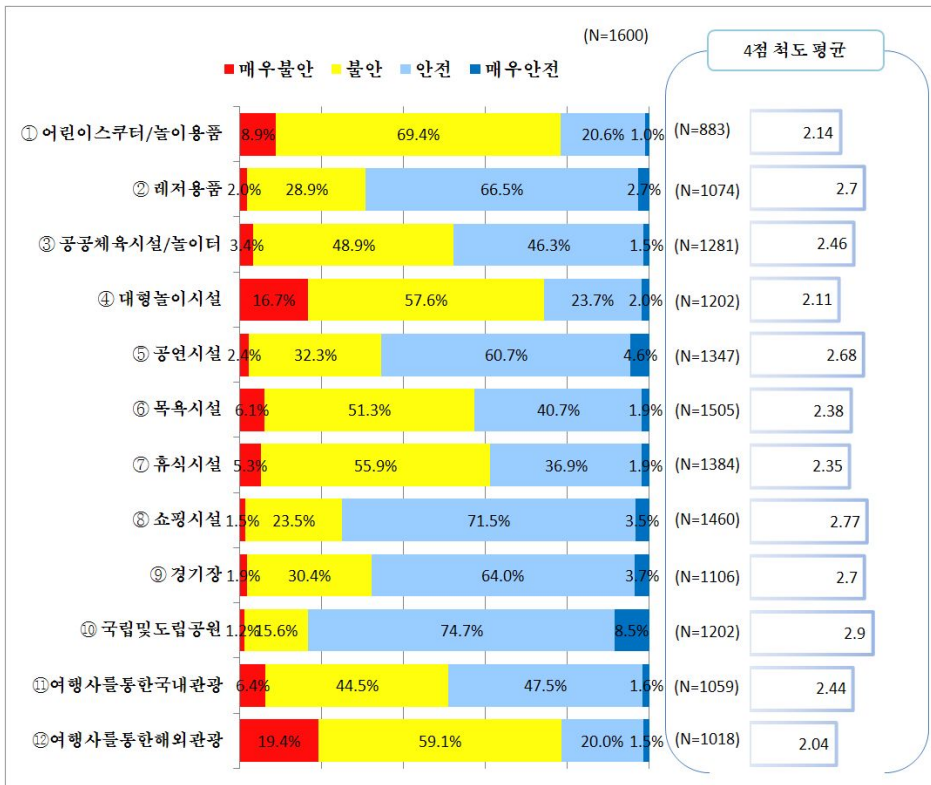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67	4.03		
혼 인	기 혼	1029	4.08	5.115	0.024
	미 혼	464	3.95		
취 업	맞 벌 이	447	4.13	1.117	0.291
	외 벌 이	535	4.06		
세 대	독신가구	154	3.84	1.825	0.105
	부부가구	274	4.01		
	미취학2세대	153	4.02		
	취학2세대	372	4.14		
	성인자녀2세대	484	4.04		
	3세대가구	98	3.98		
주택 형태	아 파 트	870	4.07	2.543	0.055
	단독주택	320	3.91		
	다세대/다가구	147	3.93		
	연립·빌라	175	4.11		
지 역	서 울	429	3.98	1.283	0.262
	부 산	249	4.18		
	대 구	218	4.08		
	광 주	160	3.97		
	대 전	157	4.06		
	인 천	216	3.98		
	울 산	138	3.98		

- 이러한 일반 소비자들의 여가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인식은 7점 척도로 환산하면 4.03점으로 이론적 평균점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 학력, 혼인여부, 세대 및 지역 등 특성에 따라 평가 인식에 차이
- 연령별로는 40대 연령층이 4.16점, 50대가 4.13점을 나타내 이들 계층의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 노령층은 3.83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이하의 가장 높은 위해불안감을 나타냄
- 학력별로는 고졸 및 대졸 계층의 여가 소비생활에 대한 안전의식이 각각 4.11점과 4.03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이상의 긍정인식을 나타낸 반면 중졸 이하 계층은 3.77점으로 가장 낮은 안전인식을 나타냄
- 혼인여부별로는 기혼층의 여가 소비생활 안전인식이 4.08점인데 반해 미혼층은 3.95점을 나타내 기혼층은 긍정적 안전인식을 나타낸 반면 미혼층은 오히려 여가 소비생활에서의 위해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
- 세대별로는 취학 2세대 가구의 여가 소비생활 안전인식이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신가구는 3.84점으로 가장 낮은 안전인식을 나타냄
- 주택형태별로는 상대적으로 연립·빌라 거주자 및 아파트 거주자들은 여가 소비생활 관련 긍정적 안전의식을 나타낸 반면 단독주택 및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들은 오히려 위해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 품목별 안전성 평가

- 여가 소비생활 관련 품목별 안전과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성이 가장 높은 품목은 국립 및 도립공원이 83.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쇼팽시설이 75.0%, 레저용품 69.2%, 경기장 67.7%, 공연시설 65.3%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안전성이 높은 여가 소비생활 품목 특성은 주로 관람 측면이 강조되어 사고위험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등산/낚시/골프 등 레저용품의 경우도 해당 용품이 레저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도구 측면이 강조
- 반면, 상대적으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은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이 21.5%로 가장 낮은 안전인식을 나타냈으며, 어린이 스쿠터/놀이용품

이 21.6%, 대형 놀이시설이 25.7%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5**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품목별 안전성 평가 인식



○ 이들 위해불안감이 높은 여가 소비생활 품목들 특성은 어린이 스쿠터나 놀이용품과 같이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가 빈번하다거나 해외관광 및 대형놀이시설 경우는 최근 대형 참사 발생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

□ 결국 여가 소비생활 안전성에 있어서 관련 품목간에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 스스로의 직접적인 위해경험보다는 대형 참사 등 간접 위해경험에 의해 위해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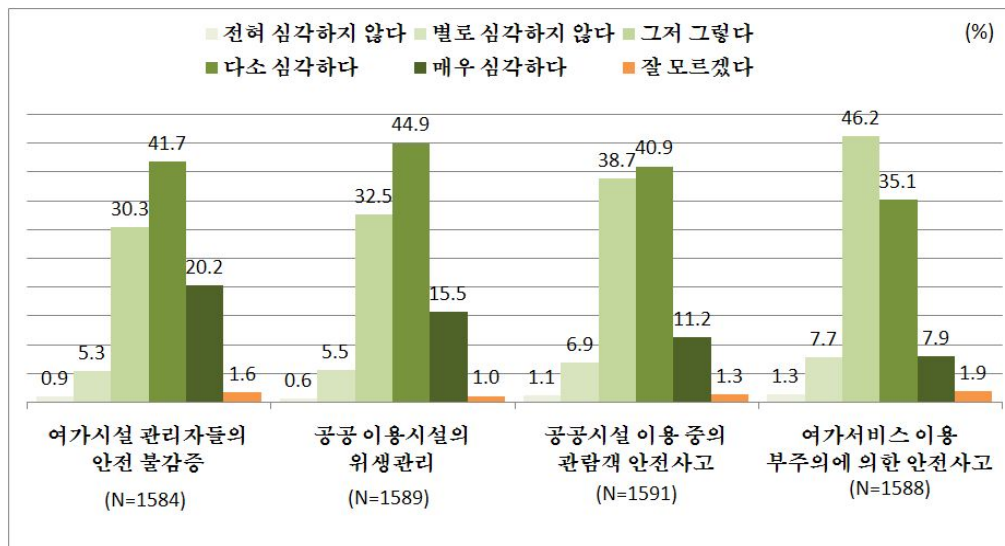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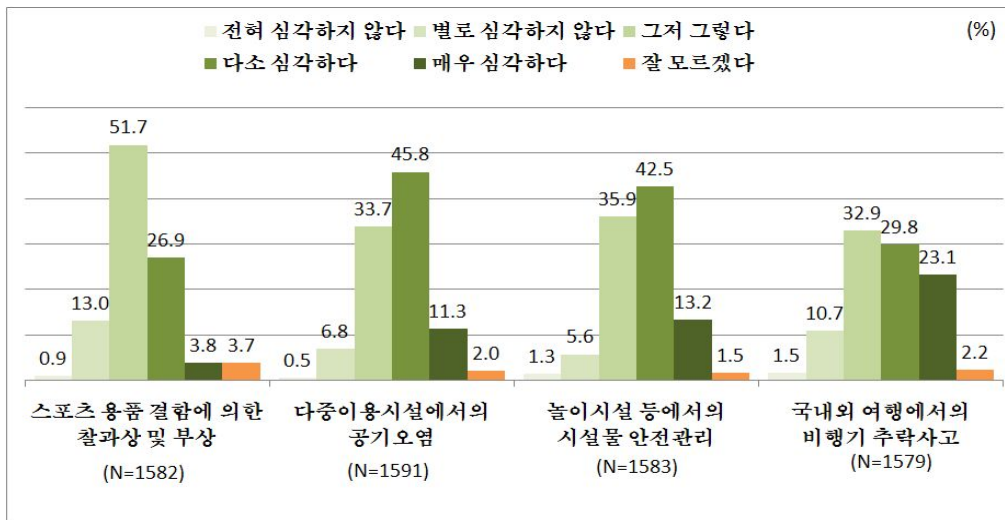
### 3)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 여가 소비생활 관련 많은 위해요인 중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위해 심각성이 가장 높은 위해요인은 여가시설 관리자 등의 안전불감증이 3.76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이용시설의 위생관리가 3.70점으로 그 다음을 차지

- 다음으로는 국내외 여행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가 3.64점을,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오염 및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가 각각 3.62점, 공공시설 이용중의 관람객 안전사고가 3.55점을 나타냄

표 436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인식





- 소비자 입장에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위해요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관리자 인식 및 시설물 관리 미흡에 기인하며, 비행기 추락사고와 같이 대형참사에 대한 간접경험이 위해요인별 심각성을 높이는 경향

4)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차원에서의 시설 운영자 안전노력은 3.16점으로 비교적 긍정적 입장

표 437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

구분	사례수 (명)	응답 분포 (%)					평균 (점)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자	놀이시설 운영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1,586	2.4	33.5	45.2	15.8	3.2	3.16
	업체들은 돈벌이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	1,590	9.7	40.6	36.8	11.7	1.1	3.46
	여행업체는 여행객 안전정보를 충분히 제공	1,573	1.1	15.8	52.4	26.8	3.9	2.83
정부	여가 소비생활 전반을 잘 관리	1,581	0.9	10.6	53.1	28.5	6.8	2.70
	관련 위해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	1,580	1.3	13.2	50.6	27.7	7.2	2.74
소비자	여가생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정보 보유	1,587	2.0	21.6	52.2	21.1	3.2	2.98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 실천	1,593	2.6	31.1	46.8	15.9	3.6	3.13

○ 반면, 업체들의 안전을 무시한 돈벌이 추구 관행에 대해서는 3.46을 나타내 이에 대한 공감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행객에 대한 충분한 안전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2.83점으로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응

- 정부 차원에서는 여가 소비생활 운용 측면은 2.70점, 관련 위해정보 관리 측면은 2.74점을 나타내 소비자 입장에서의 여가 소비생활에 대한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 전반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 소비자 차원에서의 관련 생활안전 정보 보유는 2.98점, 안전한 여가 소비 생활 실천은 3.13점을 나타내 여가 소비생활 관련 안전한 생활 실천 노력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관련 정보 보유는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함을 나타냄
- 한편, 이러한 여가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에 대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 보면, 성별로는 소비자 차원의 관련 안전정보 보유에 있어서 남성은 3.07점으로 긍정적인데 반해 여성은 2.89점으로 부정적으로 인식
- 연령별로는 사업자 차원에서의 관련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의 경우에 30대 연령층은 2.7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정 인식을 나타낸 반면 20대와 50대 연령층은 각각 2.91점으로 가장 낮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학력별로는 시설 운영자의 사고예방 노력, 업체의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 및 정부의 제도의 효과적 운용 등에서 중졸이하를 제외하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보다 긍정인식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정부의 관련 정보의 적시 제공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고졸 및 대졸 계층이 각각 2.78점과 2.74점으로 보다 높은 긍정인식을 나타냄
- 직업별로는 업체의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 정부의 제도의 효과적 운용 및 정부의 관련 정보의 적시 제공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생산직 종사자의 긍정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이상의 3개 이해당사자별 대응노력에 있어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3개 요인 모두에서 가장 낮은 긍정인식을 나타냄
- 소득별로는 소비자 차원의 2개 요인과 관련해서만 유의적인 평가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 정보 보유 관점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긍정인식이 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300만원 소득계층을 경계로 그 미만 계층은 소비자의 관련 정보의 충분한 보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그 이상 계층은 긍정 인식을 나타냄
  -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 가운데 300만원 소득계층을 경계로 그 이하 계층에 비해 그 이상 계층의 긍정 인식이 보다 높게 나타남



표 438 여가 소비생활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시설운영자	관련업체	업체 정보	전반 관리	위해정보	정보 인지	안전 실천
전 체		3.16	3.46	2.83	2.70	2.74	2.98	3.13
성 별	남 자	3.19	3.45	2.84	2.73	2.77	3.07	3.16
	여 자	3.13	3.47	2.83	2.68	2.71	2.89	3.11
	F	2.200	0.192	0.234	1.655	2.475	21.498***	1.599
연 령	20 대	3.12	3.47	2.91	2.74	2.79	2.98	3.10
	30 대	3.15	3.45	2.71	2.58	2.68	2.92	3.03
	40 대	3.25	3.40	2.87	2.75	2.77	3.02	3.24
	50 대	3.17	3.55	2.91	2.84	2.77	3.11	3.25
	60대 이상	3.08	3.47	2.80	2.63	2.66	2.86	3.07
	F	1.627	1.282	4.336***	5.364***	1.400	3.429***	4.777***
학 력	중졸이하	3.00	3.49	2.78	2.54	2.61	2.83	3.01
	고 졸	3.22	3.47	2.90	2.74	2.78	2.97	3.14
	대 졸	3.14	3.47	2.82	2.71	2.74	3.00	3.13
	대학원졸	3.11	3.33	2.61	2.55	2.60	3.08	3.27
	F	2.741**	0.827	4.383***	3.248**	2.359*	1.953	1.691
직 업	사무기술직	3.18	3.42	2.75	2.76	2.80	3.02	3.14
	생 산 직	3.13	3.39	3.04	3.00	2.98	3.15	3.20
	판매/영업직	3.13	3.52	2.94	2.74	2.75	3.02	3.13
	관 리 직	3.14	3.51	2.82	2.67	2.67	2.99	3.14
	공 무 원	3.28	3.45	2.84	2.79	2.87	2.94	3.13
	전 문 직	3.21	3.42	2.70	2.59	2.64	2.93	3.09
	전업주부	3.15	3.57	2.80	2.66	2.68	2.92	3.15
	학 생	3.16	3.44	2.94	2.73	2.83	3.02	3.17
	F	0.377	0.891	2.642**	2.089**	2.044**	0.898	0.175
소 득	100만원미만	3.11	3.46	2.89	2.75	2.70	2.91	3.08
	100~200만원	3.14	3.42	2.85	2.67	2.80	2.91	3.09
	200~300만원	3.20	3.54	2.84	2.67	2.70	2.92	3.04
	300~400만원	3.13	3.47	2.84	2.78	2.77	3.07	3.22
	400~500만원	3.21	3.40	2.81	2.72	2.71	3.02	3.20
	500~600만원	3.16	3.49	2.79	2.68	2.71	3.03	3.24
	600만원이상	3.22	3.39	2.82	2.67	2.68	3.15	3.20
	F	0.462	1.003	0.200	0.969	0.682	2.457**	2.197**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시설운영자	관련업체	업체 정보	전반 관리	위해정보	정보 인지	안전 실천	
전 체	3.16	3.46	2.83	2.70	2.74	2.98	3.13	
혼 인	기 혼	3.18	3.46	2.81	2.68	2.72	3.01	3.19
	미 혼	3.13	3.45	2.89	2.75	2.79	2.93	3.05
	F	1.145	0.062	3.098*	2.772*	2.366	3.113*	8.823***
취 업	맞 벌 이	3.22	3.43	2.84	2.68	2.72	2.98	3.19
	외 벌 이	3.14	3.48	2.79	2.67	2.70	3.04	3.18
	F	2.021	0.773	0.805	0.025	0.066	1.301	0.016
세 대	독신가구	3.23	3.44	2.89	2.69	2.82	2.84	3.01
	부부가구	3.18	3.39	2.81	2.59	2.65	3.01	3.18
	미취학2세대	3.19	3.52	2.71	2.62	2.75	3.04	3.18
	취학2세대	3.23	3.48	2.83	2.76	2.76	3.05	3.23
	성인자녀2세대	3.09	3.49	2.89	2.77	2.76	2.96	3.09
	3세대가구	3.08	3.41	2.78	2.66	2.65	2.90	2.99
	F	1.642	0.725	1.515**	2.657	1.373	2.113*	2780**
주 택 형 태	아 파 트	3.17	3.43	2.81	2.70	2.74	3.03	3.19
	단독주택	3.10	3.51	2.90	2.73	2.70	2.90	3.07
	다세대/다가구	3.18	3.52	2.89	2.68	2.74	2.95	2.98
	연립·빌라	3.24	3.44	2.85	2.70	2.84	2.92	3.07
	F	1.206	0.939	1.359	0.119	1.098	2.527*	4.200***
지 역	서 울	3.16	3.49	2.74	2.64	2.71	2.96	3.11
	부 산	3.05	3.54	2.97	2.74	2.79	3.10	3.18
	대 구	3.18	3.49	2.90	2.58	2.65	2.93	3.09
	광 주	3.26	3.54	2.87	2.78	2.81	2.94	3.04
	대 전	3.13	3.44	2.73	2.66	2.63	2.85	3.23
	인 천	3.22	3.30	2.80	2.78	2.74	2.98	3.02
	울 산	3.19	3.36	2.91	2.88	2.93	3.12	3.34
	F	1.437	2.270**	3.559***	3.353***	2.538**	2.510**	3.030***

- 혼인여부에 있어서 사업자의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 및 정부의 관련 제도의 효과적 운용과 관련해서는 미혼층에 비해 기혼층이 상대적으로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냄
  - 소비자 차원에서의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 및 안전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세대별로는 업체의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은 상대적으로 독신가구 및 성인자녀 2세대 가구의 부정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미취학 2세대는 2.7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정 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의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에 있어서는 부부가구, 미취학 2세대, 취학 2세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낸데 반해 독신가구는 2.84점으로 가장 높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의 안전생활 실천 노력에 있어서는 역시 부부가구, 미취학 2세대, 취학 2세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낸데 반해 3세대 가구는 2.99점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 인식을 나타냄
- 주택형태별로는 소비자의 안전정보 보유에 있어서는 아파트 거주자들만이 유일하게 이론적 평균점을 상회하는 긍정 인식을 나타낸 반면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2.90점으로 가장 낮은 안전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의 안전생활 실천노력에 있어서는 역시 아파트 거주자들이 3.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들이 2.9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사업자 차원에서 업체가 돈벌이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이라는 견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산 및 광주지역이 각각 3.54점을 나타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이 3.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업체의 충분한 안전정보 제공 노력은 부산지역이 2.9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및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정부 차원의 제도 운용은 울산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위해정보 관리는 광주 지역이 가장 높고 대구 및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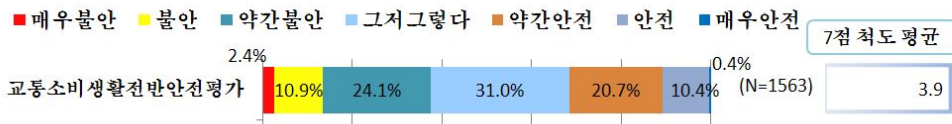
- 소비자 차원에서는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는 부산 및 울산 지역은 긍정적인 평가 인식을 나타냈으나 대전 지역은 2.8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 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의 안전생활 실천노력은 울산지역이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이 3.0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4.2.6 교통 소비생활에 관한 안전 의식

##### 1)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 ‘요즘의 출퇴근 등 교통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4.1%는 ‘약간 불안’, 10.9%는 ‘불안’, 2.4%는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37.4%가 불안 의식을 나타냄
- 이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최근의 교통 소비생활 전반이 안전하다는 비율 보다는 불안하다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전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교통 소비생활의 위해불안감을 다소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

표 439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매우 불안	37	2.4
불안	171	10.9
약간 불안	376	24.1
그저 그렇다	485	31.0
약간 안전	324	20.7
안전	163	10.4
매우 안전	7	0.4
합계	1,563	100.0

표 440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성 평가 인식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63	3.90		
성 별	남 자	781	4.03	16.359	0.000
	여 자	782	3.77		
연 령	20 대	371	3.88	3.245	0.012
	30 대	421	3.76		
	40 대	362	4.02		
	50 대	242	4.05		
	60대 이상	167	3.80		
학 령	중졸이하	109	3.86	0.679	0.565
	고 졸	587	3.93		
	대 졸	750	3.91		
	대학원졸	90	3.73		
직 업	사무기술직	167	3.94	1.832	0.078
	생 산 직	48	4.15		
	판매/영업직	211	4.09		
	관 리 직	118	3.92		
	공 무 원	66	4.06		
	전 문 직	203	3.80		
	전업주부	273	3.76		
	학 생	137	3.82		
소 득	100만원미만	72	3.85	1.132	0.341
	100 ~ 200만원	315	3.95		
	200 ~ 300만원	427	3.80		
	300 ~ 400만원	342	3.92		
	400 ~ 500만원	180	3.97		
	500 ~ 600만원	98	3.88		
	600만원이상	92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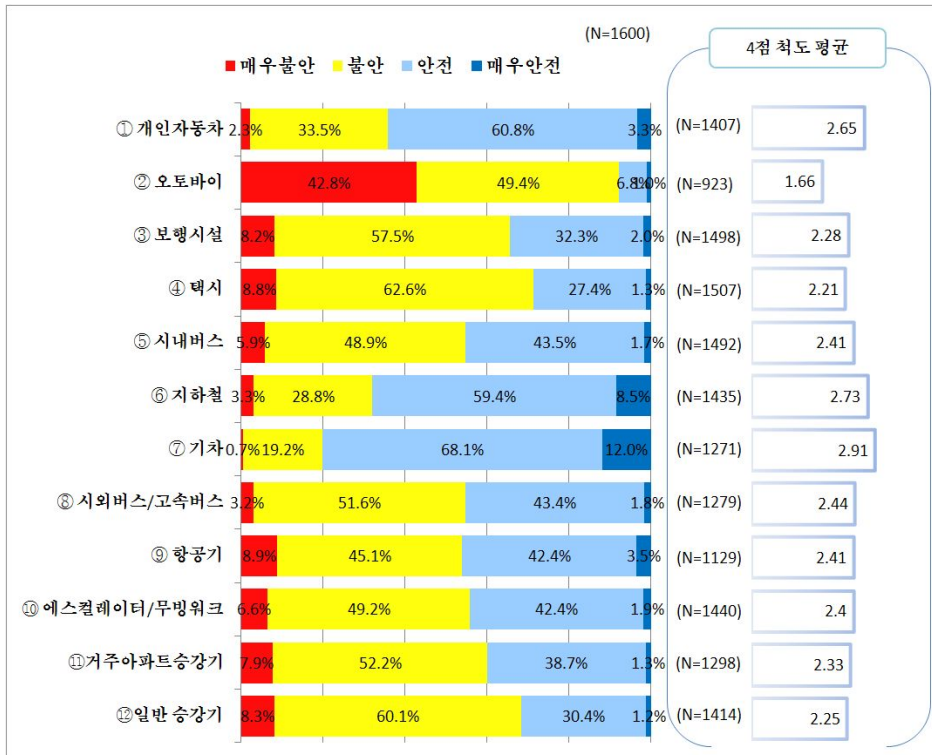
구 분		표본수(명)	평균값(점)	F	유의수준( $\alpha$ )
전 체		1563	3.90		
혼 인	기 혼	1029	3.91	0.092	0.762
	미 혼	461	3.89		
취 업	맞 벌 이	448	4.00	3.876	0.049
	외 벌 이	534	3.84		
세 대	독신가구	155	3.90	0.366	0.872
	부부가구	278	3.90		
	미취학2세대	153	3.78		
	취학2세대	368	3.92		
	성인자녀2세대	480	3.92		
	3세대가구	97	3.94		
주택 형태	아 파 트	863	3.89	0.854	0.464
	단독주택	320	3.99		
	다세대/다가구	146	3.84		
	연립·빌라	178	3.83		
지 역	서 울	428	3.89	4.559	0.000
	부 산	248	4.21		
	대 구	215	3.83		
	광 주	160	3.93		
	대 전	159	3.94		
	인 천	215	3.74		
	울 산	138	3.62		

- 이러한 일반 소비자들의 교통 생활에 대한 안전 인식은 7점 척도로 환산하면 3.90점으로 이론적 평균점 4.0점에 다소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성, 연령, 직업, 주부취업 여부 및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안전 인식에 차이
- 성별로는 남성의 교통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4.03점을 나타내는데 반해 여성은 3.77점으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교통 안전에 대해 더 많은 우려감을 나타냄
-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교통 안전인식이 각각 4.02점과 4.05점으로 이론적 평균점을 상회하는 안전인식을 보인데 반해 30대 연령층은 3.7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인식을 나타냄
- 직업별 교통 안전인식은 생산직 종사자들이 4.1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주부, 전문직 및 학생 계층의 교통 안전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취업여부에 있어서는 취업주부 가구의 교통 안전인식은 4.00점인데 반해 전업주부 가구는 3.84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전업주부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교통 관련 위해불안감이 더 높은 것을 의미
-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거주자들이 4.2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교통 안전인식을 나타내는데 반해 울산지역은 3.6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인식, 즉 가장 높은 위해불안감을 나타냄

## 2) 품목별 안전성 평가

- 교통 소비생활과 관련된 품목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기차가 80.1%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지하철이 67.9%, 개인 자동차 64.2%, 항공기 46.0%, 시내버스 45.2%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안전성이 낮은 교통 생활 관련 품목은 오토바이가 7.8%로 1위를 나타냈으며 택시가 28.7%, 일반 승강기 31.0%, 보행시설 34.3%, 거주 아파트 승강기가 40.0%의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교통사고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역시 직접경험 보다는 간접경험에 의존하여 평가

표 4-41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품목별 안전성 평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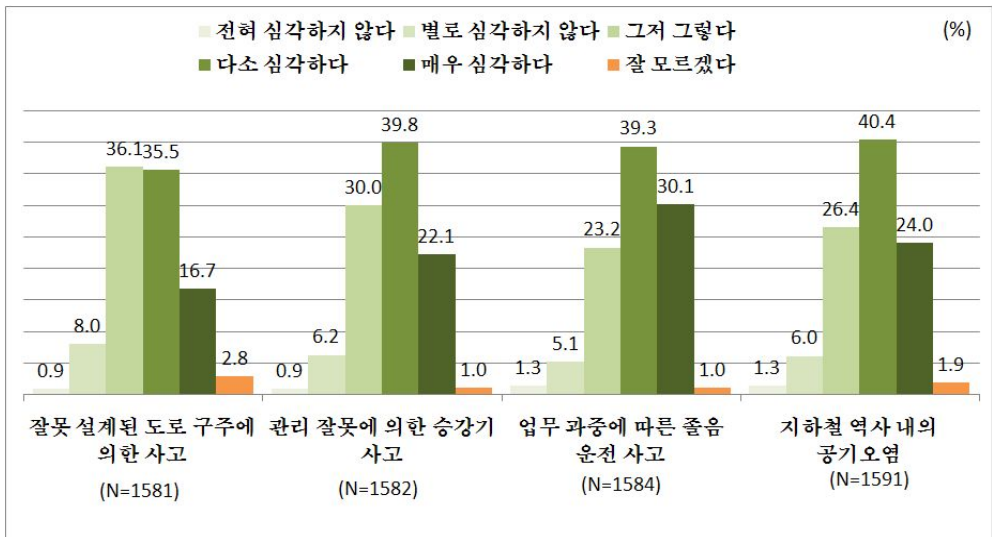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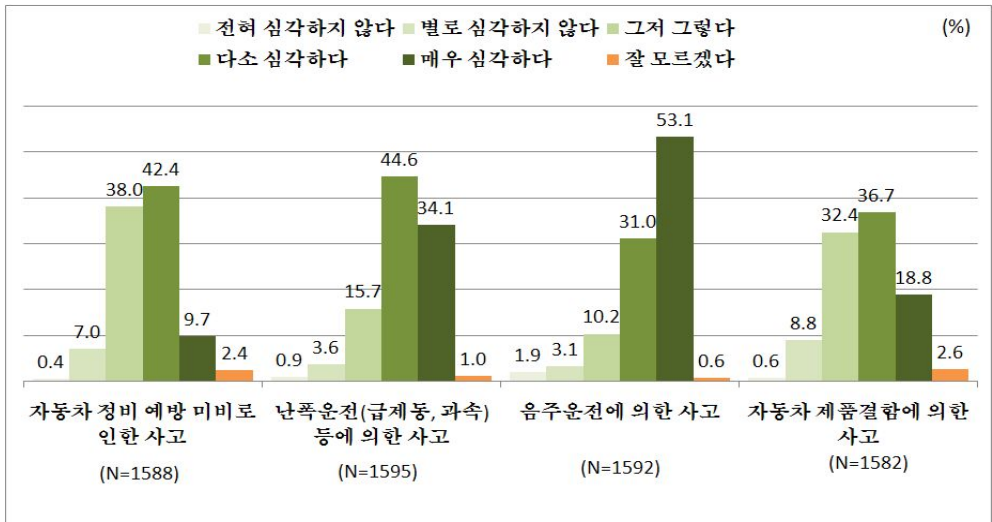


### 3)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 교통 소비생활 관련하여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해 요인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4.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난폭운전 등에 사고가 4.09점으로 2위를 차지



표 442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위해요인별 안전성 평가 인식



○ 그 다음으로는 업무과중에 따른 졸음 운전사고가 3.93점, 지하철 역사내 공기오염이 3.81점, 관리 잘못에 의한 승강기 사고 3.77점을 나타냄

□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심각성이 높은 위해요인들의 특성은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소비자가 중상 이상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 4)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사업자 차원에서의 평가는 자동차 업체 노력은 3.52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운수업체 노력은 3.02점으로 중립적인 입장으로 나타남
  - 반면, 업체의 사고 안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제공 노력은 2.85점을 나타내 다소간 부정적으로 인식

표 443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

구분	사례수 (명)	응답분포 (%)					평균 (점)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자	자동차업체는 안전한 제품 생산에 노력	1,591	5.7	50.0	35.7	7.5	1.1	3.52
	운수업자는 안전 중시, 사고예방에 노력	1,588	1.8	25.8	48.5	20.2	3.7	3.02
	관련 업체는 사고 안전정보를 충분히 제공	1,586	1.3	16.4	52.7	25.0	4.7	2.85
정부	교통 관련 법정책을 잘 관리	1,588	2.0	18.3	52.6	22.5	4.6	2.91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에 노력	1,584	2.1	25.0	47.0	21.3	4.6	2.99
소비자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	1,586	11.5	50.8	30.3	5.9	1.5	3.65
	안전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인지	1,590	5.1	35.9	43.8	13.1	2.2	3.29

- 정부와 관련한 안전관리 노력에 있어서는 제도 집행 관련해서는 2.91점,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 노력은 2.99점을 나타내 소비자 입장에서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차원에서의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과 관련해서는 3.65점, 안전 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와 관련해서는 3.29점으로 나타나 소비자 스스로의 안전대응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러한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성별로는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냄

-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는 남성이 3.39점, 여성이 3.18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음을 의미
- 연령별로는 사업자 안전노력에 있어서 제조업체 안전노력은 상대적으로 60세 이상 계층이 3.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업체의 사고 안전정보에 대한 충분한 제공 역시 60세 이상 계층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
  - 정부 차원의 법정책 관리 관점 및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 노력에 있어서도 60세 이상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 소비자 차원에서는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에 있어서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실천노력 및 대응행동 인지에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제조업자의 안전노력에 있어서는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수업체의 안전노력은 고졸계층만이 유일하게 이론적 평균점 이상의 긍정인식을 나타냄
  - 소비자 차원에서의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나타남
  - 즉, 소비자의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노력은 중졸이하 계층이 3.49점인데, 고졸은 3.60점, 대졸 3.70점, 대학원졸 3.72점을 나타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실천노력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44 교통 소비생활 이해당사자별 안전대응 노력 평가에 대한 특성별 분석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제조업체	운수업자	업체 정보	법정책관리	구조 개선	법규 준수	대응 인지
전 체		3.52	3.02	2.85	2.91	2.99	3.65	3.29
성 별	남 자	3.54	3.01	2.85	2.92	2.99	3.63	3.39
	여 자	3.49	3.03	2.84	2.89	2.98	3.67	3.18
	F	1.613	0.300	0.079	0.514	0.014	1.173	24.023***
연 령	20 대	3.58	3.03	2.90	2.99	3.02	3.57	3.20
	30 대	3.53	2.95	2.77	2.88	2.93	3.63	3.26
	40 대	3.50	3.05	2.91	2.93	3.05	3.70	3.38
	50 대	3.56	3.11	2.86	2.88	3.03	3.77	3.44
	60대 이상	3.36	2.99	2.73	2.77	2.82	3.57	3.13
	F	2.831**	1.649	2.810**	2.326*	2.955**	2.966**	6.050***
학 력	중졸이하	3.29	2.91	2.81	2.83	2.83	3.49	3.03
	고 졸	3.54	3.09	2.88	2.92	2.97	3.60	3.26
	대 졸	3.53	2.99	2.84	2.93	3.02	3.70	3.33
	대학원졸	3.58	2.92	2.77	2.87	3.03	3.72	3.43
	F	3.878***	2.851**	0.801	0.558	1.859	3.386**	5.472***
직 업	사무기술직	3.49	2.97	2.85	2.92	2.97	3.61	3.33
	생 산 직	3.59	3.31	3.06	3.04	3.00	3.58	3.31
	판매/영업직	3.60	3.09	2.99	3.03	3.06	3.71	3.26
	관 리 직	3.53	3.02	2.82	2.79	2.96	3.67	3.44
	공 무 원	3.62	3.12	2.90	3.04	3.12	3.74	3.41
	전 문 직	3.51	2.89	2.72	2.79	2.19	3.69	3.29
	전업주부	3.48	3.03	2.80	2.84	2.97	3.73	3.30
	학 생	3.60	3.09	2.91	3.07	3.16	3.56	3.22
	F	0.851	2.150**	2.530**	3.273***	1.461	0.931	0.930
소 득	100만원미만	3.50	3.14	3.03	2.97	2.76	3.57	3.16
	100~200만원	3.51	2.98	2.80	2.87	2.99	3.57	3.26
	200~300만원	3.51	2.99	2.79	2.89	2.97	3.62	3.19
	300~400만원	3.52	3.03	2.88	2.87	2.99	3.76	3.39
	400~500만원	3.55	3.13	2.95	3.07	3.07	3.72	3.37
	500~600만원	3.55	3.00	2.84	2.91	3.05	3.75	3.36
	600만원이상	3.57	2.99	2.83	2.82	3.05	3.59	3.33
	F	0.182	1.106	1.723	1.717	1.332	2.326**	2.657**

구 분		사 업 자			정 부		소 비 자	
		제조업체	운수업자	업체 정보	법정책관리	구조 개선	법규 준수	대응 인지
전 체		3.52	3.02	2.85	2.91	2.99	3.65	3.29
혼 인	기 혼	3.50	3.02	2.81	2.88	2.99	3.70	3.34
	미 혼	3.56	3.01	2.91	2.95	2.99	3.57	3.19
	F	1.554	0.003	5.474**	2.806*	0.004	8.775***	10.586***
취 업	맞 벌 이	3.55	3.04	2.83	2.92	3.04	3.70	3.31
	외 벌 이	3.46	2.98	2.79	2.85	2.94	3.72	3.38
	F	3.121*	1.325	0.590	1.683	2.802*	0.061	1.882
세 대	독신가구	3.52	3.04	2.93	2.97	2.91	3.51	3.16
	부부가구	3.46	2.99	2.76	2.82	2.91	3.69	3.30
	미취학2세대	3.59	2.93	2.85	3.01	3.00	3.79	3.45
	취학2세대	3.57	3.08	2.85	2.93	3.11	3.75	3.37
	성인자녀2세대	3.50	3.02	2.89	2.89	2.98	3.63	3.24
	3세대가구	3.55	2.99	2.75	2.85	2.95	3.43	3.14
	F	0.993	0.875	1.605	1.607	2.009*	4.566***	3.400***
주 택 형 태	아 파 트	3.05	3.01	2.85	2.91	2.99	3.71	3.36
	단독주택	3.55	3.05	2.89	2.92	2.98	3.55	3.15
	다세대/다가구	3.54	3.03	2.82	2.93	2.97	3.63	3.21
	연립·빌라	3.52	3.01	2.81	2.89	3.04	3.55	3.20
	F	0.375	0.202	0.418	0.058	0.259	4.290***	6.193***
지 역	서 울	3.45	3.00	2.78	2.86	3.00	3.64	3.24
	부 산	3.55	3.14	3.02	3.04	3.00	3.65	3.37
	대 구	3.64	3.01	2.77	2.83	2.91	3.71	3.29
	광 주	3.46	3.02	2.89	2.98	3.05	3.59	3.28
	대 전	3.66	3.03	2.77	2.83	3.16	3.88	3.35
	인 천	3.45	2.93	2.84	2.98	2.92	3.50	3.19
	울 산	3.49	3.02	2.89	2.83	2.86	3.63	3.38
	F	2.962***	1.476	3.242***	2.631**	2.234**	3.603***	1.566

- 직업별로는 운수업체 안전노력에 대해 생산직 종사자들은 3.31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전문직은 2.89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
  - 업체의 사고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 노력에 있어서도 생산직 종사자들은 3.06점으로 유일하게 긍정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2.7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정부 차원의 법정책 관리 노력에 있어서는 학생계층이 3.07점으로 가장 높은 긍정 인식을 나타냈으나 관리직은 2.7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 소득별로는 소비자의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노력은 300만원~600만원 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미만 계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법규준수 및 실천노력을 나타냄
  -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에 있어서는 300만원 소득계층을 경계로 그 미만 계층에 비해 그 이상 소득계층이 더 높은 인지를 나타냄
- 혼인여부에 있어서 업체의 사고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 노력 및 정부의 법정책 관리 노력 등은 미혼층에 비해 기혼층이 보다 부정적으로 반응
  - 반면, 소비자 자신의 법규준수 및 안전실천 노력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에 있어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남
- 주부취업 여부에 있어서 제조업체 안전노력은 취업주부 가구가 3.55점, 전업주부 가구가 3.46점을 나타냈는데, 이는 취업주부 가구가 전업주부 가구에 비해 제조업체 안전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임을 시사
  - 정부의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 노력에 있어서는 취업주부 가구가 3.04점으로 전업주부 가구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 세대별 정부의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 노력은 미취학 및 취학의 2세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 반면 독신 및 부부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으로 평가
  - 법규준수 및 안전실천 노력은 미취학 및 취학의 2세대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반면 3세대가구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사고발생시 대응행

동 인지는 미취학 2세대가 3.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형태별로는 소비자 법규준수 및 안전실천 노력과 사고발생시 대응행동 인지에 있어서 아파트 거주자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제조업체 안전노력은 상대적으로 대전과 대전 지역이 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서울과 인천 지역은 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업체의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 노력은 부산 지역이 3.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차원의 법정책 관리 노력은 부산 지역이 3.0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대구, 대전 및 울산 지역은 각각 2.8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
  - 정부의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 노력은 대전 지역이 3.16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울산지역은 2.86점으로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
  - 소비자의 법규 준수 및 안전실천 노력은 대전 지역이 3.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지역이 3.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소비자  
안전체감  
지수

소비자의 일반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그 생활 영역을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생활영역별 안전체감지수를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등 2대 핵심변수를 축으로 산출

## V.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

### 5.1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산출 체계

- 본 연구의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소비자의 일반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그 생활 영역을 5개 분야로 구분하고, 생활영역별 안전체감지수를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등 2대 핵심변수를 축으로 산출
  - 5개 생활영역은 식품(먹거리 소비생활), 건강·위생(웰빙형 소비생활), 주생활(가정내 소비생활), 여가 및 교통 등으로 구분
  -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생활영역별 개별 품목에 대한 위해발생 불안감을 지수화 하여 산출한 것이며,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생활영역별 개별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대응 심각성을 지수화하여 산출
-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해당 생활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된 값을 합산하여 산출
  -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는 전체 소비생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생활 영역별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베타값을 이용하여 산출

-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는 각각의 생활 영역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각각의 생활 영역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생활 영역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생활 영역별 개별 품목 각각의 안전체감을 도출하고 이에 개별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며, 이들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생활 영역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는 생활 영역별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품목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베타값을 이용하여 산출
- 생활 영역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생활 영역별 위해요인 각각의 안전체감을 도출하고 이에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며, 이들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가중치는 영역별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베타값을 이용하여 산출

## 5.2 부문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5.2.1 식품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1)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식품 안전체감지수는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이에 따라 식품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는 14개의 식품군의 개별 품목에 대한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출

표 5-1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식품 안전체감 (품목별)	국산 농산물	71.3	0.111	9.33
	국산 수산물	49.6	0.079	6.64
	국산 축산물	55.3	0.116	9.75
	수입 농산물	22.5	0.073	6.13
	수입 수산물	9.8	0.026	2.18
	수입 축산물	11.6	0.228	19.17
	수입 건어물	49.0	0.007	0.59
	절임 식품	50.4	0.052	4.37
	즉석 식품	49.3	0.097	8.15
	훈연 식품	38.5	0.075	6.30
	냉동 식품	29.6	0.120	10.08
	유 제 품	74.3	0.089	7.48
	빵·과자류	55.1	0.075	6.30
	음 료	63.1	0.042	3.53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1.190	100.0	41.63

- 가중치 산출은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품목의 가중치를 산출
- 즉,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14개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1은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품목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이에 따르면 먼저 식품군내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14개 품목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안전한 품목은 유제품이 74.3점, 국산 농산물 71.3점, 음료 63.1점 등으로 나타남

- 한편, 개별 품목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수입 축산물이 19.17%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냉동식품이 10.08%, 국산 축산물 9.75%, 국산 농산물 9.33%, 즉석식품 8.15%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41.63점의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2)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식품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적절한 산출체계에 적용하여 산출
-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측정하고 이에 적절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개별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표 5-2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식품 안전체감 (위해요인)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잔류농약	29.1	0.115	26.56
	GMO (유전자 재조합식품)	36.7	0.023	5.31
	광우병, 조류독감	20.1	0.009	2.08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20.2	0.076	17.55
	학교 집단급식	33.6	0.032	7.39
	1회용 포장용기의 유해성	26.2	0.003	0.69
	식품 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	24.3	0.021	4.85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팔기	16.6	0.154	35.57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433	100.0	23.16

- 가중치 산출은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위해요인의 가중치를 산출
- 즉,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에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2는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이에 따르면 먼저 식품군내 개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8개 위해요인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심각성이 낮은 위해요인은 GMO가 36.7점, 집단급식이 33.6점, 잔류농약이 29.1점을 나타냄
  - 한편,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산출
  -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수입품의 국내산으로 속여팔기가 35.57%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잔류농약이 26.56%, 항생제 남용이 17.55%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23.16점의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3) 식품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식품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즉,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41.63점에 가중치 0.50을 곱한 값에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23.16점에 가중치 0.50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식품 안전체감지수 32.40점을 산출

표 5-3 식품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식품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발생 가능성)	41.63	0.50	32.40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위해 심각성)	23.16	0.50	
식품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4) 식품 안전체감지수의 소비자 특성 분석

- 식품 안전체감지수 등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성별로는 품목별, 위해요인별 및 식품 전체 모두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3개 지수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안전체감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3개 안전체감지수 모두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보다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표 5-4 식품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식품 안전체감지수	
전 체	1,202	41.6	23.2	32.4	
성별	남 자	588	46.3	27.5	36.1
	여 자	614	37.2	18.8	28.7
	F		42.304***	31.669***	61.541***
연령	20 대	275	45.2	29.5	36.6
	30 대	319	40.6	22.8	31.8
	40 대	286	40.7	21.0	31.0
	50 대	207	39.1	18.8	29.3
	60대 이상	115	42.9	21.5	32.1
	F		2.269*	5.691***	6.648***
학력	중졸이하	86	36.2	23.7	30.6
	고 졸	442	42.2	23.9	32.9
	대 졸	582	42.5	23.1	32.7
	대학원졸	72	39.6	19.7	30.0
	F		1.857	0.498	1.002
직업	사무기술직	130	42.1	24.7	33.3
	생 산 직	38	39.9	23.2	31.8
	판매/영업직	165	43.9	24.4	33.9
	관 리 직	88	44.5	20.8	32.4
	공 무 원	50	41.5	24.1	32.8
	전 문 직	150	38.7	24.8	32.1
	전업주부	208	37.8	16.3	27.8
	학 생	101	47.7	30.1	37.8
F		2.316**	3.243***	4.150***	
소득	100만원미만	48	44.9	27.1	35.1
	100 ~ 200만원	231	41.6	24.4	32.9
	200 ~ 300만원	321	42.8	25.7	34.0
	300 ~ 400만원	276	40.8	23.6	32.3
	400 ~ 500만원	141	41.1	17.7	29.6
	500 ~ 600만원	75	43.9	13.0	28.2
	600만원이상	83	40.3	22.9	31.7
	F		0.457	3.679***	2.230**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식품 안전체감지수
전 체		1,202	41.6	23.2	32.4
혼인	기 혼	792	40.4	20.8	30.8
	미 혼	355	44.6	28.4	35.9
	F		6.983***	19.881***	23.124***
취업	맞 벌 이	352	40.7	22.1	31.5
	외 벌 이	405	40.5	19.2	30.1
	F		0.018	2.442	1.483
세대	독신가구	119	41.1	28.1	34.5
	부부가구	207	42.2	22.9	32.5
	미취학2세대	115	41.2	24.1	32.6
	취학2세대	279	39.3	18.9	29.5
	성인자녀2세대	387	42.6	23.6	33.0
	3세대가구	77	43.1	26.2	34.3
	F		0.693	2.509**	2.410**
주택 형태	아 파 트	672	42.3	20.8	31.5
	단독주택	256	40.0	26.5	33.3
	다세대/다가구	109	37.8	30.4	34.3
	연립·빌라	128	43.5	22.6	32.8
	F		1.624	5.816***	1.368
지역	서 울	327	37.2	22.0	30.2
	부 산	200	47.5	29.1	37.4
	대 구	157	41.3	20.3	31.0
	광 주	108	37.2	24.7	31.6
	대 전	102	42.5	24.9	33.5
	인 천	189	49.5	20.7	34.6
	울 산	119	35.2	20.6	28.5
	F		9.216***	2.483**	5.708***

- 즉, 식품 안전체감지수의 경우에 20대의 안전체감은 36.6점인데 반해 30대는 31.8점을, 40대는 31.0점, 50대는 29.3점을 나타내 나이가 젊을수록 보다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 직업별 안전체감지수 차이에 있어서도 3개 안전체감지수 모두가 유의적인 지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학생 계층이 4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과 전업주부 계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및 식품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도 학생 계층의 안전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주부의 안전체감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이 27.1점을 나타내는데 반해 100만원대 24.4점, 200만원대 25.7점, 300만원대 23.6점, 400만원대 17.7점, 500만원대 13.0점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안전체감이 더 높게 나타남
  - 식품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 계층이 35.1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400만원대 및 500만원대 소득계층은 안전체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는 3개 안전체감지수 모두가 기혼층에 비해 미혼층의 안전체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세대별로는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및 식품 안전체감지수 특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독신가구의 안전체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학 2세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형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30.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아파트 거주자들은 20.8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인천 및 부산 지역이 각각 49.5점 및 4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 지역은 3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위해요인별 및 식품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부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대구 및 인천 지역이 보다 낮게 나타남

7) 식품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 이해당사자별 안전 대응 노력이 식품 안전체감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
- 식품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련성은 R2값이 0.132이고 F값이 28.903, 유의도가 0.000을 나타내 유의미한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
  -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수 중 t값의 유의도가 낮은 농축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노력 및 급식업체의 안전음식 제공 노력 등은 분석 모형 구성변수에서 제외
- 식품 안전체감지수는 사업자의 안전노력에 대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정부 차원은 법제도 안전 관리 대응은 정의 상관관계를, 숨방망이 처벌에 의한 범죄 근절 애로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표 5.5 식품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독립 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수		0.122	4.118	0.000
사업자	농축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노력	0.013	1.936	0.053
	가공/제조업자들의 위생적인 식품제조	0.031	4.030	0.000
	유통업자의 안전한 유통 노력	0.019	2.532	0.011
	급식업체의 좋은 식재료, 안전음식 제공	0.010	1.450	0.147
정부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효과적 집행	0.033	5.017	0.000
	숨방망이 처벌에 의한 범죄 근절 애로	-0.011	-2.527	0.012
소비자	식품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0.013	2.006	0.045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 노력	-0.034	-6.113	0.000
R2		0.132		
F		28.903		
유의도 (α)		0.000		

- 소비자 차원에서의 식품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보유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소비자 위해예방 노력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식품 안전체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32.4점의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고 식품 안전체감지수와 사업자 안전노력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면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자 안전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
  - 이는 식품 안전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의 소비자 안전 노력이 가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들의 안전노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식품 안전체감지수와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간에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식품 안전체감지수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 아울러,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에 따라 식품범죄의 효과적 근절이 어려운 점 또한 식품 안전체감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자 차원의 안전대응 노력에 있어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식품 안전체감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소비자 스스로의 위해예방 노력은 안전체감지수를 높이는 역할

## 5.2.2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1)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는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이에 따라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는 12개의 건강·위생군의 개별 품목에 대한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출

표 5-6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건강·위생 안전체감 (품목별)	처방전없이 사먹는 의약품	27.6	0.045	5.12
	다이어트용 약품	7.8	0.137	15.59
	건강(보조) 식품	29.5	0.085	9.67
	건강기구	62.9	0.047	5.35
	건강보조기구	46.2	0.051	5.80
	위생용품	48.0	0.121	13.77
	시력용 렌즈	49.0	0.095	10.81
	위생세제	77.9	0.005	0.55
	화 장 품	51.3	0.065	7.39
	피부미용서비스	50.0	0.079	8.99
	비만관리서비스	17.8	0.121	13.77
	기 호 품	19.9	0.028	3.19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879	100.0	32.90

- 가중치 산출은 ‘건강·위생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품목의 가중치를 산출
- 즉,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12개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1은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품목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이에 따르면 먼저 건강·위생 관련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12개 품목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안전한 품목은 위생세제 77.9점, 건강기구 62.9점, 화장품 51.3점 등으로 나타남
  - 한편, 개별 품목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위생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다이어트 약품이 15.59%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위생용품과 비만관리서비스가 각각 13.77%, 시력용 렌즈가 10.81%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32.90점의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2)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적절한 산출체계를 적용하여 산출
-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측정하고 이에 적절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표 5.7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건강·위생 안전체감 (위해요인)	효능·약효가 과장되어 있는 건강식품	22.1	0.001	0.48	24.28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 기구 생산	32.8	0.013	6.19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 유통	21.0	0.004	1.90	
	무자격 피부미용 관리	31.7	0.008	3.81	
	위생/미용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첨가	26.3	0.024	11.43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	25.0	0.047	22.38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	22.7	0.096	45.71	
	지나친 음주나 흡연	23.5	0.017	8.10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210	100.0	

- 가중치 산출은 ‘건강·위생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 개별 위해요인 가중치를 산출
- 즉,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에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2는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가중치 및 이를 이용한 최종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먼저 건강·위생군내 개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8개 위해요인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심각성이 낮은 위해요인은 건강기구 생산이 32.8점, 무자격 피부미용관리가 31.7점을 나타냄
  - 한편,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위생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산출
  -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허위과장의 다이어



트 관련 제품이 45.71%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항생제 남용이 22.38%, 유해 화학물질 첨가가 11.43%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24.28점의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3)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즉,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32.90점에 가중치 0.50을 곱한 값에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24.28점에 가중치 0.50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28.59점을 산출

표 5-8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발생 가능성)	32.90	0.50	28.59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위해 심각성)	24.28	0.50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4)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의 소비자 특성별 분석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등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성별로는 품목별, 위해요인별 및 식품 전체 모두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3개 지수 모두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안전체감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및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냄

표 5-9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전 체		662	32.9	24.3	28.6
성별	남 자	310	34.8	27.6	30.5
	여 자	352	31.2	21.0	26.7
	F		3.790*	15.196***	18.683***
연령	20 대	178	35.8	25.7	29.9
	30 대	175	33.5	22.5	27.9
	40 대	163	32.3	22.6	27.6
	50 대	106	27.9	23.8	27.3
	60대 이상	40	33.2	30.6	31.5
	F		1.901	2.102*	2.375*
학력	중졸이하	38	28.0	32.4	31.6
	고 졸	245	33.8	25.0	29.1
	대 졸	328	33.2	22.5	27.8
	대학원졸	39	32.4	22.4	27.6
	F		0.653	3.054**	1.826
직업	사무기술직	72	32.0	25.2	28.8
	생 산 직	23	40.7	30.4	33.3
	판매/영업직	106	36.4	25.4	30.0
	관 리 직	45	38.2	23.2	29.1
	공 무 원	26	34.4	22.1	27.8
	전 문 직	95	33.2	22.3	27.7
	전업주부	96	34.2	21.0	27.2
	학 생	61	32.6	26.8	29.7
F		0.696	0.916	1.088	
소득	100만원미만	32	32.2	31.4	31.6
	100 ~ 200만원	145	37.1	24.9	29.8
	200 ~ 300만원	158	34.1	24.5	28.9
	300 ~ 400만원	139	31.0	25.2	28.7
	400 ~ 500만원	75	32.6	20.5	26.7
	500 ~ 600만원	43	29.7	18.5	25.0
	600만원이상	51	28.6	24.2	27.4
	F		1.382	1.498	1.695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전 체		662	32.9	24.3	28.6
혼인	기 혼	403	31.6	23.4	27.9
	미 혼	231	35.4	25.3	29.7
	F		3.699*	1.021	3.077*
취업	맞 벌 이	198	32.9	21.9	27.4
	외 벌 이	189	29.9	24.8	28.3
	F		1.489	2.015	0.625
세대	독신가구	69	36.4	26.3	30.4
	부부가구	115	33.1	24.4	28.7
	미취학2세대	59	31.5	23.4	27.9
	취학2세대	144	31.0	22.1	27.2
	성인자녀2세대	226	33.6	24.9	29.0
	3세대가구	32	33.2	27.4	30.1
	F		0.550	0.657	1.017
주택 형태	아 파 트	369	33.7	22.6	27.9
	단독주택	138	32.5	26.8	29.7
	다세대/다가구	67	28.1	25.8	28.2
	연립·빌라	70	31.7	26.4	29.3
	F		1.150	1.716	0.922
지역	서 울	189	29.2	25.2	28.2
	부 산	139	40.4	29.2	33.0
	대 구	96	34.1	17.8	25.9
	광 주	61	34.2	26.2	29.8
	대 전	29	33.8	20.6	26.9
	인 천	93	28.0	23.6	27.2
	울 산	55	31.0	25.1	28.6
	F		4.000***	2.704**	4.025***

-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20대가 25.7점, 30대 22.5점, 40대 22.6점, 50대 23.8점, 60대 이상 30.6점을 나타내 20대를 제외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가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는 60대 이상 노령층이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30대~50대의 안전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해 유의적인 지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졸이하 계층은 32.4점, 고졸 25.0점, 대졸 22.5점, 대학원졸 22.4점을 나타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안전체감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및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지수 모두에서 기혼층보다 미혼층의 안전체감지수가 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건강·위생 관련 3개 지수 모두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 지역 거주자들이 3개 지수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품목별 지수는 인천 지역 거주자들이 2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및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대구 지역 거주자들이 각각 17.8점과 2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7)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 이해당사자별 안전 대응 노력이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련성은 R2값이 0.080 이고 F값이 19.211, 유의도가 0.000을 나타내 유의미한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
  -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수 중 t값의 유의도가 낮은 관련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 중시 및 정부 차원의 관련 법제 및 정책의 관리 노력은 분석 모형 구성변수에서 제외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는 사업자의 안전노력 및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에 대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소비자 차원의 안전대응 노력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표 5-10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독립 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 수		0.168	6.852	0.000
사업자	업자들은 이익보다 소비자안전을 중시	0.020	2.889	0.004
	유통업자들은 소비자안전을 중시	0.018	2.072	0.038
	관련 서비스업체는 서비스 안전을 중시	0.008	1.009	0.313
정부	관련 법제 및 정책의 효과적 관리·집행	0.001	0.126	0.900
	건강 위해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공	0.024	2.920	0.004
소비자	건강을 위해 정기적 신체검사 및 운동	-0.010	-2.186	0.029
	건강 관심은 높지만 관련 정보 부족	-0.010	-1.974	0.049
R2		0.080		
F		19.211		
유의도 (α)		0.000		

-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28.6점으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고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와 사업자 안전노력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면 이는 사업자의 안전노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의미
- 이러한 분석의 의미는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한데, 이는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사업자 및 정부 차원의 안전 노력에 대한 신뢰 구축이 긴요함을 시사
-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의 안전대응 노력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건강을 위한 정기적 신체검사 및 운동 실천은 현재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의 개선을 도모
  -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은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5.2.3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1)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는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이에 따라 주생활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는 12개의 주생활군의 개별 품목에 대한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출

표 5.11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주생활 안전체감 (품목별)	가전제품	85.5	0.191	29.84	60.61
	취사기기	51.1	0.043	6.72	
	조리기구	66.8	0.103	16.09	
	플라스틱 용기	46.1	0.013	2.03	
	스팀 청소기/다리미	49.8	0.006	0.94	
	에어컨/공기청정기	66.8	0.038	5.94	
	침대/식탁/거실 가구	84.6	0.032	5.00	
	가정내 석유/가스 보일러	37.3	0.044	6.88	
	전기/히터, 온풍기	33.4	0.016	2.50	
	가정내 욕실/베란다	59.6	0.088	13.75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	28.8	0.063	9.84	
	새집 벽지/장판	17.6	0.003	0.47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640	100.0	

- 가중치 산출은 ‘주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품목의 가중치를 산출
- 즉,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12개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1은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품목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먼저 주생활군내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12개 품목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안전한 품목은 가전제품이 85.5점, 가구 84.6점, 조리기구 및 에어컨이 각각 66.8점을 나타냄
  - 한편, 개별 품목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가전제품이 29.84%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조리기구가 16.09%, 가정내 욕실이나 베란다가 13.75%,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 9.84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60.61점의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2)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적절한 산출체계를 적용하여 산출
-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측정하고 이에 적절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개별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표 5.12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주생활 안전체감 (위해요인)	가전제품의 감전/합선에 의한 사고	62.6	0.084	20.35	60.91
	소비생활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	64.2	0.055	13.32	
	용품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36.4	0.016	3.87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폭발위험	53.3	0.053	12.83	
	침구류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감염	47.0	0.038	9.20	
	조리 등에서의 손을 베이거나 화상사고	68.0	0.072	17.43	
	생활용품 사용 부주의로 다치는 사고	68.1	0.089	21.55	
	노인이나 자녀들의 가정내 안전사고	53.7	0.006	1.45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413	100.0	

- 가중치 산출은 ‘주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 개별 위해요인의 가중치를 산출
- 즉,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에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2는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이에 따르면 먼저 주생활군내 개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8개 위해요인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심각성이 낮은 위해요인은 부주의 사고가 68.1점, 자상 및 화상사고가 68.0점을 나타냄
  - 한편,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산출

-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생활용품 사용부주의로 다치는 사고가 21.55%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감전/합선에 의한 사고가 20.35%, 자상·화상이 17.43%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60.91점의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3)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즉,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60.61점에 가중치 0.50을 곱한 값에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60.91점에 가중치 0.50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60.76점을 산출

표 5.13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 (발생 가능성)	60.61	0.50	60.76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위해 심각성)	60.91	0.50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4)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의 소비자 특성별 분석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등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성별로는 품목별, 위해요인별 및 주생활 전체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3개 지수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안전체감이 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졸이하 계층만이 50.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표 5-14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전 체		734	60.6	60.9	60.8
성별	남 자	359	64.2	63.3	62.7
	여 자	375	57.2	58.6	58.8
	F		11.301***	7.634***	15.467***
연령	20 대	178	62.7	57.9	59.8
	30 대	224	61.7	59.7	60.5
	40 대	168	59.9	62.1	61.2
	50 대	114	55.2	64.5	61.2
	60대 이상	50	62.6	62.6	61.8
	F		1.443	1.762	0.435
학력	중졸이하	49	50.0	62.5	59.2
	고 졸	265	62.1	59.8	60.6
	대 졸	362	61.1	61.0	60.9
	대학원졸	44	61.1	64.4	62.6
	F		2.613*	0.617	0.537
직업	사무기술직	85	63.2	61.7	61.8
	생 산 직	23	55.8	57.9	58.2
	판매/영업직	112	65.1	60.2	61.6
	관 리 직	45	60.7	64.0	62.2
	공 무 원	33	59.1	63.1	61.5
	전 문 직	97	60.9	61.8	61.2
	전업주부	107	57.0	59.4	59.3
	학 생	58	59.9	58.6	59.6
F		0.863	0.440	0.649	
소득	100만원미만	33	50.1	64.3	60.6
	100 ~ 200만원	161	48.8	56.7	58.9
	200 ~ 300만원	190	47.9	58.2	59.6
	300 ~ 400만원	145	51.1	64.7	63.2
	400 ~ 500만원	86	48.5	61.6	60.4
	500 ~ 600만원	49	48.3	67.3	65.8
	600만원이상	47	47.3	60.5	59.4
	F		1.739	2.707**	2.882***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전 체		734	60.6	60.9	60.8
혼인	기 혼	464	60.0	61.3	60.8
	미 혼	234	63.4	60.4	61.2
	F		2.368	0.229	0.141
취업	맞 벌 이	225	60.8	63.4	62.0
	외 벌 이	225	59.3	60.4	60.3
	F		0.334	1.827	1.858
세대	독신가구	77	60.7	64.4	62.5
	부부가구	117	61.2	60.1	60.5
	미취학2세대	87	61.0	59.6	60.3
	취학2세대	151	61.5	59.7	60.3
	성인자녀2세대	238	60.0	61.6	60.9
	3세대가구	44	55.0	61.0	59.6
	F		0.398	0.544	0.379
주택 형태	아 파 트	407	61.7	61.5	61.3
	단독주택	157	59.1	57.9	59.0
	다세대/다가구	75	55.1	61.1	59.5
	연립·빌라	73	60.9	61.1	60.9
	F		1.280	0.885	1.259
지역	서 울	202	58.9	61.9	60.8
	부 산	147	69.2	65.0	65.2
	대 구	97	60.0	58.0	59.3
	광 주	68	51.6	57.1	57.1
	대 전	39	62.3	59.5	60.3
	인 천	109	59.3	61.5	60.7
	울 산	72	58.2	59.8	59.6
	F		3.766***	1.302	0.002

- 소득별로는 위해요인별 및 주생활 전체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지수 모두 500만원대 소득계층의 안전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100만원대 및 200만원대 소득계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 지역이 6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 지역이 51.6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7)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 이해당사자별 안전 대응 노력이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련성은 R2값이 0.040이고 F값이 9.312, 유의도가 0.000을 나타내 유의미한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

표 5-15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독립 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수		0.420	15.141	0.000
사업자	제조업체들은 안전한 제품생산 노력	0.017	1.765	0.078
	유통업자들은 소비자안전에 노력	0.027	2.746	0.006
	관련 업체는 사고정보를 다양하게 제공	-0.016	-2.098	0.036
정부	가정내 소비생활 안전제도를 잘 운영	0.011	1.104	0.270
	가정내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	0.010	1.090	0.276
소비자	가정내 안전사고의 충분한 정보와 지식	0.023	2.708	0.007
	안전생활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	-0.011	-1.435	0.151
R2		0.040		
F		9.312		
유의도 (α)		0.000		

-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수 중 유의미한 t값을 나타낸 유통업자들의 안전노력, 관련 업체의 사고정보의 다양한 제공 노력, 가정내 안전사고의 충분한 정보 보유 등 변수 만을 가지고 모형을 구성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는 유통업자의 안전노력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업체에서의 사고정보의 다양한 제공 노력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정내 안전사고의 충분한 정보 보유 관련해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60.61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유통업자의 안전노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업자 안전노력을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
  - 한편, 관련 업체의 다양한 사고정보 제공 노력이 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업체 노력에 신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 소비자의 가정내 안전사고의 충분한 정보 보유는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를 높이는 것은 사고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 전달에 있음을 시사

## 5.2.4 여가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1)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여가 안전체감지수는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이에 따라 여가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는 12개의 여가군의 개별 품목에 대한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출

표 5.16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여가 안전체감 (품목별)	어린이 스쿠터/놀이용품	21.6	0.148	17.25	46.02
	레저용품	69.2	0.101	11.77	
	공공체육시설 및 놀이터	47.8	0.057	6.64	
	대형 놀이시설	25.7	0.164	19.12	
	공연시설	65.3	0.027	3.15	
	목욕시설	42.6	0.009	1.05	
	휴식시설	38.8	0.034	3.96	
	쇼핑시설	75.0	0.122	14.22	
	경 기 장	67.7	0.067	7.81	
	국립 및 도립공원	83.2	0.044	5.13	
	여행사를 통한 국내관광	49.1	0.031	3.16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	21.5	0.054	6.29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858	100.0	

- 가중치 산출은 ‘여가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품목의 가중치를 산출
- 즉,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12개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1은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품목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이에 따르면 먼저 여가군내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12개 품목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안전한 품목은 국립공원이 83.2점, 쇼핑시설 75.0점, 레저용품 69.2점 등으로 나타남



- 한편, 개별 품목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여가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대형 놀이시설이 19.12%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어린이 놀이용품이 17.25%, 쇼핑 시설 14.22%, 레저용품 11.77%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46.02점의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2)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여가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적절한 산출체계에 적용하여 산출
-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측정하고 이에 적절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개별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표 5.17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여가 안전체감 (위해요인)	스포츠용품 결함에 의한 찰과상과 부상	67.3	0.012	3.96	43.90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오염	41.6	0.032	10.56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	43.0	0.114	37.63	
	국내외 여행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	45.4	0.005	1.65	
	여가시설 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증	36.7	0.001	0.33	
	공공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8.6	0.060	19.80	
	공공시설 이용 중의 관람객 안전사고	47.0	0.075	24.75	
	여가서비스 이용 부주의에 의한 사고	55.8	0.004	1.32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303	100.0	

- 가중치 산출은 ‘여가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위해요인의 가중치를 산출
- 즉,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에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2는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이에 따르면 먼저 여가군내 개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8개 위해요인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심각성이 낮은 위해요인은 스포츠 용품 부상이 67.3점, 이용부주의 사고가 55.8점을 나타냄
  - 한편,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여가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산출
  -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가 37.63%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관람객 안전사고가 24.75%, 공공시설의 위생관리가 19.80%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43.90점의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3) 여가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여가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즉,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46.02점에 가중치 0.50을 곱한 값에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43.90점에 가중치 0.50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여가 안전체감지수 44.96점을 산출

표 5-18 여가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여가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발생 가능성)	46.02	0.50	44.96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위해 심각성)	43.90	0.50	
여가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4) 여가 안전체감지수의 소비자 특성별 분석

- 여가 안전체감지수 등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성별로는 품목별, 위해요인별 및 여가 전체 모두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3개 지수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안전체감이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 대체로 나이가 젊을수록 더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20대의 안전체감이 50.3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19 여가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여가 안전체감지수
전 체		652	46.0	43.9	45.0
성별	남 자	328	48.5	47.4	47.1
	여 자	324	43.5	40.4	42.8
	F		6.272**	14.360***	18.929***
연령	20 대	173	50.3	45.5	46.7
	30 대	192	46.2	41.9	44.1
	40 대	154	43.0	41.7	43.3
	50 대	98	44.3	46.5	45.9
	60대 이상	35	41.1	46.7	45.7
	F		2.143*	1.344	1.744
학력	중졸이하	35	35.9	44.8	43.8
	고 졸	222	46.1	47.0	46.4
	대 졸	338	47.7	41.7	44.3
	대학원졸	44	39.8	40.9	42.1
	F		3.152**	2.542*	2.147
직업	사무기술직	86	49.3	43.4	45.5
	생 산 직	19	44.8	47.8	46.5
	판매/영업직	105	50.2	46.9	47.4
	관 리 직	42	47.5	41.0	43.8
	공 무 원	28	44.1	45.9	45.5
	전 문 직	84	45.9	44.5	45.2
	전업주부	87	43.3	40.6	43.0
	학 생	51	50.8	46.1	46.9
F		0.800	0.813	1.125	
소득	100만원미만	32	41.2	50.5	46.8
	100 ~ 200만원	139	46.3	43.1	44.6
	200 ~ 300만원	162	44.6	42.2	43.9
	300 ~ 400만원	135	49.7	44.5	45.9
	400 ~ 500만원	76	48.2	46.4	46.6
	500 ~ 600만원	40	47.1	40.9	43.7
	600만원이상	44	42.3	42.0	43.2
	F		0.957	0.840	0.885

구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여가 안전체감지수	
전체	652	46.0	43.9	45.0	
혼인	기혼	407	45.4	43.3	44.6
	미혼	215	47.9	45.6	46.2
	F		1.288	1.156	2.034
취업	맞벌이	204	45.0	43.0	44.3
	외벌이	191	45.2	43.6	44.7
	F		0.014	0.064	0.091
세대	독신가구	68	45.1	49.6	47.4
	부부가구	115	46.2	41.3	43.8
	미취학2세대	71	51.9	43.9	46.3
	취학2세대	141	45.9	41.7	43.9
	성인자녀2세대	205	44.9	43.9	44.7
	3세대가구	35	42.4	47.4	46.0
	F		0.964	1.422	1.068
주택형태	아파트	360	48.7	43.1	45.2
	단독주택	132	43.8	44.7	44.9
	다세대/다가구	65	40.2	47.3	45.3
	연립·빌라	75	42.5	41.8	43.2
	F		3.231**	0.746	0.473
지역	서울	194	42.4	48.3	46.2
	부산	134	50.1	47.3	47.7
	대구	90	39.9	45.2	44.3
	광주	55	49.9	40.7	44.0
	대전	27	41.3	38.7	42.2
	인천	96	48.8	40.9	44.1
	울산	56	43.6	36.7	42.9
	F		3.340***	3.323***	2.026*

- 학력별로는 품목별 및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품목별 지수는 상대적으로 고졸 및 대졸 계층의 안전체감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이하 계층이 3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위해요인별 지수에 있어서는 고졸이 47.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 및 대학원졸의 안전체감이 각각 41.7점 및 40.9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택형태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의 경우에 아파트 거주자들이 48.7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들이 40.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 지역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부산 지역이 5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구 지역이 3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서울지역이 4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여가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부산 및 서울 지역이 각각 47.7점 및 46.2점을 나타내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낸 반면 대전 및 울산 지역은 각각 42.2점 및 42.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7) 여가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 이해당사자별 안전 대응 노력이 여가 안전체감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
- 여가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련성은 R2값이 0.084이고 F값이 20.112, 유의도가 0.000을 나타내 유의미한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
  -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수 중 t값의 유의도가 낮은 여행업체의 안전정보의 충분한 제공, 정부 차원의 위해정보 제공, 소비자 차원의 충분한 안전정보 보유는 모형 구성에서 제외
- 여가 안전체감지수는 사업자의 사고예방 노력과는 정의 상관관계를 업체의 안전 경시 풍조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소비자의 안전한 여가 소비 생활 실천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표 5-20 여가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독립 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수		0.327	9.798	0.000
사업자	놀이시설 운영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0.033	5.061	0.000
	업체들은 돈벌이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	-0.026	-4.517	0.000
	여행업체는 안전정보를 충분히 제공	0.005	0.591	0.555
정부	여가 소비생활 전반을 잘 관리	0.035	3.764	0.000
	위해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	0.012	1.464	0.143
소비자	생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정보 보유	0.006	0.669	0.504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을 실천	-0.016	-2.005	0.045
R2		0.084		
F		20.112		
유의도 (α)		0.000		

- 이는 사업자의 사고예방 노력이 여가 안전체감지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업체들의 안전 경시 풍조가 여가 안전체감지수를 낮출 수 있음을 나타냄
- 아울러 정부 차원의 여가 소비생활 전반의 효과적 관리 역시 여가 안전체감지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
- 소비자 차원에서는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 실천이 여가 안전체감지수를 높힐 수 있음에도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 실천이 오히려 위해불안감을 높이고 결국은 여가 안전체감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수행

### 5.2.5 교통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1)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교통 안전체감지수는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이에 따라 교통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는 12개 교통군의 개별 품목에 대한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합산하여 산출

표 5.21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교통 안전체감 (품목별)	개인 자동차	64.2	0.299	26.86	48.51
	오토바이	7.8	0.060	5.39	
	보행시설	34.3	0.116	10.42	
	택 시	28.7	0.061	5.48	
	시내버스	45.2	0.134	12.04	
	지 하 철	67.9	0.006	0.54	
	기 차	80.1	0.061	5.48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45.2	0.117	10.51	
	항 공 기	46.0	0.011	0.99	
	에스컬레이터	44.2	0.001	0.09	
	거주 아파트의 승강기	40.0	0.093	8.36	
	일반 승강기	31.6	0.154	13.84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1.113	100.0	



- 가중치 산출은 ‘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품목의 가중치를 산출
- 즉,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12개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1은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품목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이에 따르면 먼저 교통군내 개별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12개 품목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안전한 품목은 기차가 80.1점, 지하철 67.9점, 개인 자동차 64.2점을 나타냄
  - 한편, 개별 품목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품목별 가중치를 산출
  -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개인 자동차가 26.86%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일반 승강기가 13.84%, 시내버스 12.04%,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10.51%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48.51점의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2)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교통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적절한 산출체계에 적용하여 산출
-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측정하고 이에 적절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개별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표 5-22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 및 지수값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교통 안전체감 (위해요인)	자동차 정비예방 미비로 인한 사고	46.2	0.018	4.42	35.59
	난폭운전(급제동,과속) 등에 의한 사고	20.4	0.061	14.19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15.3	0.032	7.44	
	자동차 제품설계에 의한 사고	42.5	0.104	24.19	
	잘못 설계된 도로 구조에 의한 사고	45.7	0.083	19.30	
	관리 잘못에 의한 승강기 사고	37.0	0.062	14.42	
	업무 과중에 따른 졸음 운전 사고	29.7	0.006	1.39	
	지하철 역사내의 공기오염	34.2	0.063	14.65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433	100.0	

- 가중치 산출은 ‘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분석된 표준화된 개별 품목의 베타값을 이용하여 개별 위해요인의 가중치를 산출
- 즉,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에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8개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표5-2는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개별 가중치 산출 및 이를 이용한 최종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 내용을 요약
  - 먼저 교통군내 개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를 산출했는데, 총 8개 위해요인중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심각성이 낮은 위해요인은 정비예방 미비 사고가 46.2점, 설계잘못 도로사고가 19.30점을 나타냄
  - 한편, 개별 위해요인별 안전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교통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고 베타값을 산출하여 이를 토대로 위해요인별 가중치를 산출

-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에 있어서 자동차 제품설계에 의한 사고가 24.19%의 가중치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잘못 설계된 도로 구조에 의한 사고가 19.30%의 영향력을 나타냄
- 이상의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산출체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100점 만점에 35.59점의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3) 교통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교통 안전체감지수는 앞서 산출한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와 교통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
- 즉,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48.51점에 가중치 0.50을 곱한 값에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35.59점에 가중치 0.50점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교통 안전체감지수 42.05점을 산출

표 5-23 교통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교통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발생 가능성)	48.51	0.50	42.05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위해 심각성)	35.59	0.50	
교통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4) 교통 안전체감지수의 소비자 특성별 분석

- 교통 안전체감지수 등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에 있어서 먼저, 성별로는 품목별, 위해요인별 및 교통 전체 모두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3개 지수 모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안전체감이 보다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졸 및 대졸 계층이 각각 49.0점과 50.5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낸 반면 중졸이하 및 대학원졸 계층은 각각 40.0점 및 40.3점을 나타냄

표 5-24 교통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교통 안전체감지수
전 체		683	48.5	35.6	45.0
성별	남 자	356	53.1	39.2	44.8
	여 자	327	43.4	31.9	39.3
	F		42.304***	19.952***	34.188***
연령	20 대	171	50.5	37.6	43.5
	30 대	197	49.2	36.0	42.4
	40 대	171	47.5	34.5	41.3
	50 대	101	46.2	32.8	40.3
	60대 이상	43	46.7	36.9	42.4
	F		0.470	0.977	1.262
학력	중졸이하	35	40.0	36.2	40.8
	고 졸	222	49.0	35.4	42.1
	대 졸	338	50.5	35.2	42.3
	대학원졸	44	40.3	40.3	42.4
	F		2.814**	0.684	0.217
직업	사무기술직	78	52.0	37.1	43.6
	생 산 직	17	52.3	32.8	41.5
	판매/영업직	107	53.9	36.8	44.0
	관 리 직	51	51.0	38.3	43.9
	공 무 원	31	51.7	39.6	44.8
	전 문 직	92	44.2	34.6	40.6
	전업주부	90	46.2	30.3	39.2
	학 생	58	51.6	39.5	44.5
F		1.088	1.761	2.191**	
소득	100만원미만	31	50.1	39.5	44.1
	100 ~ 200만원	154	48.8	33.4	41.1
	200 ~ 300만원	173	47.9	35.1	41.7
	300 ~ 400만원	130	51.1	36.2	42.7
	400 ~ 500만원	78	48.5	36.0	42.2
	500 ~ 600만원	49	48.3	36.4	42.4
	600만원이상	44	47.3	36.7	42.3
	F		0.184	0.455	0.395

구 분		표본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교통 안전체감지수
전 체		683	48.5	35.6	45.0
혼인	기 혼	423	48.4	34.6	41.6
	미 혼	228	49.7	38.0	43.5
	F		0.278	3.495*	3.318*
취업	맞 벌 이	219	48.2	34.7	41.6
	외 벌 이	192	49.2	34.8	41.8
	F		0.125	0.001	0.039
세대	독신가구	82	51.0	39.8	44.7
	부부가구	112	53.2	34.4	42.4
	미취학2세대	69	52.8	35.6	43.0
	취학2세대	156	47.8	33.6	40.9
	성인자녀2세대	205	45.0	35.8	41.4
	3세대가구	40	46.8	38.6	43.1
	F		1.655	1.040	1.152
주택 형태	아 파 트	383	49.4	35.2	42.1
	단독주택	130	46.2	36.5	42.0
	다세대/다가구	63	46.2	32.2	40.0
	연립·빌라	79	49.4	36.2	42.5
	F		0.548	0.623	0.598
지역	서 울	191	45.0	36.4	41.7
	부 산	141	56.0	40.0	46.3
	대 구	87	43.7	35.5	41.1
	광 주	54	47.6	36.2	42.2
	대 전	44	44.9	34.1	40.8
	인 천	116	51.3	31.9	41.0
	울 산	50	47.1	31.9	40.0
	F		2.713**	1.642	2.715**

- 직업별로는 교통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 학생 및 공무원 계층이 각각 44.8점 및 44.5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낸 반면 전문직과 전업주부 계층은 각각 40.6점 및 3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는 위해요인별 및 교통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 기혼층에 비해 미혼층의 안전체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3개의 안전체감지수 모두에서 부산 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냈으며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대구 및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7) 교통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 이해당사자별 안전 대응 노력이 교통 안전체감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

표 5-25 교통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독립 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 수		0.272	9.086	0.000
사업자	자동차 업체는 안전 제품 생산 노력	0.004	0.528	0.598
	운수업체는 안전 중시, 사고예방 노력	0.015	1.919	0.055
	업체는 사고안전정보를 충분히 제공	0.002	0.254	0.800
정부	교통 관련 법정책을 잘 관리	0.038	4.322	0.000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에 노력	0.009	1.148	0.251
소비자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	-0.023	-3.173	0.002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행동 인지	0.009	1.346	0.178
R2		0.058		
F		13.400		
유의도 (α)		0.000		

- 교통 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련성은 R2값이 0.056이고 F값이 13.400, 유의도가 0.000을 나타내 유의미한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
  -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수 중 t값이 유의적인 변수는 정부의 교통 관련 법정책 관리 노력 및 소비자 차원의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 실천 등 2개 변수로 나타나 이들 변수만으로 모형을 구성
- 교통 안전체감지수는 정부 차원의 교통 관련 법정책을 잘 관리하는 것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노력이 시장 또는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이는 교통 안전체감지수를 제고
- 소비자 차원의 법규 준수 및 안전 실천은 교통 안전체감지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이는 안전 실천 노력이 교통 안전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위해불안감을 높이고 결국은 지수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시사

### 5.3 소비자 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1)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를 통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산출

-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5개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적절한 산출방식에 의해 해당 지수별 가중치 산출하고, 해당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산출된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영역별 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는 즉,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는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에 품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개별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고, 이들 12개의 품목별 안전체감지수를 합산하여 산출
-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가중치는 전체 소비생활 안전성 평가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생활 영역별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 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베타값을 이용하여 산출
  -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구성하는 생활 영역별 구성비는 식품이 36.47%로 가장 높고, 건강·위생이 26.10%, 교통이 18.92%, 주생활 10.50%를 나타냈으며 여가는 8.01%로 가장 낮은 구성비를 나타냄

- 앞서 산출된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고, 이렇게 산출된 지수를 합산하여 최종의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산출하게 되는데 금번 연구의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37.21점

표 5-26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를 통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

구 분		체감도 (점)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소비자 안전체감지수	식품 안전체감지수	32.40	0.264	36.47	37.21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28.59	0.189	26.10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60.76	0.076	10.50	
	여가 안전체감지수	44.96	0.058	8.01	
	교통 안전체감지수	42.05	0.137	18.92	
소비자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0.724	100.0	

## 2)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 비교 분석

- 앞서 산출된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해 소비자 특성별로 지수를 비교했는데, 성별로는 5개 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지만, 모든 지수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보다 높은 안전체감지수를 나타냄
- 연령별로는 식품과 안전·위생에 있어서 안전체감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지수 모두 6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더 높은 안전체감지수를 나타냄
- 직업별로는 식품과 교통 체감지수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품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학생 계층이 37.8점으로 가장 높은 체감지수를 나타낸 반면 전업주부는 27.8점으로 가장 낮은 체감지수를 나타냄
  - 교통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공무원 및 학생 계층이 각각 44.8점과 44.5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낸 반면 전업주부 계층은 39.2점



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 소득별로는 식품 및 주생활 안전체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식품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 계층의 안전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0만원대 및 500만원대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생활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500만원대 소득계층이 65.8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냈으며 100만원대 및 200만원대 소득계층의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는 식품, 건강·위생 및 교통 체감지수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3개 지수 모두에서 기혼층보다는 미혼층의 안전체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세대별로는 식품 안전체감지수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와 3세대 가구의 안전체감은 각각 34.5점과 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취학 2세대는 2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식품, 건강·위생, 여가 및 교통 체감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4개 지수 모두에서 부산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과 교통에서는 울산이, 건강·위생은 대구가, 여가는 대전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5-27 생활 영역별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식품	건강·위생	주생활	여가	교통
전 체		1,600	32.4	28.6	60.8	45.0	42.1
성별	남 자	800	36.1	30.5	62.7	47.1	44.8
	여 자	800	28.7	26.7	58.8	42.8	39.3
	F		61.541***	18.683***	15.467***	18.929***	34.188***
연령	20 대	379	36.6	29.9	59.8	46.7	43.5
	30 대	427	31.8	27.9	60.5	44.1	42.4
	40 대	373	31.0	27.6	61.2	43.3	41.3
	50 대	250	29.3	27.3	61.2	45.9	40.3
	60대 이상	171	32.1	31.5	61.8	45.7	42.4
	F		6.648***	2.375*	0.435	1.744	1.262
학력	중졸이하	112	30.6	31.6	59.2	43.8	40.8
	고 졸	602	32.9	29.1	60.6	46.4	42.1
	대 졸	767	32.7	27.8	60.9	44.3	42.3
	대학원졸	92	30.0	27.6	62.6	42.1	42.4
	F		1.002	1.826	0.537	2.147	0.217
직업	사무기술직	173	33.3	28.8	61.8	45.5	43.6
	생 산 직	49	31.8	33.3	58.2	46.5	41.5
	판매/영업직	216	33.9	30.0	61.6	47.4	44.0
	관 리 직	120	32.4	29.1	62.2	43.8	43.9
	공 무 원	69	32.8	27.8	61.5	45.5	44.8
	전 문 직	208	32.1	27.7	61.2	45.2	40.6
	전업주부	279	27.8	27.2	59.3	43.0	39.2
	학 생	140	37.8	29.7	59.6	46.9	44.5
F		4.150***	1.088	0.649	1.125	2.191**	
소득	100만원미만	76	35.1	31.6	60.6	46.8	44.1
	100 ~ 200만원	322	32.9	29.8	58.9	44.6	41.1
	200 ~ 300만원	431	34.0	28.9	59.6	43.9	41.7
	300 ~ 400만원	353	32.3	28.7	63.2	45.9	42.7
	400 ~ 500만원	184	29.6	26.7	60.4	46.6	42.2
	500 ~ 600만원	101	28.2	25.0	65.8	43.7	42.4
	600만원이상	96	31.7	27.4	59.4	43.2	42.3
	F		2.230**	1.695	2.882***	0.885	0.395

구분	표본수	식품	건강·위생	주생활	여가	교통	
전체	1,600	32.4	28.6	60.8	45.0	42.1	
혼인	기혼	1,054	30.8	27.9	60.8	44.6	41.6
	미혼	471	35.9	29.7	61.2	46.2	43.5
	F		23.124***	3.077*	0.141	2.034	3.318*
취업	맞벌이	457	31.5	27.4	62.0	44.3	41.6
	외벌이	548	30.1	28.3	60.3	44.7	41.8
	F		1.483	0.625	1.858	0.091	0.039
세대	독신가구	156	34.5	30.4	62.5	47.4	44.7
	부부가구	284	32.5	28.7	60.5	43.8	42.4
	미취학2세대	157	32.6	27.9	60.3	46.3	43.0
	취학2세대	379	29.5	27.2	60.3	43.9	40.9
	성인자녀2세대	493	33.0	29.0	60.9	44.7	41.4
	3세대가구	99	34.3	30.1	59.6	46.0	43.1
	F		2.410**	1.017	0.379	1.068	1.152
주택형태	아파트	886	31.5	27.9	61.3	45.2	42.1
	단독주택	328	33.3	29.7	59.0	44.9	42.0
	다세대/다가구	151	34.3	28.2	59.5	45.3	40.0
	연립·빌라	178	32.8	29.3	60.9	43.2	42.5
	F		1.368	0.922	1.259	0.473	0.598
지역	서울	440	30.2	28.2	60.8	46.2	41.7
	부산	256	37.4	33.0	65.2	47.7	46.3
	대구	220	31.0	25.9	59.3	44.3	41.1
	광주	162	31.6	29.8	57.1	44.0	42.2
	대전	162	33.5	26.9	60.3	42.2	40.8
	인천	220	34.6	27.2	60.7	44.1	41.0
	울산	140	28.5	28.6	59.6	42.9	40.0
	F		5.708***	4.025***	0.002	2.026*	2.715**

### 3)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특성별 분석

-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품목별, 위  
해요인별 및 전체 안전체감지수 모두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지만 3개  
지수 모두가 여성보다는 남성의 안전체감지수가 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3개 지수 모두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60  
대 이상을 제외하면 나이가 젊을수록 더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 학력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만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고졸 및 대졸 계층의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중졸  
이하는 3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직업별로는 3개 지수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품목별 체감  
의 경우는 학생 및 판매영업직의 안전체감이 각각 44.9점 및 4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직과 전업주부 계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위해요인별 및 전체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학생 계층이 각각 35.0점  
과 40.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업주부 계층은 각각  
27.0점과 34.4점을 나타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혼인여부별로는 품목별, 위해요인별, 전체 등 3개 안전체감지수 모두가 유  
의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3개 지수 모두가 기혼층보다는 미혼층의  
안전체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세대별로도 3개 체감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데 품목별 체감지수는 독신가구와 부부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취학  
2세대가 가장 낮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 위해요인별 및 전체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는 독신가구가 각각 35.2점과  
39.3점으로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냈으며, 취학 2세대는 각각 28.7점  
과 35.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 주택형태별로는 품목별 안전체감지수에 있어서 아파트 거주자는 43.4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는 40.8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5-28 소비자 안전체감지수에 대한 소비자 특성별 분석

구 분		표본수	전체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전체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소비자 안전체감지수
전 체		1,600	43.0	31.4	37.2
성별	남 자	800	45.1	34.9	40.0
	여 자	800	40.9	28.0	34.5
	F		40.743***	35.275***	63.481***
연령	20 대	379	44.7	34.1	39.4
	30 대	427	42.9	30.7	36.8
	40 대	373	42.5	30.0	36.2
	50 대	250	41.2	29.9	35.5
	60대 이상	171	43.2	32.9	38.1
	F		2.967**	2.104*	3.863***
학력	중졸이하	112	39.7	34.0	36.8
	고 졸	602	43.4	31.9	37.6
	대 졸	767	43.5	30.7	37.1
	대학원졸	92	41.4	30.8	36.1
	F		3.298**	0.788	0.413
직업	사무기술직	173	43.6	32.5	38.1
	생 산 직	49	43.5	32.5	38.0
	판매/영업직	216	45.0	32.5	38.8
	관 리 직	120	44.5	31.0	37.7
	공 무 원	69	43.2	32.3	37.8
	전 문 직	208	41.9	31.5	36.7
	전업주부	279	41.7	27.0	34.4
	학 생	140	44.9	35.0	40.0
F		1.883*	2.100**	3.047***	
소득	100만원미만	76	43.3	35.7	39.5
	100 ~ 200만원	322	43.5	31.1	37.3
	200 ~ 300만원	431	43.4	31.9	37.6
	300 ~ 400만원	353	43.0	32.4	37.7
	400 ~ 500만원	184	42.7	28.9	35.8
	500 ~ 600만원	101	43.7	26.8	35.2
	600만원이상	96	41.5	31.3	36.4
	F		0.391	1.558	1.117

구 분		표본수	전체 품목별 안전체감지수	전체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지수	소비자 안전체감지수
전 체		1,600	43.0	31.4	37.2
혼인	기 혼	1,054	42.5	30.2	36.3
	미 혼	471	44.4	33.9	39.2
	F		7.283***	8.472***	13.561***
취업	맞 벌 이	457	42.7	30.5	36.6
	외 벌 이	548	42.4	30.0	36.2
	F		0.131	0.115	0.202
세대	독신가구	156	43.5	35.2	39.3
	부부가구	284	43.6	30.9	37.2
	미취학2세대	157	43.3	31.4	37.4
	취학2세대	379	42.2	28.7	35.4
	성인자녀2세대	493	43.0	31.8	37.4
	3세대가구	99	43.0	34.0	38.5
	F		2.123*	2.086*	2.086*
주택 형태	아 파 트	886	43.4	30.1	36.8
	단독주택	328	42.2	33.1	37.6
	다세대/다가구	151	40.8	33.9	37.3
	연립·빌라	178	43.3	31.7	37.5
	F		2.311*	2.050	0.354
지역	서 울	440	40.9	31.8	36.3
	부 산	256	47.2	36.2	41.7
	대 구	220	42.5	28.8	35.6
	광 주	162	41.7	31.9	36.8
	대 전	162	43.0	30.3	36.7
	인 천	220	45.2	29.6	37.4
	울 산	140	40.8	29.4	35.1
	F		8.503***	2.720**	5.691***

- 지역별로는 3개 안전체감지수 모두 부산 지역 거주자들이 가장 높은 안전체감을 나타냈으며, 품목별 지수에서는 서울과 울산이, 위해요인별 지수에서는 대구가, 전체 지수에 있어서는 울산이 가장 낮은 안전체감을 나타냄

4) 소비자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 분석

- 이해당사자별 안전 대응 노력이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
- 소비자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련성은 R2값이 0.159이고 F값이 91.832, 유의도가 0.000을 나타내 유의미한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
  -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변수 모두가 유의적인 t값을 나타내 3개 변수 모두가 분석 모형을 구성
-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정부의 법제 및 정보관리 노력과 사업자의 안전노력 등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소비자의 안전대응 노력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이는 정부의 법제 및 정보관리 또는 사업자의 안전노력이 강화될수록 소비자안전체감지수가 제고될 수 있음을 나타냄

표 5.29 소비자안전체감지수와 이해당사자 대응노력간 관계분석

독립 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수	0.374	108.537	0.000
정부의 법제 및 정보 관리	0.036	10.462	0.000
사업자의 안전 노력	0.043	12.569	0.000
소비자의 안전대응 노력	-0.010	-2.842	0.005
R2	0.159		
F	91.832		
유의도 (α)	0.000		

- 하지만,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소비자의 안전대응 노력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소비자의 안전대응 노력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비자안전체감지수가 소비자 스스로의 상당한 위해불안감 인식에 의해 매우 낮은 상황이고 사업자의 안전노력 및 정부의 안전관리 노력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상당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
- 이는 소비자의 안전대응 노력이 시장에서의 사업자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오히려 위해불안감을 줄이기 보다는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이는 결국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







2007 소비자안전 체감지수	종합적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37.21점을 기록, 5대 부문별 지수는 100점 만점에 식품부문 32.40점, 건강·위생 28.59점, 주거 60.76점, 교통 42.05점, 여가 44.96점을 나타냄
-----------------------	---

## VI.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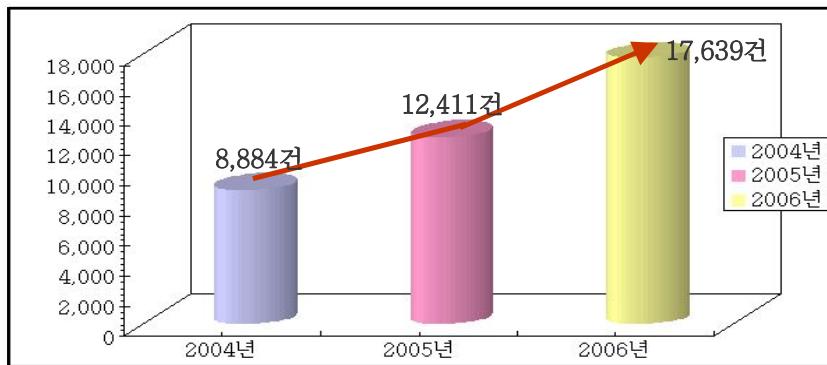
### 6.1 요약 및 결론

#### 1) 연구 배경

- 최근 소비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안감이 점차 확산
  - 중국산 수입생선의 항생물질, 미 소고기 광우병, 집단급식사고, 플라스틱·음료캔 등의 환경호르몬과 같은 각종 식품위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 건강과 여가에 따른 관심 증대로 다이어트 관련제품이나 대형 놀이시설 등의 이용 증대에 따른 안전사고도 급증
  - 또한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새집증후군이나 바닥 미끄럼 등, 주생활 혹은 가정 내 소비생활의 안전이 주요 이슈로 등장

- 소비자위해 신고건수 및 상담건수 등 각종 관련 통계치도 상승
  -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의 신고건수는 2004년 8,884건에서 2006년 17,639건으로 증가 (198.5% ↑)
  - 소비자위해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04년 3,451건에서 2006년 4,987건으로 증가 (144.5% ↑)
  - ※동 기간 내 전체 소비자상담건수는 113.4% 증가

그림 6.1 소비자위해정보건수 추이



자료 : 2006 소비자위해정보백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안전정책을 매년 강화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소비자기본법 내 소비자안전강화(200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법정기구화(2007) 등
  - 수산물이력추적제 시범실시(2005),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2006) 등
- 그러나 우리 사회전반의 소비자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부재
  - 소비자안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관련지표가 양적·질적으로 미흡
  -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안전 및 위해요소의 정도를 분석하여 그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 소비자안전정책의 우선순위 발굴이 가능
  - 또한 이러한 소비자안전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신뢰나 안전커뮤니케이션 등의 요소를 찾아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바탕 하에 지표체계 및 산출방식을 정교화하여, 향후 지속적 지수 산출의 기준점이 될 소비자안전체감지수를 산출
  - 측정영역을 소비생활에 관련된 5대 부문(식품/건강/주거/여가/교통)으로 구분하고, 총 62개 품목과 40개 위해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
  - 선행연구가 가졌던 한계점, 즉, 측정대상이 품목에 국한되어 위해요인 등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부족했던 점이나 지수의 값이 위해체감이 높을수록 높아져 소비자위해체감지수로 해석되는 점 등을 보완
  - 또한 품목별 지수산출보다는 5대 부문별 지수산출에 보다 중점을 둬으로써,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소비자안전을 문제 삼기보다 소비자안전정책 전반의 우선순위 발굴에 보다 노력

## 2) 연구 체계

- 소비자안전체감지수(CSSI: Consumer Safety Sentiment Index)의 개념
  - 소비자부문에 대한 국민의 안전체감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단하기 위한 지표
  - 소비생활에 관련된 5대 부문(식품, 건강·위생, 주거, 여가, 교통)을 대상
- 산출 지표체계
  - 2007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위해불안감과 위해심각성을 양대 지표로, 일명 ‘T자형 방식’으로 측정
    - 위해불안감은 주요 품목별로 안전체감을 측정하는 것이며(표면적 측정)
    - 위해심각성은 주요 위해요인별로 안전체감을 측정(구조적 측정)하는 것으로, 일명 ‘T자형 측정’이 가능<sup>10)</sup>

10) 최근 T자형 인재, T자형 사고 등 “T자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폭이 넓으면서도 한 두 분야에서 깊이가 있는 것을 의미. 본 안전체감지수의 산출방식을 T자형 측정이라고 쓴 것은, 62개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품목과 40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위해요인을 측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식품 소비자안전체감지수는 식품 부문의 14개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으로 측정)과 8개 주요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으로 측정)을 가중치로 환산하여 합산
- o 100점 만점으로, 값이 높을 수록 안전체감이 높음<sup>11)</sup>

**2006년의 체계**

- o 주요 지표 : 5대 부문별로 주요 품목을 측정단위로 위해(발생)불안감, 위해심각성, 위해통제가능성의 3가지 지표로 측정
- o 문 제 점 : 품목 만이 측정대상이어서 현상적.이미지 평가에 그치는 측면이 존재 또한 '위해통제가능성' 지표는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

3) 실태 조사 및 분석

□ 실태조사 개요 : 다음 <표 1>과 같음

**표 6.1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전국 7대 도시(서울 및 6대 도시)의 20세 이상 남녀
표 본 크 기	1,600명 (유효 표본기준)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다단계 비례층화추출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설문조사 문항수	6개 영역, 40개 항목, 70개 문항 내외
조사 기간	2007. 7. 30 ~ 8. 12 (2005, 2006년과 거의 동일한 시기)

□ 자료의 분석방법

- 각각의 여러 조사내용별 분석은 SPSS 14.1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 등 일반적인 빈도 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Simple, Multiple Regression),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을 실시

11) 2006년 조사의 경우는 이와 반대였음. 즉, 소비자위해체감으로 정리됨.

□ 표본 추출과 관련된 조사대상의 특성

표 6.2 조사대상의 특성(일부)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구 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1600	100.0	전체		1600	100.0
성별	남성	800	50.0	지역별	서울	440	27.5
	여성	800	50.0		부산	256	16.0
연령별	20대	379	23.7		대구	220	13.8
	30대	427	26.7		광주	162	10.1
	40대	373	23.3		대전	162	10.1
	50대	250	15.6		인천	220	13.8
	60대 이상	171	10.7		울산	140	8.8

4) 주요 연구 결과

(1)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전체적 경향

□ 종합 지수는 100점 만점에 37.21점

- 이는 소비자가 각종 소비생활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및 사용할 때, 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며 이로 인한 각종 위해요인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정도가 100점을 최고로 할 때 37.2점의 수준임을 의미
- 종합 지수를 구성하는 5대 부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식품(Beta값<sup>12)</sup> 0.264), 건강.위생(0.189), 교통(0.137), 주거(0.076), 여가(0.058) 순 (<표 3>)
  - 주거 여가의 안전체감지수값은 높지만 식품과 건강.위생 안전체감지수 값에 따라 종합지수가 낮아짐.

12) 이는 소비자안전전반에 대한 안전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부문별 안전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후의 회귀값으로, 회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큰 것으로 해석됨





표 6.3 종합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식품	건강.위생	주거	교통	여가
부문별 안전체감지수		32.40	28.59	60.76	42.05	44.96
가중치	Beta값	0.264	0.189	0.076	0.058	0.137
	구성비	36.47	26.10	10.50	8.01	18.92
종합 지수(Σ)		37.21				

- 5대 부문별 지수는 100점 만점에 식품부문 32.40점, 건강.위생 28.59 점, 주거 60.76점, 교통 42.05점, 여가 44.96점
  - 주거부문의 안전체감이 가장 높고, 다음에 여가, 교통, 식품, 건강.위생 순으로, 건강.위생분야의 안전체감이 가장 낮음
  - 이러한 안전체감의 순서는 2006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2006년의 경우 여가, 주거, 교통, 식품, 의약(건강.위생) 순

(2)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부문별 경향

- 식품부문 안전체감지수는 품목별 안전체감과 요인별 안전체감 가중합 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41.63점, 23.16점으로 나타남

표 6.4 식품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점)	가중 구성비	지수값(점)
식품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41.63	0.50	32.40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23.16	0.50	
식품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안전체감은 유제품이 가장 높고(74.3), 국산농산물(71.3), 음료(63.1) 순이며, 수입수산물(9.8), 수입축산물(11.6), 수입농산물(22.5), 냉동식품(29.6)등이 낮게 나타남
  - 특히 체감도가 낮은 수입축산물이나 냉동식품 등이 식품안전체감 전반에 미치는 가중치가 높아 식품 안전체감이 41.63점으로 나타남

표 6.5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	국산 농산물	71.3	0.111	9.33	41.63
	국산 수산물	49.6	0.079	6.64	
	국산 축산물	55.3	0.116	9.75	
	수입 농산물	22.5	0.073	6.13	
	수입 수산물	9.8	0.026	2.18	
	수입 축산물	11.6	0.228	19.17	
	수입 건어물	49.0	0.007	0.59	
	절임 식품	50.4	0.052	4.37	
	즉석 식품	49.3	0.097	8.15	
	훈연 식품	38.5	0.075	6.30	
	냉동 식품	29.6	0.120	10.08	
	유 제 품	74.3	0.089	7.48	
	빵·과자류	55.1	0.075	6.30	
	음 료	63.1	0.042	3.53	
식품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1.1900	100.0	

- 요인별 안전체감은 GMO(36.7)과 학교집단급식(33.6)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입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팔기(16.6),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20.1)이 가장 낮음

표 6.6 식품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식품 요인별 안전체감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잔류농약	29.1	0.115	26.56	23.16
	GMO (유전자 재조합식품)	36.7	0.023	5.31	
	광우병, 조류독감	20.1	0.009	2.08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20.2	0.076	17.55	
	학교 집단급식	33.6	0.032	7.39	
	1회용 포장용기의 유해성	26.2	0.003	0.69	
	식품 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	24.3	0.021	4.85	
	수입농축산물 국내산으로 속여팔기	16.6	0.154	35.57	
식품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4330	100.0	

- 건강·위생부문 안전체감지수 역시 품목별 안전체감과 요인별 안전체감 가중합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32.90점, 24.28점으로 나타남

- 품목별 안전체감은 위생세제가 가장 높고(77.9), 건강기구(62.9), 화장품(51.3) 순이며, 다이어트약품(7.8), 비만관리서비스(17.8)이 낮음

표 6.7 건강·위생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 (점)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의약건강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32.90	0.50	28.59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24.28	0.50	
식품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표 6.8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	처방전없이 사는 의약품	27.6	0.045	32.90
	다이어트용 약품	7.8	0.137	
	건강(보조) 식품	29.5	0.085	
	건강기구	62.9	0.047	
	건강보조기구	46.2	0.051	
	위생용품	48.0	0.121	
	시력용 렌즈	49.0	0.095	
	위생세제	77.9	0.005	
	화 장 품	51.3	0.065	
	피부미용서비스	50.0	0.079	
	비만관리서비스	17.8	0.121	
	기 호 품	19.9	0.028	
건강·위생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8790	100.0	

표 6.9 건강·위생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건강·위생 위해요인 안전체감	효능·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	22.1	0.001	24.28
	안전 고려않은 건강 기구 생산	32.8	0.013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 유통	21.0	0.004	
	무자격 피부미용 관리	31.7	0.008	
	위생/미용제품의 유해화학물질 첨가	26.3	0.024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	25.0	0.047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	22.7	0.096	
	지나친 음주나 흡연	23.5	0.017	
건강·위생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2100	100.0	

- 요인별 안전체감은 부적합한 수입한약재 유통(21.0)이 가장 낮고, 효능·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22.1), 허위과장 다이어트 관련제품(22.7), 지나친 음주와 흡연(23.5) 순으로 나타남
- 주생활부문 안전체감지수 역시 품목별 안전체감과 요인별 안전체감 가중합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60.61점, 60.91점으로 나타남

표 6.10 생활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 (위해불안감)	60.61	0.50	60.76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위해심각성)	60.91	0.50	
주생활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표 6.11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	가전제품	85.5	0.191	29.84
	취사기기	51.1	0.043	6.72
	조리기구	66.8	0.103	16.09
	플라스틱 용기	46.1	0.013	2.03
	스팀 청소기/다리미	49.8	0.006	0.94
	에어컨/공기청정기	66.8	0.038	5.94
	침대/식탁/거실 가구	84.6	0.032	5.00
	가정내 석유/가스보일러	37.3	0.044	6.88
	전기/히터, 온풍기	33.4	0.016	2.50
	가정내 욕실/베란다	59.6	0.088	13.75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	28.8	0.063	9.84
	새집 벽지/장판	17.6	0.003	0.47
주생활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6400	100.0	60.61

- 품목별 안전체감은 가전제품이 가장 높고(85.5), 가구(84.6), 에어컨(66.8) 순이며, 새집벽지·장판(17.6),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29.8)이 낮음

- 요인별 안전체감은 부적합한 용품소재의 유해 화학물질(36.4)이 가장 낮고, 침구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감염(47.0) 순이었고, 생활용품 사용부주의로 다치거나(68.1), 조리과정의 사고(68.0), 가전제품 감전.합선사고(62.6)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나타남

표 6.12 주생활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 (점)
			Beta값	구성비 (%)	
주생활 위해요인 안전체감	가전제품의 감전/합선 사고	62.6	0.084	20.35	60.91
	소비생활 제품 결함 사고	64.2	0.055	13.32	
	용품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36.4	0.016	3.87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폭발위험	53.3	0.053	12.83	
	침구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감염	47.0	0.038	9.20	
	조리 등에서 손 베이거나 화상사고	68.0	0.072	17.43	
	생활용품 사용부주의로 다침	68.1	0.089	21.55	
	노인.자녀들의 가정내 안전사고	53.7	0.006	1.45	
주생활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4130	100.0	

- 여가부문 안전체감지수는 품목별 안전체감 46.02점, 요인별 안전체감 43.92점으로 가중합산되어 이루어짐

표 6.13 여가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 (점)
여가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46.02	0.50	44.96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43.90	0.50	
여가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품목별 안전체감은 국립 및 도립공원이 가장 높고(83.2), 쇼핑시설(75.0), 레저용품(69.2) 순이며,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21.5), 어린이스쿠터.놀이용품(21.6), 대형놀이시설(25.7)이 낮음

표 6.14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	어린이 스쿠터/놀이용품	21.6	0.148	17.25
	레저용품	69.2	0.101	11.77
	공공체육시설 및 놀이터	47.8	0.057	6.64
	대형 놀이시설	25.7	0.164	19.12
	공연시설	65.3	0.027	3.15
	목욕시설	42.6	0.009	1.05
	휴식시설	38.8	0.034	3.96
	쇼핑시설	75.0	0.122	14.22
	경 기 장	67.7	0.067	7.81
	국립 및 도립공원	83.2	0.044	5.13
	여행사를 통한 국내관광	49.1	0.031	3.16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	21.5	0.054	6.29
여가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8580	100.0	46.02

표 6.15 여가 요인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여가 위해요인 안전체감	스포츠용품결함에 의한 찰과상, 부상	67.3	0.012	3.96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오염	41.6	0.032	10.56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	43.0	0.114	37.63
	국내외 여행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	45.4	0.005	1.65
	여가시설 관리자들의 안전 불감증	36.7	0.001	0.33
	공공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38.6	0.060	19.80
	공공시설 이용 중 관람객 안전사고	47.0	0.075	24.75
	여가서비스 이용 부주의에 의한 사고	55.8	0.004	1.32
여가 위해요인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0.3030	100.0	43.90

○ 요인별 안전체감은 여가시설관리자의 안전 불감증(36.7)과 공공시설 위생관리(38.6)이 낮고, 스포츠용품 결함에 의한 찰과상과 부상(67.3), 여가서비스 이용부주의에 의한 사고(55.8)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나타남

□ 교통부문 안전체감지수는 품목별 안전체감 48.51점, 요인별 안전체감 35.59점으로 가중 합산되어 이루어짐

표 6.16 교통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구 분		체감도	가중 구성비	지수값(점)
교통 안전체감지수	품목별 안전체감(위해불안감 지표)	48.51	0.50	42.05
	요인별 안전체감(위해심각성 지표)	35.59	0.50	
교통 안전체감지수 가중치 합계			1.00	

○ 품목별 안전체감은 기차(80.1), 지하철(67.9), 개인자동차(64.2) 순이며, 오토바이(7.8), 택시(28.7), 일반승강기(31.8)이 낮음

표 6.17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

구 분		체감도	가중치 산출		지수값(점)
			Beta값	구성비(%)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	개인 자동차	64.2	0.299	26.86	48.51
	오토바이	7.8	0.060	5.39	
	보행시설	34.3	0.116	10.42	
	택 시	28.7	0.061	5.48	
	시내버스	45.2	0.134	12.04	
	지 하 철	67.9	0.006	0.54	
	기 차	80.1	0.061	5.48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45.2	0.117	10.51	
	항 공 기	46.0	0.011	0.99	
	에스컬레이터	44.2	0.001	0.09	
	거주 아파트의 승강기	40.0	0.093	8.36	
	일반 승강기	31.6	0.154	13.84	
교통 품목별 안전체감 가중치 합계			1.1130	100.0	

- 요인별 안전체감은 음주운전사고(15.3), 난폭운전 등에 의한 사고(20.4), 업무과중에 의한 졸음운전사고(29.7)가 낮게 나타남

(3)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식품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혼인여부, 가족세대구성,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20대이고, 직업이 학생이고, 소득이 300만원 이하이고, 미혼이고, 독신가구이고, 부산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변수인 정부정책신뢰, 사업자대응수준 평가, 소비자안전확보노력과 안전체감지수와의 관계는  
 .정부정책신뢰, 사업자대응수준 평가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소비자안전확보노력과는 유의한 부적관계를 가짐

표 6.18 소비자인식변수와 식품안전체감지수와의 관계

독립변수		회귀계수	t값	유의도
상수		0.122	4.118	0.000
사업자대응평가	농축산 농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노력	0.013	1.936	0.053
	가공/제조업자들의 위생적인 식품제조	0.031	4.030	0.000
	유통업자의 안전한 유통 노력	0.019	2.532	0.011
	급식업체의 좋은 식재료, 안전음식 제공	0.010	1.450	0.147
정부정책신뢰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효과적 집행	0.033	5.017	0.000
	숨방망이 처벌에 의한 범죄 근절 애로	-0.011	-2.527	0.012
소비자안전노력	식품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0.013	2.006	0.045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 노력	-0.034	-6.113	0.000
R <sup>2</sup>		0.132		
F		28.903		
유의도 (α)		0.000		



□ 건강.위생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혼인여부,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연령이 20대이고, 미혼이고, 독신가구이고, 부산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 변수에서는 3변수 모두 유의미. 방향은 식품과 유사

□ 주생활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소득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소득이 500~600만원인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 변수에서는 정부정책신뢰와 소비자안전확보노력이 유의미

□ 여가생활의 경우

- 인구통계적 변수에서는 성별, 지역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이고, 부산지역에 사는 소비자들이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비자인식 변수에서는 3변수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소비자안전확보노력의 경우도 정적인 유의 관계를 보임

□ 교통생활의 경우

- 성별, 직업, 혼인여부, 지역, 정부정책신뢰, 소비자안전확보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음  
.남성, 직업이 공무원, 미혼, 부산지역소비자,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안전확보노력이 낮을수록 안전체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4) 품목별.요인별 총괄 비교

- 5대 생활부문 총 62개 품목에서 위해불안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최고 92.2점(다이어트약품, 오토바이), 최저 14.5점(가전제품)으로 나타남

- 위해불안감이 높은 상위 10개 품목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이어트약품, 오토바이 다음으로는 수입수산물(90.2), 수입축산물(88.4), 새집장판.벽지(82.4), 비만관리서비스(82.2), 음주나 흡연(80.1), 여행을 통한 해외관광(78.5), 어린이스쿠터.놀이용품(78.4), 수입농산물(77.5)로 나타남  
.이를 분석하면 주로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려, 다이어트약품 및 비만 관리서비스, 신종제품에 따른 주생활안전,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이 최근 소비자안전의 가장 큰 이슈이며, 이에 덧붙여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오토바이, 음주나 흡연, 어린이용품 등이 주요 안전관련 제품
- 위해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하는 품목을 7개 정도 순서대로 제시하면, 가전제품 다음으로는 가구(15.4), 국립.도립공원(16.8), 기차(19.9), 위생세제(22.1), 유제품(25.7), 국산농산물(28.7) 등임

□ 5대 생활부문 총 40개 위해요인의 심각성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 최고 84.6점(음주운전사고), 최저 31.9점(스포츠용품에 의한 찰과상 및 부상)으로 나타남
- 위해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0개 요인을 차례로 나열하면, 음주운전사고, 수입농수축산물 국내산 속여팔기(83.3), 광우병.조류독감(79.8),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79.6), 난폭운전사고(79.5), 효능이나 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77.8),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제품(77.0), 지나친 음주나 흡연(76.8), 식품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75.6),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74.8) 등  
.이를 분석하면 각종 식품관련 항생제남용이나 광우병, 조류독감 등에 대한 장기적인 신체손상에 대한 우려는 음주나 흡연에 비해 높고,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역시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보임

## 6.2 소비자안전정책 및 지수개발에 대한 제언

### 1) 소비자안전정책을 위한 제언

-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는 건강.위생 부문과 식품, 여가 부문
  - 건강.위생 부문은 다이어트약품이나 비만관리서비스, 항생제 남용, 부적합한 재료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교육이 필요
  - 식품은 전체 소비자안전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특히 수입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 및 표시제도가 엄격히 지켜지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최근 수산물추적제와 같이 개선되는 제도들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독려
  
- 품목별로 보면 위해불안감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각 해당부처별 세부지표 개발도 검토
  - 62개 품목 중에서 위해불안감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수준이 높아진다면 안전체감지수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흡연’을 기준으로 할 때(위해 100점 만점에서 80.1), 수입수산물, 수입축산물, 다이어트용 약품, 비만관리서비스, 새집벽지 장판, 오토바이 등)으로, 이들의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한 소비자안전정보 확보 및 안전품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
  - 또한 흡연보다 높지는 않았지만, 해외여행서비스, 대형놀이시설서비스 등 위해체감이 높은 서비스 부문에 대해 안전관리기준 및 지침이 마련.강화될 필요
  - 어린이용품이나 기구의 경우 여러 부처가 종합하여 별도의 안전지표 개발이 필요
  
- 위해요인별로 보면 위해심각성이 높은 위해요인에 대한 관리정책 및 집중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필요
  - 40개 위해요인 중에서 역시 ‘흡연’을 기준으로 할 때, 광우병.조류독감,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수입농수축산물 국내산 속여팔기, 효능이나 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 부적합한 수입한약재 유통, 허위과장의 다이어

트 제품 등, 심각성이 높은 위해요인에 대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채널이 개발될 필요

## 2) 소비자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제언

○ 안전체감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제고할 소비자안전정보정책의 개선이 필요

- 본 소비자안전체감지수에서 유의하게 안전체감이 낮은 품목이나 위해요인들을 살펴보면 주로 지난 1년간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되었던 안전사고관련 품목과 요인과 상당히 유사함
-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이슈나 한 번의 사고보도에 따라 막연한 불안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안전정보의 양을 보다 증대시켜야 함
- 특히 소비자들은 안전정보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며, 시장 내에서 안전정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안전정보정책이 긴급히 요구
-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확보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행지침 제공이 필요

## 3) 향후 지속적 지수개발 방향

○ 측정대상

- 62개 품목 및 40개 위해요인의 지속적 검토를 통한 보완이 필요

○ 산출방정식

- 품목별 안전체감과 위해요인별 안전체감의 가중치 산정을 다른 방식(예를 들면 통계적 가중치 산정 등)으로 접근해보는 일이 필요

○ 지속적 산출 방안

- 1년에 1회 지수를 산출하여 연도별 변화추이를 파악할 필요







[참고문헌]

- 국립환경연구원.OECD(2005), 안전수행지표(SPI)에 관한 OECD지침서(화학물질 관리프로그램 관련)
- 권대우(2004), 『소비자안전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 김태구, 강재구, 이내우(2004),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국제기준의 비교 및 발전방향, 한국안전학회
- 녹색교통(2004), “교통문화지수 산출” <http://www.greentransport.org>
- 배순영(2006),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기본모형 개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29호, 2006.6.
- 배순영 . 김성천 . 이기현 . 김현주,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개발 및 산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06-02, 한국소비자보호원
- 삼성방재연구소(2004), 위험관리, 2004년 봄호
-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2005(3차, 4차), 2006(1차, 2차) 회의록
- 식품의약품안전청(2004), 『식품공전』
- 양덕순 . 이기춘(2002), “소비자의 안전의식을 고려한 제조물책임법의 재검토”, 『소비자학 연구』, 13(1).
- 인천시 소비자정보센터(2004), “식품에 관한 소비자조사”
- 이기현(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 06-04
- 재정경제부 . 한국소비자보호원(2005), 『소비자안전체감지수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 정기혜 . 윤시문 . 김영례 . 서정현(2004),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인철 . 정윤희(2004), 『원자력 안전체감 영향요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안전기술원
- 통계청(2004), 각종통계발간 현황
- 통계청(2005),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생산성본부(2006),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http://www.ncsi.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2004),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시스템 목록  
\_\_\_\_\_ (2006), 소비자안전센터 안전보고서
- 한국원자력연구소(2004), 원자력 위험도 관리기술개발
- 황정선(2005),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안전체감지수 개발연구』, 한국승강기관리원.
- Adler, P. S. and Kranowitz Jeremy L.(2005), "A Primer on Perceptions of Risk Communication and Building Trust",  
<http://www.netl.doe.gov/publication>.
- Atman, C. J., A. Bostrom, B. Fischhoff and M. G. Morgan(1994), "Designing Risk Communications: Completing and Correcting Mental Models of Hazardous Processes, Part I," Risk Analysis, 14, 5, 779-788.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on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2005) Development of indicators on consumer satisfaction and pilot survey.
- FSIS(2005) Food Safety Education Conference: Reaching At-Risk Audiences and Today's Other Food Safety Challenges  
[http://www.fsis.usda.gov/Food\\_Safety\\_Education/index.asp](http://www.fsis.usda.gov/Food_Safety_Education/index.asp)
- IBM Palisades Executive Conference center(2002), "Risk Management Strategies in an Uncertain World."
- Sandman. P.M.(1987), "Risk Communication: Facing Public outrage", *EPA Journal*(Nov. 1987).  
\_\_\_\_\_, (1994), "Risk Communication", In *Encyclopedia of the Enviroment*, Boston, Houghton Mifflin.  
\_\_\_\_\_(1999), "Risk=Hazard+ Outrage" Engineering News-record, Octorber 4.
- Slovic, P.(1999), "Trust, Emotion, Sex, Politics & Science: Surveying the Risk Assessment Battlefield", Risk Analysis, vol.19 No. 4.
- he Calvert-Henderson Public Safety Indicator, <http://www.calvert-henderson>.





부록 1. 품목별, 위해요인별 종합적 비교

□ 62개 품목의 위해체감도(100-안심체감) 비교

부문	품목 (62)	위해체감도
식품 (14)	1. 국산농산물	28.7
	2. 국산수산물	50.4
	3. 국산축산물	44.7
	4. 수입농산물	77.5
	5. 수입수산물	<u>90.2</u>
	6. 수입축산물	<u>88.4</u>
	7. 수산건어물	51.0
	8. 절임식품	49.6
	9. 즉석식품	50.7
	10. 혼연식품	61.5
	11. 냉동식품	70.4
	12. 유제품	25.7
	13. 빵·과자류	44.9
	14. 음료	36.9
건강 위생 부문 (12)	15. 처방전 없이 사먹는 일반의약품	72.4
	16. 다이어트용 약품	<u>92.2</u>
	17. 건강(보조) 식품	70.5
	18. 건강기구	37.1
	19. 건강보조기구	53.8
	20. 위생용품	52.0
	21. 위생세제	22.1
	22. 화장품	48.8
	23. 시력용 렌즈	51.0
	24. 피부미용서비스	50.0
25. 비만관리서비스	<u>82.2</u>	
26. 음주나 흡연	<u>80.1</u>	
주거 부문 (12)	27. 가전제품	14.5
	28. 취사기기	48.9
	29. 스팀청소기, 스팀다리미	50.2
	30. 에어컨, 공기청정기	33.2
	31. 전기 및 가스 히터, 온풍기	66.6

	32. 조리기구	33.2	
	33. 플라스틱 용기	53.9	
	34. 가구	15.4	
	35. 어린이용 실내 미끄럼틀, 그네	71.2	
	36. 가정 내 욕실이나 베란다	40.5	
	37. 새집 벽지, 장판	<b>82.4</b>	
	38. 가정 내 석유, 가스 보일러	62.7	
여가 부문 (12)	39. 레저용품	30.8	
	40. 어린이스쿠터, 놀이용품	78.4	
	41. 국립 및 도립공원	16.8	
	42. 대형놀이시설	74.3	
	43. 경기장	32.3	
	44. 공공체육시설 및 놀이터	52.2	
	45. 공연시설	34.7	
	46. 쇼핑시설	25.0	
	47. 휴식시설	61.2	
	48. 목욕시설	57.4	
	49. 여행을 통한 국내관광	50.9	
	50. 여행을 통한 해외관광	78.5	
교통 부문 (12)	51. 개인자동차	35.8	
	52. 오토바이	<b>92.2</b>	
	53. 택시	71.3	
	54. 시내버스	54.8	
	55. 지하철	32.1	
	56. 기차	19.9	
	57.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54.8	
	58. 항공기	54.0	
		59.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55.8
		60. 거주 아파트의 승강기	60.0
	61. 일반승강기	68.4	
	62. 보행시설	65.7	

\*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음

□ 40개 위해요인별 위해체감도(100-안심체감도) 비교

부문	요인 (40)	위해 체감도
식품 (8)	1.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	70.8
	2. GMO (유전자 재조합 식품)	62.1
	3. 광우병, 조류독감	<b>79.8</b>
	4.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b>79.6</b>
	5. 학교 집단급식	66.0
	6. 1회용 포장용기의 유해성 (환경호르몬)	73.7
	7. 식품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	75.6
	8.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	<b>83.3</b>
건강 위생 부문 (8)	9. 효능이나 약효가 과장된 건강식품	<b>77.8</b>
	10.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기구 생산	66.6
	11. 부적합한 수입한약재 유통	<b>78.9</b>
	12. 무자격 피부 미용관리	67.9
	13. 위생 및 미용제품의 유해화학물질 첨가	73.3
	14.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	74.8
15.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제품	<b>77.0</b>	
16. 지나친 음주나 흡연	<b>76.8</b>	
주거 부문 (8)	17. 가전제품의 감전 및 합선에 의한 사고	37.1
	18. 소비생활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	35.5
	19. 용품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63.4
	20.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의 폭발 위험	46.5
	21. 침구류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 감염	52.7
	22. 조리 등에서 손을 베이거나 화상 사고	31.5
	23. 생활용품 사용 부주의로 다치는 사고	31.4
	24. 노인이나 자녀들의 가정 내 안전사고	45.8
여가 부문 (8)	25. 스포츠용품 결함에 의한 찰과상 및 부상	31.9
	26.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오염	58.2
	27.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	56.6
	28. 국내외 여행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	54.0
	29. 여가시설 관리자 등의 안전 불감증	62.9
	30. 공공이용시설의 위생관리	61.1
	31. 공공시설 이용중의 관람객 안전사고	52.7
	32. 여가서비스 이용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43.8
교통 부문 (8)	33. 자동차 정비 예방 미비로 인한 사고	53.4
	34. 난폭운전(급제동, 과속) 등에 의한 사고	<b>79.5</b>
	35.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b>84.6</b>
	36. 자동차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	57.0
	37. 잘못 설계된 도로구조에 의한 사고	53.8
	38. 관리 잘못에 의한 승강기 사고	62.6
	39. 업무 과중에 따른 졸음 운전사고	70.0
	40. 지하철 역사내의 공기오염	65.6

\* 점수가 높을수록 위해요인에 대한 심각성인식이 높음

부록 2. 주요 변수의 2006/2007 비교

2.1. 품목별 위해발생불안감 비교

2006					2007					전년 대비
품 목			위해발생 불안감	품 목			위해발생 불안감			
국산농산물	39.0	국산농수산물	28.7	▽10.3						
국산농수산물	47.2	국산농수산물	50.4	△3.2						
국산축산물	49.6	국산축산물	44.7	▽4.9						
수입농산물	82.3	수입농산물	77.5	▽4.8						
수입농수산물	87.0	수입농수산물	90.2	△3.2						
수입축산물	88.0	수입축산물	88.4	△0.4						
절임가공식품	55.2	절임식품	49.6	▽5.6						
즉석식품	62.6	즉석식품	50.7	▽11.9						
건조가공식품	49.0	-	-	-						
훈연가공식품	64.1	훈연식품	61.5	▽2.6						
냉동포장식품	70.0	냉동식품	70.4	△0.4						
통조림병조공	58.7	-	-	-						
유유가공	47.3	유제품	25.7	▽21.6						
빵과자류	49.6	빵과자류	44.9	▽4.7						
각종음료	52.3	각종음료	36.9	▽15.4						
-	-	수산물건어물	51.0	-						
일반의약품	55.1	처방전없이사먹는의약품	72.4	△17.3						
외용의약품	37.0	-	-	-						
시력용렌즈	23.9	시력용렌즈	51.0	△27.1						
건강보조기구	52.6	건강보조기구	53.8	△1.2						
위생용품	51.7	위생용품	52.0	△0.3						
화장품	44.1	화장품	48.8	△4.7						
-	-	다이어트약	92.2	-						
-	-	건강(보조)식품	70.5	-						
-	-	건강기구	37.1	-						
-	-	위생세계	22.1	-						
-	-	피부미용서비스	50.0	-						
-	-	비만관리서비스	82.2	-						
-	-	기호식품	80.1	-						
개인의주거공간	41.0	가정내욕실이나베란다	40.5	▽0.5						
개인의주거시설	58.0	가정내석유/가스보일러	62.7	△4.7						
공공보행시설	62.9	보행시설	65.7	△2.8						
공공공원시설	41.2	국립및도립공원	16.8	▽24.4						
각종놀이시설	70.2	대형놀이시설	74.3	△4.1						
기타다중이용물	58.2	공공체육시설및놀이터	52.2	▽6.0						
-	-	공공연시설	34.7	-						
-	-	목욕시설	57.4	-						

-	-	휴식시설	61.2	-
-	-	쇼핑시설	25.0	-
-	-	경기장	32.3	-
생활가전	36.7	가전제품	14.5	▽22.2
주방가전	51.1	취사기기	48.9	▽2.2
개인통신기기	37.2	-	-	-
스포츠·레저용품	45.8	레저용품	30.8	▽15.0
어린이완구	46.1	어린이스쿠터/놀이용품	78.4	Δ32.3
가구	34.5	침대/식탁/거실가구	15.4	▽19.1
-	-	조리기구	33.2	-
-	-	플라스틱용기	53.9	-
-	-	스팀청소기/스팀다리미	50.2	-
-	-	에어컨/공기청정기	33.2	-
-	-	전기 및 가스 히터, 온풍기	66.6	-
-	-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그네	71.2	-
-	-	새집벽지/장판	82.4	-
-	-	여행사를 통한 국내관광	50.9	-
-	-	여행사를 통한 해외관광	78.5	-
개인용자동차	36.9	개인자동차	35.8	▽1.1
택시	61.0	택시	71.3	Δ10.3
시내버스	58.1	시내버스	54.8	▽3.3
기차·지하철	56.1	기차	19.9	-
-	-	지하철	32.1	-
항공	54.9	항공	54.0	▽0.9
승강기·에스컬레이터	69.0	거주아파트의 승강기	60.0	-
-	-	일반승강기	68.4	▽7.6
-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55.8	-
-	-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54.8	-
-	-	오토바이	92.2	-



2.2. 2006년과 2007년간 소비자안전의식과 안전행동 측정지표 비교

□ 2006년과 2007년간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5점척도 평균비교

구 분	2006	2007	전년대비
안 전 의 식	2.83	2.91	Δ0.08
안 전 지 향	3.37	-	-
안 전 신 뢰	2.62	2.86	Δ0.24
정부정책 적절성	2.58	2.85	Δ0.27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상품안전관리	2.59	2.96	Δ0.37
소비자의 안전예방의식	2.50	2.77	Δ0.27
안전커뮤니케이션	2.50	2.72	Δ0.22
안 전 행 동	3.47	3.11	▽0.36
안전정보보유			
안전실천행동			

□ 2006 안전체감지수 개발 연구의 안전의식 . 안전행동 측정지표 구성

구 분	문 항	
안 전 의 식	안전지향	1. 나의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
		2. 소비자안전 관련 뉴스 중요성
		3. 안전하다면 더 비싼 상품 구입용의
	안전신뢰	4. 소비자안전에 대한 적절한 정부정책
		5.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충분한 상품 안전관리
		6. 소비자의 높은 안전사고 예방의식
	안전커뮤니케이션	7.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피해나 사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
		8.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견이 충분히 정부, 기업으로 전달
		9. 소비자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채널
안 전 행 동	식 품	1.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 원산지, 첨가물 등 식품 표시 반드시 확인
		2. 채소나 과일의 잔류농약 제거 방법 인지 및 실천
	의 약 및	3. 의약품 사용 시 빠른 회복 위해 과다 복용

보건위생용품	
주거 및 각종시설물	4. 공공시설, 놀이시설 이용수칙, 주의사항을 반드시 따름
가전생활용품	5. 가전제품 구입 시 사용설명서 읽고, 반드시 취급주의 사항 따름
교통 및 운송	6. 어린이완구, 스포츠용품 구입 시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
전반적 안전행동 실천	7. 리콜 등 소비자안전에 유익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따르는 편

□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안전지향, 안전신뢰, 안전커뮤니케이션의 세 하위 부문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 안전신뢰부문은 주체별로 구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상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의식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

□ 안전행동은 5대 부문별로 각 부문과 관련된 문항을 제시하고 소비자 안전행동 전반적인 실천 정도를 측정하는 1개 문항으로 구성

□ 2007 안전체감지수 개발 연구의 안전의식 . 안전행동 측정지표 구성

구 분		문 항		
안전 의식	안전 신뢰	정부정책	식 품	B3-5. 식품관련 법제의 효과성 B3-6. 식품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
			건강.위생	C3-4. 건강 법제 관리의 효과성 C3-5. 건강 위해정보의 체계적 관리 제공
			주생활	D3-4. 가정내 소비생활 안전제도 운영 D3-5. 가정내 위해정보의 체계적 관리 제공
			여가생활	E3-4. 여가소비생활 전반 관리 E3-5. 여가소비생활 위해정보의 적시 제공
			교통생활	F3-4. 교통 관련 법정책 관리 F3-5.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 노력
		제조업자/ 유통업자의 상품안전관리	식 품	B3-1~4. 농민, 식품가공/유통업자, 급식업체의 안전성
			건강.위생	C3-1. 건강식품업자들의 소비자안전 중시 C3-2. 유통업자의 소비자 안전 중시 C3-3. 건강관련 서비스업체 안전중시
			주생활	D3-1. 제조업자 안전 제품 생산 노력 D3-2. 유통업자의 소비자 안전 노력 D3-3. 주생활 업체의 사고정보의 다양한 제공
			여가생활	E3-1. 놀이시설 운영자들의 사고예방 노력 E3-2. 여가관련 업체들의 안전 무관심


			E3-3. 여행업체들의 충분한 안전정보 제공
		교통생활	F3-1. 자동차 제조업자의 안전 제품 생산 F3-2. 운수업자의 안전중시 및 사고예방 노력 F3-3. 관련업체의 안전사고정보 제공
		A2.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예방의식	
	안전 커뮤니케이션	A4. 소비자위해정보의 국가차원 체계적 수집, 분석과 적절한 제공 A6.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견이 충분히 정부, 기업으로 전달	
안전 행동	정보 보유	식 품	B3-7. 식품 전반의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 보유
		건강.위생	C3-7.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정보 부족 (--)
		주생활	D3-6. 가정 내 안전사고 정보와 지식 보유
		여가생활	E3-6. 여가생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정보 보유
		교통생활	F3-7.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인지
		소비생활전반	A7. 소비생활위해 발생 시 대처요령 인지
	안전 행동.실천	식 품	B3-8. 식품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노력
		건강.위생	C3-6. 건강을 위한 정기적 신체검사와 운동
		주생활	D3-7. 안전한 소비생활 실천으로 안전사고 예방
		여가생활	E3-7.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을 실천
	교통생활	F3-6.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	

□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안전신뢰, 안전커뮤니케이션의 두 하위 부문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

- 2006년에 있었던 하위 부문인 안전지향을 제외한 대신 안전신뢰부문의 문항을 5대 부문별로 정부정책에 관한 신뢰를 묻는 2개 문항과 제조업자/유통업자의 상품안전관리 신뢰에 관한 3~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보다 측정을 강화

□ 안전행동 측정을 위해 안전정보보유와 안전행동.실천의 두 하위 부문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

부록 3. 설문지

	<p><b>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조사의 개인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b></p>								
<h2 style="margin: 0;">2007년 소비자안전 의식 및 행동 조사</h2>									
<p>안녕하십니까?</p> <p>한국소비자원은 국민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p> <p>금번 조사는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시행하는 조사로서, <u>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소비자안전 혹은 위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용</u>입니다.</p> <p>조사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와 응답내용의 비밀이 보장되오니, <u>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u>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7년 8월</p>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연구팀 (<a href="http://www.kca.go.kr">http://www.kca.go.kr</a>) ☎ (02)3460-3300~6 Fax: 3460-3459</p>									
<table style="margin: auto;">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CODE</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D</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r> </table>		CODE			ID				
CODE			ID						
응답자	거주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광주 ⑤ 대전 ⑥ 인천 ⑦ 울산							
성명		주소	구 동						
면접원 성명		면접 일시	___월 ___일 ___시						
성별	남	여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B. 다음은 늘 드시고 계시는 식품 전반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요즘의 식품 전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 품목들에 대해 안전(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구입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품목들은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① 국산 농산물 (곡류/채소/과일)					⑧ 절임식품 (김치/장아찌/젓갈류)				
② 국산 수산물 (활어/조개/해조류)					⑨ 즉석식품 (라면/스프/3분카레)				
③ 국산 축산물 (소/돼지/닭고기)					<input type="checkbox"/> 훈연식품 (햄/베이컨/소시지)				
④ 수입 농산물 (곡류/채소/과일)					<input type="checkbox"/> 냉동식품 (냉동만두/치킨/피자)				
⑤ 수입 수산물 (활어/조개/해조류)					<input type="checkbox"/> 유제품 (우유/요쿠르트/치즈)				
⑥ 수입 축산물 (소/돼지/닭고기)					<input type="checkbox"/> 빵·과자류 (식빵/스낵/비스킷)				
⑦ 수산 건어물 (오징어/북어포)					<input type="checkbox"/> 음료 (청량/과실/스포츠)				

2-1. 위 품목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품목 2개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3. 다음 식품 전반의 안전과 관련하여 본인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농축산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식품 가공 및 제조업자들은 위생적으로 식품을 만든다					
식품 유통업자는 안전한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식업체는 좋은 식재료를 사용, 안전한 음식을 제공한다					
식품관련 법제도와 정책은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식품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나는 식품 전반의 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나는 식품 관련 표시를 반드시 읽고 위해예방에 노력한다					

**C. 다음은 건강·위생 관련 제품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요즘의 건강·위생 관련 제품 전반이 얼마나 안전(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 품목들에 대해 안전(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구입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품목들은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① 처방전없이 사먹는 의약품					⑦ 시력용 렌즈 (안경/렌즈)				
② 다이어트용 약품					⑧ 위생세제 (비누/샴푸/치약)				
③ 건강(보조) 식품					⑨ 화장품 (색조 및 기능성)				
④ 건강기구 (러닝머신/사이클)					<input type="checkbox"/> 피부미용서비스 (피부/두발)				
⑤ 건강보조기구 (맛사지/자기매트)					<input type="checkbox"/> 비만관리서비스 (다이어트)				
⑥ 위생용품 (물티슈/기저귀)					<input type="checkbox"/> 기호품 (흡연 및 음주)				

2-1. 위 품목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품목 2개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3. 건강·위생 제품 전반의 안전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건강식품 업자들은 이익보다 소비자 안전을 중시한다					
건강·위생 제품 유통업자들은 소비자 안전을 중시한다.					
건강 관련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안전을 중시한다					
정부는 건강·위생 법제·정책을 잘 관리·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있다					
나는 건강을 위해 정기적 신체검사를 받고 운동을 한다					
나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관련 정보는 없다					

**D. 다음은 주생활(가정내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집안에서의 소비생활 전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 품목들에 대해 안전(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구입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품목들은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① 가전제품 (세탁기/TV 등)					⑦ 침대/식탁/거실 가구				
② 취사기기 (압력밥솥/가스레인지)					⑧ 가정내 석유/가스 보일러				
③ 조리기구 (주서기/후라이팬)					⑨ 전기 및 가스 히터, 온풍기				
④ 플라스틱 용기 (접시/그릇)					□ 가정내 욕실이나 베란다				
⑤ 스팀청소기/스팀다리미					□ 어린이용 실내미끄럼틀, 그네				
⑥ 에어컨/공기청정기					□ 새집 벽지/장판 (새집증후군)				

2-1. 위 품목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품목 2개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3. 다음 주생활 (가정내 소비생활) 안전에 대해 본인 생각과 일치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주생활 제조업체들은 안전한 제품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주생활 관련 유통업체들은 소비자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주생활 관련 업체는 사고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내 소비생활 안전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내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있다					
나는 가정내 안전사고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안전한 소비생활 실천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E. 다음은 여가 소비생활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요즘 여가 소비생활 (스포츠 레저용품 및 여가서비스 이용) 전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 품목들에 대해 안전(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구입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품목들은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① 어린이 스쿠터/놀이용품					⑦ 휴식시설 (노래방, DVD방)				
② 레저용품 (등산/낚시/골프 등)					⑧ 쇼핑시설 (백화점/할인매장)				
③ 공공체육시설 및 놀이터					⑨ 경기장 (축구/야구/농구 등)				
④ 대형놀이시설 (어바웃/췌터필드)					<input type="checkbox"/> 국립 및 도립 공원				
⑤ 공연시설 (영화관/연극 소극장)					<input type="checkbox"/> 여행사를 통한 국내 관광				
⑥ 목욕시설 (찜질방/사우나탕)					<input type="checkbox"/> 여행사를 통한 해외 관광				

2-1. 위 품목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품목 2개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3. 다음 여가 소비생활 안전에 대해 본인 생각과 일치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놀이시설 운영자들은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여가관련 업체들은 돈벌이만 생각하고 안전은 뒷전이다					
여행업체는 여행객 안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 소비생활 전반을 잘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위해정보를 필요한 때에 제공하고 있다					
나는 여가생활 안전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나는 안전한 여가 소비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F. 다음은 교통 소비생활 전반의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요즘의 출퇴근, 통학, 업무수행을 위한 교통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다음 품목들에 대해 안전(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구입 또는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품목들은 공란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매우 안전	안전	불안	매우 불안
① 개인 자동차 (승용/승합)					⑦ 기 차				
② 오토바이					⑧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③ 보행시설 (횡단보도/지하도)					⑨ 항공기				
④ 택 시					<input type="checkbox"/>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⑤ 시내버스					<input type="checkbox"/> 거주 아파트의 승강기				
⑥ 지하철					<input type="checkbox"/> 일반 승강기				

2-1. 위 품목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품목 2개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3. 다음 교통 소비생활 안전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일치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동차 업체는 안전한 제품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운수업체들은 안전을 중시하고,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관련 업체는 사고 안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 관련 법정책을 잘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나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있다					
나는 안전사고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G. 다음은 소비생활 관련 본인 스스로 느끼는 심각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다음 식품 관련 요인들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채소, 과일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						
② GMO(유전자 재조합식품)						
③ 광우병, 조류독감						
④ 축산/활어의 항생제 남용						
⑤ 학교 집단급식						
⑥ 1회용 포장용기의 유해성 (환경호르몬)						
⑦ 식품 가공에서의 유해 식품첨가물						
⑧ 수입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						

1-1. 위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2개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2. 다음 건강 및 위생 관련 요인들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효능이나 약효가 과장되어 있는 건강식품						
②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 기구 생산						
③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 유통						
④ 무자격 피부미용 관리						
⑤ 위생 및 미용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첨가						
⑥ 처방약 및 주사의 항생제 남용						
⑦ 허위과장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						
⑧ 지나친 음주나 흡연						

2-1. 위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2개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3. 다음 가정내 소비생활 관련 요인들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가전제품의 감전 및 합선에 의한 사고						
② 소비생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						
③ 용품 소재의 유해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④ 가스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의 폭발 위험						
⑤ 침구류의 진드기 등에 의한 피부 감염						
⑥ 조리 등에서 손을 베이거나 화상 사고						
⑦ 생활용품 사용 부주의로 다치는 사고						
⑧ 노인이나 자녀들의 가정내 안전사고						

3-1. 위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2개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4. 다음 여가 소비생활 관련 요인들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스포츠용품 결함에 의한 찰과상 및 부상						
②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오염						
③ 놀이시설 등에서의 시설물 안전관리						
④ 국내외 여행에서의 비행기 추락사고						
⑤ 여가시설 관리자 등의 안전 불감증						
⑥ 공공 이용시설의 위생관리						
⑦ 공공시설 이용 중의 관람객 안전사고						
⑧ 여가서비스 이용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4-1. 위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2개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5. 다음 교통 관련 요인들이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① 자동차 정비 예방 미비로 인한 사고						
② 난폭운전 (급제동, 과속) 등에 의한 사고						
③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						
④ 자동차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						
⑤ 잘못 설계된 도로 구조에 의한 사고						
⑥ 관리 잘못에 의한 승강기 사고						
⑦ 업무 과중에 따른 졸음 운전 사고						
⑧ 지하철 역사내의 공기오염						

5-1. 위 요인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2개 요인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H.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현재의 만 연령은? (        )세
3. 최종 학력은? ① 중졸이하    ② 고졸(중퇴포함)    ③ 대졸(중퇴포함)    ④ 대학원졸
4. 직업은?  
 ① 농/임/어/수산업    ② 사무기술직    ③ 생산직    ④ 판매/영업직    ⑤ 관리직  
 ⑥ 공무원            ⑦ 전문직            ⑧ 전업주부    ⑨ 학 생            □⑩ 기 타
5. 귀댁(가족 모두 포함)의 한달 평균 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6. 결혼관계는?    ① 기혼            ② 미혼            ③ 기타(사별, 이혼 등)
7. (기혼인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까?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8. 가구의 세대구성은?  
 ① 독신가구                            ② 부부가구                            ③ 미취학자녀+부부(2세대가구)  
 ④ 취학자녀+부부(2세대가구)    ⑤ 성인자녀+부모(2세대가구)    ⑥ 자녀+부부+부모(3세대가구)
9. 살고 계신 주택 형태는? ① 아파트    ② 단독주택    ③ 다세대/다가구    ④ 연립·빌라    ⑤ 기타